

제 2 편

식물 아카이빙



제 2 편 직물 아카이빙

제 1 장 1910년대 ~ 1940년대 직물산업

1) 강화 직물산업의 유래와 발전	117
2) 단체 및 조합의 활동	144
3) 제품의 종류와 생산량	151
4) 생산품의 판매 방법	158
5) 주요 인물과 공장의 경영	166

제 2 장 1950년대 ~ 2000년대 직물산업

1) 직물산업의 변화	176
2) 노동운동	190
3) 고급 넥타이 생산	200

제 3 장 2000년대 이후 직물산업의 재탄생

1) 심도직물 등 공장의 폐업	204
2)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206

[일러두기]

본문 내용 중 '□'표시는 자료 번역시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을 표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1 장 1910년대 ~ 1940년대 직물산업

1) 강화 직물산업의 유래와 발전

① 유래

강화 등 경기도 여러 지역 직물표본조사, 직물사업 발전계획 수립 (1912)

직물(織物) 표본조사(標本調査)

경기도 권업계(勸業係)에서는 농상공부(農商工部) 식산국장(殖産局長)의 조회(照會)에 의하여 수원, 개성, 강화(江華), 연천, 삭녕, 교동(喬桐), 여주 등 군수(郡守)에게 신칙(申飭)하고 관내(管内) 인민(人民) 영업(營業)에 관해 직물표본의 종류(種類) 및 물색(物色) 등을 조사(調査) 수보(修報)하라 하였는데 그 내용인 즉 해당 사업을 발전할 계획으로 장려코자 함에 있다[在]더라.

매일신보 / 1912.03.30.

강화직물품평회 및 수상자, 기업현황 (1917)

직물(織物) 품평회(品評會)

경기도 강화군에서는 관내 강화 직물조합의 주최로 지난달[客月] 20일에서 이달[本月] 4일까지 15일간 군내(郡內)에서 산출(産出)한 직물 품평회를 열었는데, 출품점수는 약 250점이요, 출품자는 약 150명이라. 출품물은 면직물 외에 마직물이 있었으며, 그 외 참고품으로 완초제(莞草製) 화문석(花紋席)과 신발[靴下] 및 본떠만든[擬製] 파나마 모자(帽子)가 있었더라. 개회(開會) 중에는 본도 기술원(技術員)이 출장하여 출품심사를 진행(專行)하였는데, 심사보고에 의하면 출품물은 전부 개량직물로서 비교적 품질이 우량하다하며 출품물은 군내 각 면에서 제조하는 바, 그 중 하집, 송해, 양도, 길상면이 최다(最多)한데 관람자가 1천7백명에 달하여 자못[頗] 성황을 이루었으며[로], 직물의 품평회는 이[此]로서 효시(嚆矢)가 될지며 수상자 수와 동군(同郡)의 최근 직물업[織業] 상황은 다음과 같다[如左] 하더라.

[수상자(受賞者) 수]

1등	3인	신영철(申永喆), 고헌조(高學祖), 전승순(全昇淳)
----	----	------------------------------

2등	9인	김동식(金東植) 외 8명
3등	18인	전남식(全南植) 외 17명
4등	32인	구록서(具祿書) 외 31명

[기업현황(機業現況)]

연도(年次)	개량기(改良織) 기대직(機臺織)	연산액(年産額)	제조호수(製造戶數)
대정4년(1915)	219대	101,960원	135호
대정5년(1916)	229대	102,315원	147호
대정6년(1917)	350대	140,000원	226호

매일신보 / 1917.12.30.

강화 직물업의 대발전 (1918)

강화 ▲ 직물업(織物業) 대발전(大發展)

경기도 굴지(屈指)되는 강화직물업은 매년 더욱 더 장족(長足) 진보되어 최근에 조사에 의한 즉, 연간 생산액이 약 15만원에 달하고, 직기(織機)는 각 면에 산재(散在)하였는데, 개량직기(改良織機)가 약 400대, 재래직기(在來織機)가 약 2,600대에 달하는데, 개량직기(改良織機)의 종류를 구분하면 개량수직기(改良手織機)가 260대, 족답직기(足踏織機)가 110여대요, 문직기(紋織機)가 약 20여대 라더라.

매일신보 / 1918.02.15.

내 고장 명산 강화직물과 화문석 (1930)

내 고장 명산(名産) 연산(年産) 40만원의 강화직물[江華織]과 화문석(花紋席)

제품은 세계시장 진출

강화도 유지영(劉智榮)

▲ 서언(緒言)

강화도는 경기도 서단에 있어 호수(戶數) 13,700여 호에 인구 72,000여 명을 가진 작은 섬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어업과 임업이 다소 있으나 별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지대(地帶)가 지대이니 만큼 이렇다고 내세울만한 특산품이 없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백년 전부터 직물(織物)이 다소(多少) 산출(産出)되어 왔으니 반포(斑布 : 반물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띠나 수건 감의 폭이 좁은 무명), 필누비(疋累飛 : 누비 모양으로 짠 피륙. 발이 고우며 지금의 코르덴과 비슷하다) 2종은 조선 유일의 특산품이다. 이 직물은 의차(衣次 : 옷을 짓는 데

쓰는 천·옷감)와 세수수건(洗水手巾) 등으로 적합하여 전조선적(全朝鮮的 : 전국적)으로 판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외래품이 수입되던 초기인 이제로부터 20여 년 전에 이르러 개량직기(改良織機)의 유리함을 깨닫고 외지에서 해직기(該織機)를 매입하고 이 업계에 종사하게 된 것이 오늘의 다량생산을 하게 된 동기였다. 그리고 화문석이라 하면 삼척동자라도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이것이야말로 강화도의 독특한 산물로, 기원(起源)한 경로(經路)는 명료치 않으나 옛 어른(古老)의 전언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距今] 7십여 년전 강화군 하점면 양오리 한충교(韓忠敎)란 사람과 양사면 철산리 김신행(金信行) 등 두 사람이 창시한 것으로, 당시에는 궁중(宮中) 헌상품(獻上品)만을 만들어내던[製出] 것으로, 다른 사람은 그 기술을 배워 얻을[學得] 수 없던 것은 고사하고, 개인집에서는 사용까지 엄금(嚴禁)하여 왔었다고 한다. 그 후 궁중헌납을 폐지한 지금으로부터 35년 전부터 일반평민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되면서, 타인에게까지 기술을 전수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금에 있어서는 매년 1만여 매(枚)의 생산을 보게 된 것이다.

▲ 생산지(産地)

조선 직조계(織造界)에 차위(次位 : 둘째자리)를 싫다할 강화직물은 면포(綿布), 견포(絹布), 인조견(人造絹), 저마포(苧麻布) 등 30여 종의 직물로 산지는 강화군 하악면(河岳面, 河帖面の 오류), 양사면, 내가면, 송해면의 4개면으로, 부녀자의 손을 중심으로 짜낸다[織出]. 이 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현재 773호로, 종업 인원이 대략 2천여 명과 개량직기(改良織機) 1,036대로 매년 생산되는 것이 (작년 말 현재) 96,335필인 바,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본다면 원가(原價)로 40여만 원이라는 숫자를 내고 있다.

화문석의 산지도 하악[하점]면, 양사면의 2개면으로 이 업에 종사는 가구수는 65호, 종업 인원은 180명으로 매년 1만2천여 매(枚)의 산출을 보게 되어 가격 약 3만여 원의 수입을 보게되는 대량생산을 하고 있다.

▲ 제조법(製法)

강화직물은 면사(綿絲)와 견사(絹絲) 2종으로 직출(織出)되나니 제조법(製法)은 보통직물과 동일한 과정을 밟아 되는 것으로, 강화직물조합(江華織物組合)에서는 매년 4백여 원의 경기도 지방비(地方費) 보조를 얻어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며, 동업자의 지도를 위하여 그 업계에 경험이 많은 기술자를 배치하고 개량직기(改良織機)의 보급과 장려, 아울러[並] 직물(織物)의 품질개량과, 그 밖에 제품통일을 하기에 전력을 다하며, 공동 정리장(整理場)과 공동 작업장 등을 건축하고, 일반동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고 있다. 종업원들은 직공과 그 외는 대개 부업으로 종업하는 만큼, 직공들이 받는 임금은 50전(錢) 내지 1원(圓)의 수입을 보고 있으며, 부업으로 종업하는 편(便 : 쪽)은 본업은 농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불경기를 모르고 매일 평화한 가운데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장)부근 지대에 밭을 들여 놓으면 북소리, 물레

소리, 직기소리로 맥박이 뛰는 듯한 거룩한 이상향의 기분이 돌고 있어 별천지의 감이 있다. 화문석에 있어서는 원료를 완초(莞草 : 왕골)와 고초(藎草 : 벧집)를 사용하며 쥘[葛草]으로 만드는 노끈을 사용하여 만들어내니, 직기는 재래품으로 완초의 색이 결백(潔白)하니 만치, 보통 외지에서 생산하는 완초와는 색이 특별히 다르다. 화문석(花紋席)은 문자 그대로 화문석[꽃무늬자리]이니만치 완초에 청, 황, 적, 백, 흑의 염색을 들어 각각의 모양을 자유롭게 연출시켜 만들어 낸다. 강화화연조합(江華花筵組合)에서는 직물조합과 동일한 사명감을 띄고 공업 기술자[技手]를 배치하여 완초 재배와 염색의 연구 개선 등에 있어서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문석은 실용품이며 예술품이니만치 조선예술사상에 이채로운[異彩的] 페이지를 점령하고 있다.(續)

동아일보 / 1930.11.29.

▲ 특색(特色)

직물(織物)은 대개 옷감[衣次]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요대포(腰帶布)라는 것은 우리네 가정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침구로 사용되어 실내장식에 한 자랑거리가 되어있다. 화문석은 혼인, 연회 등 명절(名節) 때와 경절(慶節) 때 사용하는 고급 연석(筵席)이니 만큼 외부인에게 토산물로 연말연시에 선사용으로 가장 적합하다. 듣건대 서양인들은 그것을 과도대용(掛圖代用)으로 서재나 응접실에 걸어둔다[掛置]는 것만 보아도 화문석의 가치가 얼마나 예술품인 것을 넉넉히 엿볼 수 있다.

▲ 판로(販路)

이러한 경로를 밟아 산출되는 직물과 화문석의 판로와 판매 방법은 어때[如何]한가?

직출(直出)하는 직물은 직물조합(織物組合)의 검사를 받아 외지에 수출하니 경향(京鄕 : 서울과 지방) 각지의 저명한 포목상과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대개 농한기를 이용하여 남부여대(男負女戴 :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로 외지에 직접 행상(行商)을 하나니 행상지는 조선 각도(各道)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여름철과 겨울철로 2회로 나누어 행상기(行商期)를 정하였으니 행상대(行商隊)는 약 2~3백명의 남녀로 강화를 떠날 때면 갑곶항(甲串港)에 수출되는 상품이 산적되는 만큼 10여 일간은 대혼잡을 나타내고 [보] 있다. 이리하여 상품은 대개 외상으로 판매된다. 즉, 여름철에 팔리는 상품대금은 다음 겨울철에 수집하고, 겨울철에 팔리는 상품대금은 다음 여름철에 받기로 한다. 이리하여 판매성이 양호한 것은 사실로 소매로 생산되는 이익이 원가에 약 1할 5분이나 되어 연 2회 행상 시에서 생기는 돈이 매호(每戶 : 모든 집) 마다 2~3백원에 이르고 있다. 이리하여 행상기에는 가정에는 노약자만이 남아있게 됨으로 세계대전(世界大戰) 시의 독일(獨逸)을 연상하게 된다.

화문석은 품질과 모양에 따라 가격이 일정하지 않으나, 시장에 매출되는 것으로는 3원 내지 5원의 2~3 종류가 있을 뿐이나 주문자의 희망에 따라 1매에 수십원 혹은 수백원의 품질

차이가 있다 한다. 이리하여 동조합(江華花筵組合)에서는 판로를 확장하고 외지에 선전할 목적으로 조선과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 열리는 공진회(共進會)와 박람회(博覽會) 등에 빠짐 없이[無漏] 출품을 해온 만큼 해외 각지에서도 그 가치와 존재를 확인하게 되자 해외로부터 주문이 끊임없다[不絕]. 조선 내 유명한 상점인 삼월(三越 : 미즈코시)과 조선관(朝鮮館) 등을 필두로 일본 각지 대판(大阪) 조선물산출장소(朝鮮物產出張所)에 진열되어 있어 절대적인 호평을 넓히고[博] 있는 조선 유일의 명산품인 우리 강화도 화문석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 무리(無理)라 할 수 없다.

▲ 결론

“강화도에도 축구(蹴球)할 데가 있나?” 하는 친구의 조롱도 받은 바 있으나 강화도의 총 면적이 겨우 27,322방리(方里) 밖에 안 되는 좁다란 섬(島鄕)에서 이와 같은[如此] 다량 생산의 직물(織物)과 중외(中外(중외 : 나라 안과 밖)에 명성이 높은 세계적 예술품인 화문석(花紋席)이 생산되는 것을 지상품평회(紙上品評會)에 출품하여서 독자에게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귀중한 (신문)지면(紙面)을 빌어 소개하며, 끝으로 강화직물과 화문석의 최근 3년간 나타난 현상을 통계적으로 기재하여 둔다

▲ 강화직(江華織)

연도(年度)	점수(點數)	가격(價格)
소화2년(1927)	90,505단	214,117원
소화3년(1928)	92,974단	271,766원
소화4년(1929)	76,335단	309,092원

▲ 화문석(花紋席)

연도(年度)	매수(枚數)	가격(價格)
소화2년(1927)	11,175매	20,630원
소화3년(1928)	15,840매	15,176원
소화4년(1929)	12,490매	17,090원

주의) 직물 점수(點數)는 면사포(綿絲布) 외 32종(種), 화문석의 가격은 원가(原價)로 되어 있음.(끝)

동아일보 / 1930.11.30.

강화 직조공장 (1932)

직조공장(織組工場)

하점면 송해면에 있는 것이 수십 곳[處]이니, 구식[舊時] 직조는 기기(機器)가 불리(不利)하

여 직조품[織品]이 항상 열악하고[恒劣] 이율(利率)이 매우 낮았는데[甚薄], 근래[近時]에 개량(改良)한 기계[機]를 만들어[拊] 제품[織品]이 전에 비하여 정밀[精緻]하며 이율도 배가 되었다[倍蓰]. 이 사업의 창시자(創始者)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1910년대]의 고성근(高成根), 김동식(金東植)이니 두 분의 경영으로 그 후에 원근(遠近)에서 점차[稍稍] 모방하여 오늘날[今日] 직조(織組)의 총 생산액이 연간 수십만원(圓)이다.

고성근(高成根)은 제주인(濟州人)이니 사람됨[爲人]이 신중강건[沈重勇剛]하고 시무에 밝았다[明於時務]. 일찍이[常] 교육(教育)과 실업(實業)의 발전하지 못함[不展]을 근심[爲憂]하더니 시세(時勢)의 전환[一轉]에 미쳐 먼저[先] 뽕나무묘목[桑苗] 5천 주(株)를 심어 양잠(養蠶)을 준비하고, 한편[一面]으로 직조기(織組機)를 수입(輸入)하여 직조업(織組)을 확장했으며, 또[又] 넓은 과수원(果園)을 관리하고, 유진식(俞鎭植)과 협력(協力)하여 시설(施設)한 인천(仁川) 연백(延白) 등지의 항행업(航行業)은 사무(事務)의 장애(碍滯)로 인(因)하여 그에게 양보(讓步)하니라.

김동식(金東植)은 청풍인(淸風人)이니 정우당(淨友堂) 김식(金湜, 1482~1520)의 후손이라, 사람됨[爲人]이 훌륭하며 고매하고[瑰偉爽邁] 변화에 대응하여 대책을 세워[策機應變] 시무(時務)에 밝았다. 실업계(實業界)에 헌신한 이래 20년간에 옷감 짜는 북소리[梭聲]가 남북의 마을에 두루 미치게[遍南北閭里]하니 그 분투(奮鬪)의 노력(努力)이 응당 그러하지 않았겠는가[當何如耶].

〈속수증보강도지〉 1932.02.15.

전 조선의 패권 장악 멀지 않은 강화 직물업계 (1934)

연산(年産) 백만원 가진 강화의 직물계(織物界)

전조선(全鮮)에 패권도 머지않아[未久]에 장악
성가(聲價)는 날로 드러나

강화산업 중에[上] 직물처럼 발달된 것이 없다. 이리므로 당국에서는 장려와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지만은[不殆], 강화산업조합이 성립한 후 더욱이 가속적으로 장족(長足)의 진보를 보게 되어, 경제력이 피폐해 가는 이때에 농촌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년 생산액이 백여 만원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황해 중에 손바닥 만한 섬 중에 이만한 재원이 산출되는 데는 놀라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 직물의 유래

강화는 수백 년 전부터 재래 직기로 반포(斑布) 및 문영(文英 : 本木) 필루비(疋縷飛)의 산출이 왕성하여 오던 터인데 풍조가 변하여 단순하던 생활이 복잡하게 됨에 따라, 외래품의 압력을 받게 되니 점점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1910년대]에 개량

직기(改良織機)의 유리한 것을 자각하고 이 업계[斯界]의 종사자가 속출하게 되어 이것이 본지방 직물계의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그 때 하점면 한봉수(韓鳳洙), 이동승(李東承)씨와 송해면 허□(許□)씨가 깊이 착안을 하여 직물계 선구자(先進者)가 되었다. 그 후[爾來] 개량직기 사용자 증가가 현저하게 되었으나, 이것을 기회로 중간 상인의 당 업자 이익 착취가 심하여 일시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되어 농가 부업의 대손실이요, 지방 발전 상 중대 영향이 파급될 것을 우려하던 바, 1916년(대정 5) 10월에 동업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화 직물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성립 후 당 업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기술원을 채용하고 개량기의 보급 장려 및 품질 개량, 제품 통일을 목적하고 1923년(대정 12) 8월부터 제품 검사를 실행함을 따라 지방비 및 국비 보조를 받고 공동정리장, 공동작업장 등을 건축하여 어디까지 당 업자 이익을 옹호하여 왔으나 간상업(奸商業)의 발호와 자본 없는 농가인 만큼 원료 수입이 부자유하여 중간상인이 있다 하나 폭리를 탐하는 관계상 결국 도로무공(徒勞無功)이라. 이익 옹호도 수포가 되고 업적 부진은 정한이치(定理)이다 이 같은 고통을 받아 오던 중 1931년(소화 6)에 강화산업조합이 설치되게 되었다.

▲ 강화산업조합의 내용

산업조합령이 발표됨에 따라 1931년 10월에 강화산업조합이 설치되었다. 본 조합은 직물을 주로 직수입하는 원료 공급과 당 업자 이익 옹호에 막대한 노력이 발생되어 성립 당시 직물 생산액이 년 30만원에 불과한 것이 겨우 2년 남짓[餘]에 일약 100여만원이란 3배 이상의 생산물을 얻게 되었다. 당 업자에게 공급하는 직물은 면사(綿絲) 인견사(人絹絲) 마사(麻絲) 등의 거래처는 경성, 대관, 동경 등지라 한다. 생산이 증대함과 같이 업[業]도 일익번창(日益繁昌)하여 설립 당초부터 활동해 오는 황우천(黃祐天), 김평묵(金平默)씨 더욱 흥미를 가지고 직접 지도관의 중책을 지고 나가는 터인데, 처음은 생산 장려와 당업자 이익 옹호에 전력을 경주하였지만은 지금[現今]은 조직적 계획을 세워 품질 개량 등급확별(等級確別) 등 점차 기술적 방면으로 지도를 하여 나가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이 1천6백인으로 장래를 두고 다대한 촉망이 있는 조합이다.

▲ 직물종류[織種]의 별(別)

현재 제조되는 것은 10종에 이르는데, 이를 대별하면 필루비, 마포, 인견교직인데 인견교직을 대별하면 □, 능직(綾織), 라사(羅紗)이다. 필루비는 면사(棉絲) 인견사(人絹絲)요, 마포는 순마사(純麻絲)요, 인견교직은 명칭과 기타 입조사(入造絲), □사(絲)의 교직(交織)으로 대개 경척(鯨尺) 40척 □필이다. 인조교직은 유문(有紋), 무문(無紋), 유색(有色), 무색(無色)이 있는데, 색은 10종 □량(量)이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이 느는 것을 보면 장래 전선적(全鮮的)으로 직물계 패권을 잡게 될 줄 안다.

▲ 직물의 판로상황

곡절파란(曲折波瀾)이 많아 위미부진(萎靡不振)하다가 현재에 와서야 통제가 서게 된 만큼 완전한 상품화를 하지 못하여 남부여대(男負女戴)로 전선(全鮮)에 매출되는 동시에 판매 중요 역할이 남자 보다 여자가 낫다는 것이다. 물로 외래품을 대항할 만한 선전력(宣傳力)이 없는 만큼 이렇다 하려니와 품질이나 기술이나 별반 손색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혹 색태(色態)에 손색이 없을런지 모르나 실용적에 있어서는 도리어 환영을 받을 것이다. 또 상품화 하지 못한 지라 여자들의 손으로 가가호호(家家戶戶) 판매에 따라 가액(價額)이 일정치 못하나 내용에 있어서는 외래품보다 저렴한 것이다. 가액으로나 품질로나 외래품을 압도한 만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전의 부족함과 통제시일이 짧은[淺] 까닭[所以]일 것이다. 그 외 필루비(疋縷飛) 반포(斑布) 마포(麻布)는 도시 중요 상점에 거래[取引]가 이만한 터이라 더욱이 장려와 개량에 주력하면 그 성가(聲價)는 날로 높아갈 것이다.

▲ 통계

이제 종류별로 년 산액 숫자를 보면

인견교직(人絹交織) 80만원 / 필루비(疋縷飛) 20만원 / 마포(麻布) 10만원 / 기타 10만원

매일신보 / 1934.02.13.

산업 강화, 강화 사람의 손으로 이루기까지 (1936)

쇄국주의(鎖國主義)의 여파(餘波)로 배륙사상(排陸思想)에 개가(凱歌)

산업(産業) 강화(江華)를 이루기까지

[강화도]

강화도 초지진에 있는 한 개의 승첩비(勝捷碑) - 이것이 바로 저 양헌수(梁憲洙) 대장의 명령 아래 강화도에 들어오려던 불국(佛國 : 프랑스) 함대를 쳐서 물리친 표적(標的)이거니와,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단코 대원군의 쇄국정책만으로 빚어온 한 개의 비참한 유물이 아니라 실로 강화 사람들의 강화도를 지키려는 배륙사상(排陸思想)의 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강화도는 강화도 사람의 손으로!” 라는 철저한 배륙사상(排陸思想)의 발전을 보건대, 과거 수 백년 간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요, 조선의 역사에서 빼어낼 수 없는 가지가지의 중요한 사건의 본 무대이었던, 소위 “도한(島漢)”이라 하여 치욕과 모멸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섬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 발생적 배륙의식(排陸意識)이 발전이고 시간적으로는 장구한 역사가 흐르는 동안 그들의 자작자급의 훈련과 실천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섬 밖의 어떠한 섬 밖의 어떠한 경제적 세력도 침범치 못하게 하고, 강화도는 완전히 강화 사람의 소유로 내려왔음을 보게 된다. 그들의 생활 전체가 보수적(保守的)인색하다는 것은 여기 구태어 사족적(蛇足的) 설명이 필요 없으려니와 그렇다고 이것을 나무랄 것도 못됨은 이들은 오직 이러한 생활방

식 아래서 자작자급으로 오는 날까지 강화가 강화 사람의 강화로 내려오는 것인 것이다.

그들의 풍족한 농어산물과 강화 특유의 부산물을 섬 밖에 내보내 돈으로 바꾸어 들여오기는 하지만 이 섬의 농토를 소유한 자로 섬 밖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농촌 기구의 엄연한 존재인 「부재지주(不在地主)」의 존재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개성의 장꾼을 능가하고 남음이 있는 여자행상대(女子行商隊)가 조선 전 구석구석 아니 퍼진 데가 없음을 본다.

▲ 이 몇 가지 이들 배륙사상의 개가(凱歌)를 부르는 현상을 살펴보자.

부유한 자작자급의 철저한 생활신조 아래 「부재지주」의 존재를 허하지 않는 강화의 농산물은 섬 안의 식량에 소비하고도 넉넉하여 이제 삼신기선(森信汽船)을 통해서 섬 밖으로 내보낸 것만 보아도 94만여 원. 여기 개인의 손으로 흘러나간 것을 연상하면서 강화 인구 7만7천여 명에 비해 볼 적에 우선 이들의 경작 농토와 산물의 풍족함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다시 천혜의 어산물(漁產物)을 섬 밖 사람들의 밥상에 놓아줌이 1년에 40만원 이상에 달하고, 구한국시대에는 유명한 강화의 감(柿)만 가지고도 강화 사람은 국세를 바치고 남았다고 하리만한 부업이랄 것도 없는 부산물 등을 보아 첫째 이들이 천혜적으로 유족함을 알 것이다.

▲ 부업의 강화 인조견 화문석의 명성은 이미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 알고 남은 바이거니와, 이 두 가지 상품이 과거의 부업 시대를 걸쳐서 이제 남자들의 손에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서 강화 사람의 경제생활은 한층 더 윤택하게 된 것이다.

직물로 보건대,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지로, 반포와 무명을 위시하여 요새 와서는 인조견을 주요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데, 근자에는 강화 산업조합을 총 본영으로 하고, 년 1백만 원을 돌파하고 있다.

이 직물의 특성이라 할 것이 곧 강화 사람이 생활신조와 성격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외화를 배척하고 질(質) 본위의 실용품인데 그 판매는 거개가 강화인의 행상인들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하고 있다.

행상인은 약 2천5백여 명으로 계산되는데, 그 3분의 2 이상이 부녀자로서 이들은 자수(自手 : 손수)로 짜서 자수(自手)로 들고 나가 전 조선에 편만(遍滿)하고 안 들르는 집이 없이 직접 가정부인을 상대로 소화시키고 있다.

이들의 년 수입은 매명(每名) 7, 8백원을 넘기고, 고용되어 인조견을 짜기만 하는 여자로도 2백원을 내리지 아니 한다고 한다.

그리고 화문석은 그 명성에 비기어 생산고는 많지 못한 편이나, 어쨌든 이 두 가지 특수 부업이 있는 위에 농가에서 짜내는 ‘가마니’ 만도 년 생산 10만원을 넘는다 하니 그들의 생활을 엿보기에 어려울 것이 없다.

▲ 상업계(商業界)만 하여도 상권이 통틀어 강화사람 손에 있다. 요새 와서 일본 내지인 1명이 관청을 상대로 한 구석에 점포를 내었고, 몇 해 전에는 중국인이 하나 들어갔다가 그

지독한 중국인 솜씨로도 결손(缺損 : 손실)을 당하고 가버렸다는 것은 이들의 유쾌한 화제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것은 물론 소비층이 전부 강화 사람에 국한된 데다가 그들의 배륙사상(排陸思想)-섬안에서는 섬 안 사람끼리 사고팔자는 생각으로 다른 상점에 가지조차 않는 관계였다고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보아도 금융조합이 2개 있을 뿐 은행 지점 같은 것은 없다.

동아일보 / 1936.01.01.

강화의 섬유공업 (1976)

강화직물의 연혁을 보면 이미 4백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에는 거좌기(居座機)로 반포(斑布) 및 백목면(白木棉)을 짜내었으나 약 60년 전 직물에 착안한 선각자 김동식(金東植)이 직기를 개량하는 동시에 대대적으로 생산을 보급 장려하는 한편 선전에 주력하여 강화 비단의 질을 높이고 공장을 건설하여 많은 직물을 생산했다.

그러나 당국도 이 방면에 유의하게 되어 1916년 정혜채(鄭惠采)의 노력으로 강화직물조합이 설치되고 품질 개량에 주력하는 한편 국고 보조를 얻어 공동 작업장을 건설하고 화문석(花紋席) 업자까지도 이 기회에 사업을 조장시켰다.

그 후 1921년 강화직물화연조합으로 개편했다가 1923년에 폐지되고, 1931년에 당시 도 평의원 황우천(黃祐天)이 강화산업조합을 창설하여 더욱 활발했었다. 이때의 제품은 인견 교직포가 수위이고, 다음이 마저포였다.

해방과 더불어 동 조합의 활동이 부진하게 되어 1962년에 해산되었다. 조합이 해산한 뒤로는 각자 공장을 경영하여 현재와 같은 직물 산지로 유명해졌다.

<강화사>568쪽 / 1976.02.26.

② 직물산업의 발전

강화 중앙모범직물공장 설립 (1918)

강화 ▲ 모범(模範) 직물공장(織物工場) 설립

본군 실업가 송순석(宋順錫)씨는 다대(多大)한 금액으로 당지(當地) 부내(府內)에 중앙모범직물공장(中央模範織物工場)을 설립코자 하므로 당 군청에서도 찬성하여 관유(官有) 건물을 대부(貸付)코자 신청 중이라더라.

매일신보 / 1918.03.15.

강화 중앙염직소의 변창 (1920)

염직소(染織所)의 변창

강화군[當郡] 하점면(河帖面) 삼거리(三巨里) 이용화(李容和)씨는 일찍[曾]이 경성(京城) 중앙학교(中央學校)를 졸업한 청년 수재(秀才)인 바, 고향 산업의 부진함을 항상[常時] 개탄하던 바, 지난해[客年] 11월 경에 가산(家産) 중 1만여 원을 기울여[傾] 본군 부내면(府內面) 관청리(官廳里)에 중앙염직소(中央染織所)를 세우고[設], 수직기(手織機), 족담기(足踏機)는 물론 문직기(紋織機)도 2좌(座)를 설치하여, 50여 명의 남녀 직공(織工)을 친히 감독 지도하는데 업무가 날로 진보[日進]할 뿐 불시(不瞞)라. 강화 특산으로 고래로 저명한 강화누비(江華纒紉), 강화반포(江華斑布) 등에 개량을 더한[加] 짓[者]과 당해(염직)소(所)의 고안창직(考案創織)인 강화목(江華木)은 동업자(同業者)와 수용자(需用者) 간에 다대(多大)한 환영을 받아[受] 각지의 주문이 답지(踏至)한다더라. [강화(江華)]

동아일보 / 1920.05.03.

강화 직물산업 현황 (1922)

강화기업상황(江華機業狀況) 현저한 발달

강화도는 전선(全鮮 : 전 조선) 유일의 기업지로 그 장래 발달에 관하여는 도 당국에서도 크게 주목[矚目]하는 바인데, 지난번[過般]에 기업 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정(大正) 6년[1917]의 강화도[同島]의 기업자수는 7백98 인, 개량기계수[改良機數] 2백94, 재래기계수[在來機數] 5백51, 생산가격 14만1천3백75 원이던 바, 8년[1919]에는 기업자수 1천 2백14인, 개량기 4백39, 재래기수 9백67, 생산가격 24만5천7백79원에 달하였고, 더욱이

대정(大正) 10년(1921)에는 기업자수 1천3백99인, 개량기수 3백99, 재래기수 1천1백73, 생산가격 8만9천8백53원으로 증가하였고, 개량기수 및 생산가격에 다소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대정 8년[1919]의 사계(射界)가 불황시대에 입(入)하였으므로 대국적으로 보면 기업은 연년이 진보한다 함이 옳은데[可] 도청에서는 특히 이를 발달시키기 위하여 기업조합으로 하여금 동소(同所)에 다수의 집합작업소(集合作業所)를 설치하게 하고, 당국에서도 1개년(個年) 1개소(個所)에 3백 원의 보급금(補給金)을 주는 외에, 지도자를 파견 하여 집합작업의 지도방법에 의하여 그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하고, 우량한 직공을 표창하기 위하여 때때[時時]로 직물직공경기회(織物職工競技會)를 개최하며, 게다가 제품(製品)에 대하여도 검사소의 검인을 날인하여 거래의 □□과 편리를 조장하는 등 적극적 방법을 취할 예정이라더라.

동아일보 / 1922.07.31.

직물은 강화군이 1위, 경기도 공업개황 (1923)

경기공업개황(京畿功業概況) 속(續)

부업적(副業的) 공업(工業), 윤(尹) 상공과장 담(談)

본도(本道)의 지방적 특산공산물로는 강화(江華) 화문석(花紋席)을 필두로 하여 장단, 포천지방의 명주(明紬), 기타 가평, 양평, 안성의 조선지(朝鮮紙), 고려자기[高麗燒] 모조품, 인삼(人蔘) 및 인삼 제제(製劑), 한양목(漢陽木), 직누(織紐), 모물(毛物 : 토시[吐手] 털모자[風遮]) 제혁품류(製革品類)인 바, 직물(織物), 종이[紙], 화연(花筵), 모피(毛物)은 동업(同業) 또는 임의조합(任意組合)이 설립되어 제품의 개량과 판로의 확장 또는 생산검사 등을 실행하는 중인데, 본도(本道) 전공산액(全工産額)은 9천4백만원으로 그중 약 7할은 공장공산품이며 그 3할은 부업적 공업품이라. 부업공업품의 중요한 자는 기업(機業) 제지(製紙), 요업(窯業), 기유세공(杞柳細工 : 버들가지공예) 등인 바, 직물(織物)로는 강화군(江華郡)을 제일(第一)로 하여 각 군에 걸쳐 상당한 산액(産額)이 유(有)하며, 특히 강화군은 기업(機業)의 소지(素地)로 최근[近時]에 개량기대(改良機臺)의 보급을 꾀함과 함께 산업에 대한 자각을 환기한 결과 연산액(年産額)이 25만원의 생산이 있음에 이르러, 지금에 강화목(江華木)으로 명성이 유(有)하여 완초화연제품(莞草花筵製品)과 함께 전 조선에 걸쳐 판로의 확장을 견(見)하는 상황이라, 최근에 이르러 설견(屑繭 : 찌꺼기 누에고치) 정리(整理) 공업(工業)의 농업부업으로 심히 유망함을 인식하여 적지(適地)에 실시한 결과 대단히 양호한 성적을 득(得)하였으므로 장래에 일층 이의 조장발달(助長發達)을 도모코자 하는 바이다.

동아일보 / 1923.03.26.

강화 완초화문석, 한충교·김신행이 창제 (1923)

강화(江華) 완석(莞席) 현황(現況)

완초화문석(莞草花紋席)은 강화도의 명산물임과 동시에 또 조선반도 유일의 특산물이다. 지금 그 기원의 개요를 탐문하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강화도 하점면 양오리 한충교(韓忠教)와 양사면 철산리 김신행(金信行)의 2명이 창제한 것인데, 처음 이일을 시작할 당시[始業當時]에는 검은 무늬[黑紋]를 왕골[莞草]에 검은색으로 물들여[黑染] 짜서 제작[編制]함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궁중용(宮中用) 문석(紋席)을 헌납하게 된 이래, 제조방법을 개선하여 여러 종류[種種]의 꽃무늬[花紋]를 편입하여 오로지[專] 헌납(獻納)과 판매(販賣)에 노력한 바, 지금으로부터[距今] 약 20년 전부터 헌납품이 폐지됨과 동시에, 보통판매로 전환(轉化)되어, 자연 농가 부업품으로 일반에 보급함에 이르렀는데, 완초화연(莞草花筵)은 농가의 부업으로 적당한 소공업(小工業)이므로, 당국(當局)은 예의(銳意)하여 이의 개선과 발달을 조장하여 조합을 설치하게 하고, 그 업계의 개선사업을 이행하여 조합원 이익을 증진하고, 혹은 기술원을 배치하여 순회 지도하게 하는 등, 기술의 개량진보에 관하여 해당 업자의 자각을 촉구[促求]하고 혹은 강습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주어 개량기기를 구입하고, 혹은 판로의 개척에 대하여 알선 기여를 하는 등, 사업의 개선을 증식(增殖)함에 대하여 백방(百方)으로 권장한 바, 그 시설의 효과는 자연히 전(全) 조선에 이르러[亘] 강화화연(江華花筵)의 명성을 넓히는데[博], 최근의 상황을 보면 원료 완초(原料莞草) 식부단별(植付反別)은 3백46개 단이며, 수확은 1만4천8백25 관(貫), 이것의 가격은 7천8백98원인데, 이것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완초자리(莞席)은 꽃자리[花筵] 1천3백매(枚), 가격은 6천5백원, 보통자리[普通筵] 2만4천4백77매, 가격은 1만9천49원이고, 제조호수(製造戶數)는 4천9백9호인 바, 지금 강화목(江華木 : 직물)과 서로 기다림(相俟) 전(全) 조선에 판로를 확장하고 농가부업으로 앞길(前途)이 유망한 과정(道程)에 나가는 상태이다.

동아일보 / 1923.04.26.

강화도 특산품, 화문석과 옥의 (1923)

강화도(江華島) 특산품(特產品), 화문석(花紋席)과 옥의(襦衣)의 실행(實行) 양호(良好)

경기도 강화도는 해상의 한 고도(孤島)이나 유명한 화문석과 옥포(襦布)의 특산지로 화문석에 대하여는 세상[世間]이 이미[既] 알고 있음[了知]과 같이[如] 올해[本年] 궁중으로부터의 하명(御下命)에 의하여 궁내성(宮內省)에 납입하여 일광전모택어용저(日光田母澤御用邸)에 황후폐하(皇后陛下)의 어실(御室)에 어사용(御使用)하게 되었는데, 옥포(襦布)는 그리 미려(美麗)하지는 아니하나 차라리[寧] 실용품으로, 문(紋)은 조선 독특한 화문연(花紋筵)과 비슷[稍似] 것으로 길이[長] 4척(尺), 너비[幅] 2척 가량인데 이번[今回]의 부업공진회(副業共

進會) 제2참고관(參考館)에서 동적(動的) 출품(出品)으로 현장에서 제조하여 1매(枚) 최저 70전, 최고 1원20전으로 즉매(卽賣)하는데 비상한 호평(好評)으로 개관 이래 매일 적을지라도 3백매는 팔며(賣) 강화도에 있어 11년도 생산액은 4만1천3백87단(反), 이 가격은 8만6백65원, 종업가옥은 2백26호에 이르렀더라(達).

매일신보 / 1923.10.16.

직물준비공장 신축 (1924)

봉상(鳳祥) 공동준비공장 신축

강화군 하점면은 직물의 원산지로서 연산액이 약 10여만원에 달하는 바, 공동준비공장이 부족하여 일반 직물가(織物家)는 불편을 느끼던(感) 바, 금반 당지 직물업 이동승(李東承)씨는 금 3백여 원을 자부담(自擔)하고 약간의 조합 보조를 득(得)하여 염색과 정경(整經)을 편의케 공장을 신축하였으므로 당지 직물업자는 물론이요 일반의 송성(誦聲 : 칭송)이 자자(藉藉)하다고. (江華)

동아일보 / 1924.07.30.

강화 개량마포 시험직조 성적 양호 (1924)

강화 개량마포(改良麻布) 시험직조(試織) 성적 양호

강화군 하점면(河帖面)은 직조업(織造業)의 유명지로서 면직물(綿織物)의 수출이 연간 생산가액(年產價額)이 20여 만원을 헤아리는(算) 바, 당지(當地) 김동식(金東植)씨는 도청과 군수의 알선으로 오사카(大阪)에 있는 제국제마주식회사(帝國製麻株式會社)에서 제조한 마사(麻絲)를 위탁직조(委託織造)로 맡아서 50만 필(疋)을 직조할 예정으로 방금 착수 중인데, 동 회사 기수(技手) 장야직시랑(長野直市郎) 군과 강화군 기수 정혜채(鄭惠采) 군이 출장하여 처음으로 시험직조(試織)한 결과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 하며, 동 개량마포는 66척(鯨尺) 1필에 대하여 6원40전 가량이 되겠고, 조선 부인(婦人)의 의복(衣服) 소용(所用)이 될 듯하다고.(강화)

동아일보 / 1924.08.17.

강화 지방의 산업계 (1926)

강화지방 대관(大觀)

강화는 우리 조선의 5대 섬 중의 하나로 경성만(京城灣 : 경기만)의 북편인 한강 입구에

위치한 다수의 도서를 합하여 이루어진 한 개의 군이라. 면적은 강화 본도(本島)의 동서가 45리, 남북이 67리에 이르고(亘), 18방리(方里)라는 면적을 보유하고, 그 이외에 부속도서를 합하여 계산하면 거의 30방리나 되는 도서 군지역이다. 이제 대강 그 연혁을 말하자면 고구려시대에 비로소 군을 설치하여 혈구(穴口)라고 하다가 그 이후 신라 경덕왕이 이를 해구(海口)라 개칭하였고, 고려 고종이 이 땅에 천도하여 심주(沁洲) 또는[又] 강화(江華)라 개칭하였으므로, 이 땅을 칭하여 심도(沁都) 또는 강화라고 부르게 된 것이 이 일로부터 비롯된 바이다. 현재 부속되어 있는 교동으로 말하면 과거에도 분리되고 합치는 일이 중첩하였으나 1914년(대정3년)에 완전히 교동군을 폐지하고 강화에 부속되니 면이 14개이고 리가 96개이다. 인구로 말하면 호수가 13,807가구에 인구가 73,468명에 달하는 섬 지역 군이다.

▲ 산업계(產業界)

(일부 생략) ◇ 부업으로는 양잠(養蠶), 가축사육(家畜飼養), 가마니제조(繩屨製造), 기계직조업(機織業) 등이 있으나 (일부 생략) 기계직조업(機織業)으로 말하면 강화도의 부업 중에 가장 발달된 것이며 따라서 수익이 제일 많은 것이니 작년도(1925년도) 직물생산액이 169,501원에 달하여 실로 강화군 경제계에 다대(多大)한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에 개량 발전되는 추세로는 멀지않은 장래에 전 강화의 경제계를 좌우할 것으로 확신하며, 자작자급(自作自給)의 원리에 기초하여 우리가 입은 것을 우리 손으로 제조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개량기계직조(改良機織) 분야의 선구자요 희생자인 김동식(金東植)씨의 약력과 이 사업의 발전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강화 기계직조계(機織界)의 선구자인 김동식은 현재 50세로 그야말로 노년으로 일찍부터 사회를 위한 희생적 정신이 풍부하여 명치40년(1907)에 자기 출생지인 하점면 신봉리에 봉명학교(鳳鳴學校)를 창설(創設)하여 경영하다가 대정5년(1916)에 인근동네(隣洞)에 있는 사립 창화학교(昌華學校)까지 인수하여 합병 경영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 학교(右校)의 유지가 곤란하므로 하점면의 유지와 협력하여 공립보통학교로 변경하여 지금도 학무위원(學務委員)으로 생애 전반부는 교육계를 위하여 진력하였고, 이후 반생은 이를 실업계에 공헌하여 한편(一方)으로는 산업조합을 설립하여 농촌의 금융을 완화토록 하고, 한편(一方)으로는 기계직조(機織)를 장려하여 지금으로부터(距今) 30년 전에 하점직물조합장(河帖織物組合長)으로 면민(面民)의 부업(副業)을 위하여 대단한 활동을 하였다. 지금은 재일본제국(在日本帝國) 제마주식회사(製麻株式會社)의 마사방직(麻絲紡織)을 인수하여 공장 30여 개소에 직공 5백여 인을 보유한 대공장주가 되었다. 김동식씨는 이미 서술한 것과 같이 공익사업에 자기의 모든 과거를 희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도 이 사업에 공헌하려는 강화의 일대분투가(一大奮闘家 : 첫째가는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요, 오십의 노년이다. 작년

도 강화직물 생산액 총계를 보자면 여러 가지 종류를 합하여 생산총계 169,501원이다. ◇사
진설명 김동식(金東植)씨

동아일보 / 1926.08.20.

유망한 강화도의 산업 (1927)

유망한 강화도의 산업. 도민은 질박 근면해서, 일반적으로 부유하다.

강화도 산업 시찰 중인 이케다(池田) 식산국장은 25일 귀임했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강화도의 면적은 약 28만 방리(方里)이고, 현재의 인구는 7만인데, 이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중국[支那]와 영미(영미) 등의 외침[外寇]이 있어서 섬 주위는 성곽과 요새로 둘러 싸
여져 있는 도내(島內)는 녹수번무(綠樹繁茂)한 풍광명미(風光明媚)해 마치[恰] 내지(內地 :
일본)의 경치[景色]와 매우 닮은 산림이 있어서 자연 수리(水利)를 얻어 청전(靑田)을 갖고 있
으므로[溷] 1년에 약 10만 석(石)의 쌀을 산출[移出]하고 있는데, 동(同) 섬은 대단히 부업이
성행하는 곳으로 감[柿] 등은 2백 7,800년이나 오래전부터 있어서 곱감[干柿]의 산출액은 실
로 20만원에 이르고, 또 직물(織物)도 대단히 발달하고 있어, 특히 마포(麻布)의 산출액은
16만원이다. 그 밖에 젓새우[小海老] 35만원, 화문석[花筵] 6만원, 새끼줄[繩] 10만원이다.
島民은 대단히 근면해 그 일례(一例)로서 인구 7만이나 있는 곳에 요리집(料理屋)이 한 곳도
없고, 기생(妓生)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섬 안에 전등사(傳燈寺)라는 선종(禪宗)의 본산(本
山)이 있는데, 이것은 전 조선의 고찰로서 유명한 것이다. 더욱이 동 도(島)는 내지(內地)의 성
하(城下)와 같은 느낌이 나는 곳으로, 도민은 질박 근면하고 일반적으로 부유하므로 동 섬
의 산업은 참으로 유망한 것이다.

조선신문 / 1927.02.27.

직물공동작업장 신봉리에 건축 (1928)

공동작업장 강화에서 건축

직물계로 도내에서 제1위를 점한 강화직물의 년 산액이 22만여 원에 달한다는데 종업수는
6백여 호나 되며 개량직기가 7백여 대요, 주요 산품은 강화 필루비 옥지(褥地) 강화저포(苧
布) 등이라는데, 이번에 국고 보조를 득하여 공동작업장을 동군 하점면 신봉리에 건축하고
일층 확장한다더라. (강화)

동아일보 / 1928.02.01.

강화 인견, 각지(各地) 시장에서 판매 (1931)

각지(各地) 시장에 강화의 인견

일반이 현재 각 시장에서 판매되는 인조견(人造絹)을 일본(日本)에서 무래하는 것으로 아
나 사실은 거의 전부가 강화산이라 하며, 모시[苧] 같은 것도 한산모시[韓産苧]에 지지 않도
록 개량 중이라 한다.

동아일보 / 1931.02.04.

직물촌 하점면 다시 활기 (1931)

농촌부업 강화포(江華布) 5천여 필을 직출(織出)

휴업상태도 점차로 복구

직물촌 하점면 최근상황[近狀]

[강화] 연산 40만원의 제품을 순전히 한 농촌 부업으로 만들어 내는 강화직물촌(江華織
物村) 하점면 일대는 금년 봄에 이르러 불경기의 영향을 극도로 받아 일반 종업자들은 일시
휴업 상태에 빠져 있던 바, 군(郡) 직물조합에서는 이를 심히 우려하여 백방으로 주선한 결
과 방적마사(紡績麻絲)의 공동 구입 등 여러 가지로 알선한 결과 휴업상태에 빠져든 직물촌
하점면은 다시 활기를 띠고, 다시 원상 복구에 노력 중으로 금번 하기(夏期)에 직출(織出)된
저포(苧布)와 마포(麻布) 등 5천여 원을 돌파하고 계속하여 직조(織組)에 착수하는 현상
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31.09.08.

정무총감 강화도 화문석 직조공장 시찰 (1933)

금정전(今井田) 정무총감(政務總監) 강화도 시찰, 화문석과 직조공장 방문. 진흥회를 일장
격려(一場激勵) 금철수행록(琴澈隨行錄)

◇ (7월) 5일 오전 8시 금정전(今井田) 정무총감(政務總監)은 시야(矢野) 비서관, 송본(松本)
경기도지사, 좌좌목(佐佐木) 관방주사(官房主事), 천상림(川上林) 경부(警部)를 대동하고 자
동차로 짙어진 여름 한강을 뒤로 영등포를 거쳐 양천(陽川) 등지에 수리조합 도로공사를 차
창(車窓)으로 조망하며, 오전 10시 김포군에 일행의 자동차는 머물렀다. (일부 생략) 강화군수
조충현(趙充顯), 동 경찰서장 증근희길(曾根喜吉) 씨의 출영이 있었다. 일행은 즉시로 안내를
받아 발동기선(發動汽船)으로 강화의 땅을 밟았다. 일행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에 분
승하고 일기(一氣)로 강화군청을 향하였다. (일부 생략) 대략의 상황 보고가 끝나자 오찬을

군수실에서 마친 후 강화 명산 화연(花筵) 생산지[所產地]인 하점면(河帖面)을 향하여 윤(尹)면장의 보고와 마직물(麻織物)공장 화연(花筵)공장을 시찰하고, 오후 3시 반 일기(一氣) 길상(吉祥) 간(間)을 향하여 길상면에서 보고를 듣고 총감이 친히 면장에게 질문이 있는 후 역사의 보고(寶庫) 정족산(鼎足山) 전등사(傳燈寺)에 올라 조금 쉬었다[少息]. (이하 생략)

매일신보 / 1933.07.07.

인견 등 강화직조, 연 생산액 1백만원 초과 (1933)

인견(人絹) 등 30여종 직조(織造) 연산 1백만원 초과
강화산조(江華産組) 축년(逐年) 발전, 지소(支所) 설치
제품검사실(製品檢査室)도 증축 중

[강화] 강화의 산업이라 하면 누구나 강화의 직물을 연상하게 되어 있는 만큼 강화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자작자급의 정신 하에 직조를 하여왔다. 즉 고래로 조선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필누비와 반포(斑布)등이다 그리하여 거금 삼십년 전에 하점면(河帖面) 김동식(金東植)의 몇몇 사람[數氏]은 직기(織機)의 개량에 큰 관심을 두고 그때부터 기계의 개량을 해 온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직기라 한다.

최근에 이르러 당국으로서도 사업의 유리함을 인정하고 적극적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은 관계로 제품의 개량에 있어 많은 효과를 본 것이다. 그 후 유지 황우천(黃祐天)씨는 사업의 통제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각 방면에 동지와 후원을 얻어 설치한 기관이 즉 현 산업조합(産業組合)이니 소화 6년(1931) 10월 27일에 도의 인가를 얻어 창립을 보게 된 것이다 현재 조합원이 1천6백 명의 다수에 달하여 그들이 소유한 직기 3천여 대로 짜내는 제품은 마포(麻布)와 인조견류의 30여종으로 매년 산출되는 것만 27만필을 돌파하여 척수로 이를 환산해본다면 1천80만척이란 놀라운 숫자로서 이를 대금으로 환산한다면 1백8만원이란 거액에 달하고 있어 단연 조선 산업계를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종업가들의 내용을 보건대 전문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많으나 대개는 남농여직(男農女織) 주의로 순전히 가정 부업으로서 종업인 3천인으로 순이익 평균율로 보아 매년 108원이란 부수입을 보고 있어 일반적으로 빈궁(貧窮)을 모르게까지 이르고 있다 한다. 그리하여 읍·촌은 물론 가정부인들은 대개 이에 종사하여 연산 2백만매를 보고 있는「가마니」로의 부업에 큰 이상을 일으켜, 「가마니」들을 짜는 사람들은 모두 직조 윗아가게 되어 산업조합의 말에 의하면 금년도 안으로 조합원은 의심 없이 2천명을 돌파하리라는데, 산업열(産業熱)이 이같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보게 된 강화산업조합에서는 제품 검사실을 방금 증축 중이며 길상면 온수시장에 지소를 신설키로 되어 멀지 않아 공사에 착수하리라는데 전도가 자못 유망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33.11.03.

직조, 화문석으로 낙원화한 강화도 (1934)

직조, 화문석으로 낙원화(樂園化) 한 강화도, 년 50만원 생산액

강화(江華)라면 강화조약과 척양(斥洋)의 풍운을 연상하게 하고, 또 단군(檀君)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삼랑성을 쌓으신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 섬은 망망한 바다에 쌓여 면적 2만7천3백22방리에 인구 7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큰 섬인데, 이곳에는 결식군(乞食群)이 없고 각기 다 의식주에 그리 균색함이 없이 살아가는 조선에서는 듣기 어려운 판 세상이다. 이제 그 원인을 이에서 이야기하려 한다.

▲ 가내수공업, 도민은 근로

도민들은 돌을 깨물고라도 새 힘으로 살아 보려는 깨달음이 삼백여 년 전부터 시작 되었다. 부녀자라도 경제의 도움이 있어야 하겠다하여 이때부터 가내수공업이 시작되어 가정의 부녀자가 생산하는 직조(織造) 필루비(疋縷飛), 인견교직(人絹交織), 방적마포(紡績麻布), 반포(斑布) 등속이 50여만원을 필두로 화문석(花紋席) 1만8천원, 해산물 30여만원 등의 1백만원에 가까운 거대한 금액이 본업인 농업 외에 가정의 부업으로 떨어진 즉 생활은 윤택하여진다.

▲ 만든 직물은 부녀가 행상

1만4천2백여 호에서 직조하는 가정이 2할5분인 3천여 호가 종사하는데, 방법은 재래식으로 수족기(手足機) 한 대로 1일 최고 2필로 평균 1필반을 짜는 능률(能率)을 가졌다 한다. 1호당 수입은 1백65원이 되고, 전군(全郡)의 평균율은 직조를 하지 않고 어업, 농사 기타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넣어서 35원이 되는 터이다. 직조기계 1대의 생산비용과 이익은 아래와 같다.

◇수족기 1대에는 30원

필루비 1단에 원료대금 1원65전(변동은 때때로 있음) / 직공임금, 기타 잡비 56전 1단가 격 2원16전 / 순이익 64전

◇각종능직 1단 원료대금 1원60전 / 직공임금 40전 / 일반잡비 6전 /

1단 가격 2원60전 / 순이익 54전

이상 숫자와 같이 자기 손으로 짜면 일일 1필 반은 평균 짜다 한 즉, 필루비면 96전, 능직종류이면 81전이 부인의 수입이 되고, 남의 집 품팔이를 하여도 일일 75전 내지 60전의 수입이 1년 내 있는 즉 점점 경제의 힘이 늘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만든 직조물은 노인, 젊은 부인 할 것 없이 자기의 짠 물건이나 또는 남의 물건을 도매로 사가지고 도부(행상)장사를 나가는 것이다. 도내는 물론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헤아리지 않고 현금이 아니면 외상으로라도 깔아놓고 가을에 추심을 한다.

▲ 직조의 장래, 앞으로 유망

외래품인 인조견이 보기에는 화려하나 질긴 품으로는 강화직조를 당할 수가 없다.

서로 입장일단이 있으나 강화직조는 화려한 품이 좀 없으나 질긴 거로는 외래 인조견의

삼배 이상을 더 입은 즉 장차일반이 사치와 부화한 생활에서 전심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더욱 발전성이 있는데, 소화6년(1931) 10월부터 산업조합이 조직되어 가지고 직조재료인 원사(原絲)의 구입판매, 제조품의 매입 등으로 종래의 개인이 원료를 고가(高價)로 구입 할 때 보다는 더욱 생산비의 저렴도 되고 판로의 영향이 있겠으므로 더욱 발전하리라는데 재벌의 다량생산보다는 각 가정의 수공업(手工業)으로 보급해야 한기(寒期 : 겨울철)를 이용하여 부수입 증가를 도모한다고 한다. 여자의 직조 외에 남자의 화문석(花紋席) 1만8천원, 벚짚으로 만드는 가마니 1만6천여 원, 매방석 연 만원, 토기 쇠주병(燒酒瓶) 1만3천원, 신고려자기(新高麗磁器) 5천원 등이 부업의 가정수공업인데 화문석은 직조와 같이 유명한 산물로 약 80여년 전부터 만든 물건으로 그 당시에는 궁가(宮家)에 진상하는 물건으로 응주하던 게 지금은 중류 이상의 관혼상제, 연석(宴席) 등에 상용되고 외국에까지 수출된다고 한다.

▲ 강화도는 도민의 소유

2만7천3백22방리의 면적을 가진 섬에서 타지 지주는 3,4인에 불과하고 그 중에 일본인의 농장이 하나 있고는 전부 도민의 소유라 한다. 인구 7만5천43명 중에 관공서에 다니는 일본인 80명이 거주할 따름이고, 상인은 수차 착수하여 보았으나 전부 실패하고 한사람도 없다고 한다. 직조로만 매호(每戶)에 3십5원의 수입인데, 그 외에 해산물 30만원 기타 입직, 화문석 등이 수공업을 치면 매호당 70원 이상의 부수입이 있는 즉, 본업 농업으로 생활은 하고 부업수입은 저축이 되는 터이라 하니 이곳은 언제든지 강화도민의 섬일 것이다.

동아일보 / 1934.01.01.

강화도 전기등(電氣燈) (1934)

강화도 전기등(電氣燈)

강화 강화읍(江華邑)의 전기 문제는 경전(京電 : 경성전기) 당국과 기성회(期成會)간에 급속도의 양해가 성립되어 오랫동안 숙제로 내려오던 전기실현문제도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는 바, 그 후 경전에서는 원중(元重)씨가 강화에 출장하여 기성회 간부와 회견한 후 실지조사와 타협이 끝났으므로 처음예정 공사기를 단축하여 늦어도 11월 안으로는 전기공급(電氣供給)을 시작하도록 공사하기를 단축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34.04.14.

강화도에 전기 공급 (1934)

경전(京電)이 강화도(江華島) 통진(通津)에 전기 공급

강화군 부내면 및(及) 선원면과 김포군 월곶[관]면 지방의 주민이 다년(多年) 점등(點燈)

을 요망하고 있었으나, 금번 경성전기가 이 지방을 공급구역에 편입하고 군내면 신곡리 발전소로부터 약 26km(浬)의 보통고압배선을 연장하여 전기를 공급하기로 되었다 한다.

동아일보 / 1934.08.09.

강화 화문석 해외시장에 진출 (1936)

해외시장에 진출, 기술자가 부족한 현상

강화 화문석

강화도(江華島)의 자랑거리인 명산품을 소개하자면 4백여 년의 당당한 역사적 존재를 가지고 연산(年産) 1백10만원의 생산고를 가진 직물(織物)을 필두로, 60만원을 매년 초과하고 있는 해산물(海産物)과 연산 2백만매(枚)의 강화가마니[江華叭], 또 다시 연산 2십만관을 넘는 그 유명한 씨 없는 감(無核柿) 그 외에도 도기(陶器), 석기(石器) 등으로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으나 특별히 화문석(花紋席)을 소개하게 된 것은 그 생산품부터가 조선적으로 특수성을 띤 수예산물이며 따라 강화도 이외의 지방에서 만들지 못하는 명실공히 특수적 명산품인 까닭이다.

화문석은 그 창시유래에 있어서는 참고적 문헌이 없어 기원 경로가 명료치 못하나,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하점면(河站面) 양오리(陽五里) 한충교(韓忠敎)란 이와 양사면(兩寺面) 철산리(鐵山里) 김신행(金信行) 두 사람이 창시한 것으로, 당시는 왕골[莞草]의 편공(編工)이 부족하여 다만 검정물만 들여 모양을 나타냄에 그쳤으나, 그 기공이 묘한 관계로 이를 궁중에 헌납하여 왕가 어용품에 한했었고, 서인(庶人)으로의 사용을 금해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기술은 타인에게는 절대로 전교치도 않았으며(청기와 장사모양) 따라 그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한다.

그 후 36,7년 전 궁중현상제의 폐지와 함께 화문석은 중국(中國) 방면 일부와 일본 내지 방면에 수용이 매년 증가하게 된 경향을 보게 되면서, 부근 주민들도 이 기량을 전수케 되어 농가의 일종 부업으로 성히 제업자의 증가와 함께 염색(染色)에 있어서도 흑(黑), 황(黃), 적(赤), 청(靑) 등을 사용하게 되고 다시 모양도 자연 가공 진보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양사면은 토질과 원료 등의 관계로 제업을 폐지하고 하점면 양오리에 한하여 보급된 관계로 화문석의 원래 명칭을 하점석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 후 대정 7년부터 강화군 당국에서도 문석장려에 착안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업기수를 배치하고 원료인 완초(莞草) 재배와 그의 염색의 연구, 개선 등에 특히 주력해온 것이다.

또 다시 동 11년 4월부터 강화직물조합(江華織物組合)은 그 규약을 변경하고 조합명칭을 강화화연직물조합(江華花筵織物組合)이라 하여 화문석의 종업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

하게 한 후 지방비 보조를 얻어 실지 지도에 관한 설비를 하여 당업자의 공동이익증진에 전력하였고 현재는 강화산업조합(江華産業組合)이 이를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연석(筵席)을 궁중에서 현상지정지로 되어 있던 곳인 만큼 그 원료인 완초부터가 특수한 지질관계로 특히 결백하고 흠이 없다한다. 화문석은 조선사람 가정에서 상용하는 지직 종류에 글씨 또는 그림의 모양을 가공하는 것 뿐인 바 모양도 역시 완초에 염색한 것을 사용하여 직출하며 모양은 무엇이나 자유로 넣을 수 있다. 그리하여 모양의 퇴색(退色)과 제법의 미숙으로 품질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 판로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때때로 완초 재배, 염색, 제조법 등의 강습회, 전습회 등을 개최해온 결과로서 근년에는 제품이 극히 양호하여 일반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동아일보 / 1936.01.01.

시흥군 부인단 강화직물 시찰 (1937)

[영등포] 시흥군(始興郡) 당국에서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의 촉진에 전력을 다하는 중 8면 내에서 선정한 16명 1단의 부인시찰단을 모집하여 강화도내 직물(織物) 직입(織入) 등 부인의 손으로 되는 가내공업을 시찰시킬 터인데, 이 시찰단은 각기 면부인회의 요인들로 시찰 후에는 각각 자기 부락에 돌아와 시찰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一方], 자기 부락의 갱생에 전력을 다하게 할 터로, 인도자는 동군 지방주사 김창진(金昌鎭) 씨 외 각 면 갱생사무 담임 서기 등이라 하는데, 출발은 26일 오전 11시 영등포 발(發)로 인천을 거쳐 다음날[翌日] 귀환할 터인데 특히 이번 시찰은 대공업 발흥으로 점점 쇠퇴 일로를 밟고 있는 가정공업의 재인식에 큰 도움이 되리라 한다.

매일신보 / 1937.02.19.

강화 직물산업의 대발전 (1937)

연산 백만원 목표로 강화직물 대발전

각지 시장에서 호평

[강화] 전등사와 단군의 참성제단이 있는 마니산을 가지고 있어 명승이고 역사도시[史都]라고 칭을 받고 있는 강화군은 산업으로 진출하여 산업강화로서 또한 전 조선에 저□(箒□)케 되었다. 강화는 거금(距今) 4백년 전부터 기업(機業)이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동안 위미부진(萎微不振) 상태에 있던 것을 소화 6년 10월 27일, 강화산업조합이 창설되면서부터 군 당국과 협력하여 이를 지도 장려한 결과 당시에 인견, 마포, 기타 생산량이 2,3만필 내외이던 것이 지금은 수십 배 이상 증가되어, 유명한 강화인견 60만 필을 위

시하여 마포, 면포, 견포 등을 합쳐서 8만여 필에 달하는데, 그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종래에 균일치 못하던 길이와 폭[長廣]이 통일 되고 색태(色態)와 품질과 염색 방법 등이 훨씬 개량되어 박래품(舶來品)을 능가할 만큼 상품다운 상품으로서 명성이 널리 선전되고 있다. 판매는 조선 각처에는 물론이고 만주(滿洲) 등 기타로 매년 수이출량(輸移出量)도 증가되고 있는 바, 소화 10년 이래 강화의 자산가 홍재묵(洪在默), 홍재룡(洪在龍) 양씨가 직물계에 뜻을 두어 50만원을 투자하여 조양방직주식회사를 조직(組織)하고 공장 생산을 대량으로 하여 연산 100만원을 목표로 착착 각지로 판매를 확장하여 이출(移出) 중인데, 앞으로 더욱 발달되리라 한다.

매일신보 / 1937.05.09.

강화의 마직물 양복지에 적합 (1937)

강화의 마직물 양복지에 적합

[강화] 연산 2백30만원의 산액을 내고 있는 강화의 유명한 직물은 금년에 들어 다시 양복지를 짜내기로 되어 동양마사회사(東洋麻絲會社)로서 원사(元絲)를 구입하여 가지고 각 조합원에게 시직(試織)해 본 결과 의외로 좋은 성적을 보게 되었다. 양[복][지][원][사]을 실비(實費) 3원50전으로 실비를 제공하여 완전히 보급시킬 방침으로 강화산조(江華産組)에서 직출(織出)을 장려하고 있다는 바, 생산품이 주문율에 비하여 감당키 어려운 만한 정도로 일반의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대량으로 생산시켜 일반 수용자(需用者)에게 유감없는 주문에 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一方] 인견(人絹)은 원사(原絲) 폭등으로 인함인지 생산력의 축소를 보이고 있으나, 비관할 재료는 결코 아니고 장래 제품의 개량과 실질 향상을 하기 위하여 조합 당국은 3만원의 거액을 들여 사상공장(仕上工場)을 건설하려고 방금도 당국에 그 인가를 신청 중으로 내월 이래로 허가가 될 듯 하다는데, 외래 직물에 비하여 조그마한 손색도 없으리라하여 약진 강화의 산업상을 여실히 말하고 있다 한다.

동아일보 / 1937.06.22.

강화(江華)와 대구(大邱)만 동력을 이용한 기계로 직물 생산 (1937)

대구산업조합 내용충실을 기도(企圖)

[대구] 대구부(大邱府)에서는 이미 보도한[既報] 바와 같이 최근 대자본의 공장 유치에 힘을 쓰는데 거울[鑑]삼아 중소 상공업자의 조직인 대구산업조합에서는 더욱 중소 공업자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근래에 와서 내용의 확장 충실에 온힘[全力]을 다하고 있다. 현재 대구 산업조합원들은 1백19명으로써 직물 생견 등의 생산 년액은 5만필 25만원에 달

하며, 직물의 종별에 따라 (撚絲加工)을 하며 제품은 염색 표백 정련 등 세밀한 가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발로 딛는 기계를 폐지하고 동력을 이용하는데 이와 같이 동력을 이용하는 조합은 강화도와 대구 뿐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 1937.06.24.

강화 이상촌(理想村) 하점면의 발전상 (1937)

자작자급(自作自給) 3백년(三百年), 남경여직(男耕女織)의 천직(天職)으로 강화(江華) 이상촌(理想村) 하점면의 발전상

강화 강화군내의 이상촌(理想村) 하점면(河帖面)은 강화읍에서 약 20리 쯤 떨어져 있는 집단부락으로 면내 800호에 직조 기계소리는 이상향의 행진곡(行進曲)을 의미하는 감을 주고 있다. 이곳은 옛날 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직물(織物)의 원산지며 부군(富郡) 강화의 발상지(發祥地)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만큼 문자 그대로 남경여직(男耕女織)으로 자작자급(自作自給)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하점면의 중심 부락인 신봉리(新鳳里)의 발전이 늦어 일반 식자들의 유감이던 만큼 모든 문화적 시설을 할 계획으로 활동하던 바 금년에 들어 초속도로 발전을 볼 수 있게 되리라 한다. 그곳 유지 황우천(黃祐天), 김현식(金賢植), 한상옥(韓相玉)씨 등의 활동으로 전등(傳燈) 가설, 우편소(郵便所) 설치, 경관주재소, 금조(金組) 지소 설치 등이 가능성이 있는 한편, 장차 시장(市場) 설치와 전화 가설까지라도 할 작정으로 문화적 이상촌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37.07.16.

마포(麻布) 산지 강화도에 하절 의복감 기근 (1939)

마포(麻布) 산지(產地) 강화도(江華島)에 하절의복(夏節衣服)감 기근(飢饉) 시절이 빚어낸 기현상

직물(織物) 산지 강화(江華)에서는 종래 직물 원료를 일본 내지의 각 마사회사의 배급을 받아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어 각지로 성황리에 그 수출을 해온 바, 사변 후 그 원료의 부족을 초래하여 배급이 일체로 두절된 감이 있어, 3천 산업조합원(産組員)의 종업은 물론 그의 지도기관인 조합 당국에서도 유지책에 이상을 초래하여, 종래 취급하지 않던 일용 잡화(雜貨)에까지 손을 대어 그 이용에 대책을 세운만큼 산업 강화에 큰 문제거리인 바, 이 반면 시장에는 마포(麻布)의 복차가 전연 품절 되어 이때를 당하면 베가 아니면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던 우리네 가정에 중대한 문제로서 집집이 금후 이 문제 해결에 큰 두통중이라 한다.

면포와 양복지에 있어서는 혼방이 나와 있으므로 그다지 곤란을 감하지 않으나 유독 마포에 있어서만 혼방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더 큰 곤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양복지(洋服地)에 한하여만은 혼방 마포만은 구할 수 있어 양복당(洋服堂)만은 아직 복지의 기근을 근면한 상태로써 산지강화(產地江華)에 한 문제거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39.06.30.

강화직물 사진 ① (1939)

[남경여직(男耕女織)] 이란 고서를 본받아 순 농촌 부녀의 손으로 짜내는 '강화직물'은 년 생산 150만원 이라는 거액과 40만필 이라는 거량이 산출된다면 가정 부업으로는 전 조 선적으로 굴지되리라고 믿게 된다. 직기는 순수직기(純手織機)이며 종업자는 3천여 명으로 하점면 8백호를 필두로 농가도처에 직기소리 요란하여 산업 강화의 한 자랑거리이다. 대개는 각기 가정에서 종업하고 있으나 수처의 집단공장을 형성하였으니 건물은 대개 토막(土幕)이다. 이러하여 처녀들은 결혼준비로 돈을 벌고 기혼자는 살림살이에 또는 장사 밑천으로 또는 전답과 가구를 매입하게 되니 집집이 빈한(貧寒)을 모르고 흉년을 불관(不關)이라 하니 이[此] 소위 이상촌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남자들은 영농(營農)을 주로 부녀의 직출하는 원료구입, 산조(産組) 왕래 등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어 [남경여직]의 천직에 충실하고 있다. (사진은 토막(土幕)공장에서 수직기로 종업하는 농촌부녀)

동아일보 / 1939.09.08.

강화 염료공장 출현 (1940)

연산 40만근 목표, 염료공장출현

강화 신년 초 산업 강화도에 꽤뉴스의 한토막!

사변(事變 : 중일전쟁)후 일반물자의 부족을 초래하여 산업왕국인 강화의 직물염료에까지 미쳐 일반 종업가들은 염료 구입난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데서 힌트를 얻어 강화에 염료공장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방직공장을 경영하는 청년실업가 성일석(成逸錫) 씨는 금번 염료공장을 신설키로 한 바, 매(每) 1천근의 제품을 만들어 연산 40만근의 염료를 제출 각 주요 공장에 배급할 것으로, 산업 강화의 일대 기염(氣焰)을 토할 것이 예측 된다는데 원료산지인 내지(內地 : 일본)와 만주 등에 원료를 주문하였으며 기술자도 1월 중에 내강(來江)하여 공장 시설에 착수할 것으로 일반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40.01.23.

강화 부호(富豪) 신판 치부술(致富術) (1940)

보증 의무 불이행으로 작인(作人)에 타조(打租) 불허(不許)

강화 부호(富豪) 신판(新版) 치부술(致富術)

[강화] 유명한 강화(江華) 직물(織物) 업자들을 상대로 원사(原絲) 장사를 하여 일거에 백만장자가 된 후, 지방에서는 세금이 많다는 핑계로 경성에 이주하여 고리대금업을 경영하는 김모(金某)는 현금으로 보다는 지주로서 그 관록(貫祿)이 높은 바 이곳에서 돈 모을 당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수단을 썼으므로 타인의 비방이 많았던 만큼 그의 치부술(致富術)이란 유명해야 그 일례를 든다면 하점면(河帖面) 삼거리(三巨里)에 사는 자기의 소작인 인모가 동리 친구 채무(채권자는 물론 김모)에 보증을 섰던 바 그 반환기일이 소화(昭和) 13년 가을이었으나 그 채무자가 그것을 청산치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보증인인 자기소작인의 당년 타조(打租)를 허락지 않은 채 지난[作] 14년 겨울까지 벼를 누려두고(작년도 빼앗았다) 마당질을 해주지 않아 벼 낱가리는 들쥐(野鼠)들의 ‘오아시스’ 가리여 모지라진 집오리만 남은 것을 그대서야 먼 당국에서 탐문 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지난 20일 강화군에서는 긴급소작위원회(小作委員會)를 개최하고 그 선후책을 강구하는 한편 철퇴를 내리기로 한 바, 김모는 평소에도 죄 없는 소작인등의 경작토지의 소작권을 이동하여 불상한 소작인등을 불안케 한 악덕지주로서 이곳 부호층에서 제일 유명한 편이라는데, 그 밖에도 불은면 신흥리(新峴里)에서도 일건의 소작쟁의가 있어 두 가지 사건을 처리기로 한 바 춘경기를 당면한 이때 일반의 주목을 끌고 있는 ‘신판치부술’의 귀결이 어찌 되나 하고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40.02.24.

강화왕골 세공(細工) 화보(畫報) (1940)

산업왕국으로 알려진 강화도에는 다시 왕골[莞草] 세공(細工)으로 진출하려 한다. 완초를 이용해 만드는 지금부터[距今] 3백년 전부터 왕실 헌납상품으로 그 후 서인 가정에 애용을 받는 저 유명한 화문석이 있지만은 다시 강화인의 산업욕은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완초를 가지고 현대 문명인의 호기심을 자아낼 ‘핸드백’과 화병부(花瓶敷 꽃병방석)을 만들고 만주국(滿洲國)에서 10만 족(足)의 주문을 받은 ‘슬리퍼[스립퍼]’ 등을 만들어, 핸드백 한 개 8원 내외, 꽃병방석 20전 내외, 슬리퍼 10족(足) 2원 내외로 만들어 낼 새가 없이 잘 팔리는 부녀가정세공업으로 장래가 촉망된다. (사진은 꽃방석과 핸드백(중앙) 슬리퍼 등)

동아일보 / 1940.04.13.

비단 짜는 아씨 노래 (1947)

비단 짜는 아씨노래 처량

울밑의 감나무 붉어가는 풍물시(風物詩)

[강화에서 본사특파원 김용겸(金容謙) 발]

인천을 떠난 제법 큰 배는 꼬물꼬물 한 바다를 굽이굽이 감돌아서 섬 같은 육지이며 육지 같은 섬인 강화도(江華島)에 도착하였다. 항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살풍경한 조그마한 강화도의 입구인 선창에 내렸다. 기자는 무심히 쳐다보이는 울밑에 쪽 빠져나온 감나무에 익어가는 푸른감(柿)이 모진 바다 바람에 시달리는 잎 속에서 한들거리는 것이 몹시도 시선을 끌었다. 10만 인구를 가졌으며 빈부의 차가 별로 없다는 이 섬에는 다른 농촌에서 흔히 보는 현상-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초가(草家)가 있다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선 풍경은 볼 수 없고 깨끗하고 청아한 초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마치 서울 어느 동네와 똑같은 관사나 사택이 연달아 서있는 듯 비슷비슷한 농가집이 유난히 눈에 띄어 보였다.

허 넓은 별판 같은 논에는 9월의 햇빛을 독차지한 듯이 축 수그러진 벼 이삭이 풍년을 말하는 듯 익어가고 있으며 여기저기에서 새 쫓는 농부들의 여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화(江華)읍이 가까워 오자 이집 저집에서 노래에서 흔히 많이 듣듯이 ‘베 짜는 아가씨들’ 소리는 이 섬이 지방에서 나온들이 이 골목 저 골목, 이 집 저 집에서 덜컹덜컹 하는 베 짜는 아가씨가 아니라 비단 짜는 아가씨들의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강화는 타 지방과 달리 이색진 것이 농민 사정으로 우선 본다면, 80% 이상이 자작농(自作農)으로 소지주가 많이 있고 교육 정도가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으며 산업 방면으로 견직물(絹織物)이 유명하다 한다. 게다가 깊은 가을이 되면 어느 집 울안이나 별경에 익어 가는 감은 이 섬의 명물이며 조선적으로 유명한 강화감의 생산지(所產地)도 이곳이라 한다.

전 섬의 토지 8할 이상이 자작 농사를 경영하는 것인 만큼 생활수준이 비슷하여 자녀들 교육 문제가 상당히 발달되었으니 만치 생각하는 점과 행도이 동일하여 침략하기 좋아하는 그 무도한 일인[日本人]조차 침략하지 못하였다는 곳이라 한다. 남조선 방방곡곡에서 말쑥 많은 소위 적산(敵産)이란 문자가 이 강화도에는 필요 없는 술어로 되어 있다 한다.

한성일보 / 1947.09.18.

2) 단체 및 조합의 활동

하점직물조합을 강화직물조합으로 변경 설립 (1917)

[강화에서] 직물조합(織物組合) 설립

강화군 하점직물조합(河岾織物組合)은 하점면에 있는[在] 기업가(機業家)로만 조직하여 지금[予今] 3,4년이 되는 바, 그간 본도(本道)에서 지방비로 매년 보조금을 내려 보내 기술원(技術員)을 파견한 연고로 현재 이 업종[斯業] 발전이 전군(全郡)에 보급되었으므로, 금반(金般) 강화군 일원을 조합 구역으로 정하고 강화직물조합(江華織物組合)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는데, 조합 역원(役員)은 동(同) 군수(郡守) 이하 각 면장(面長) 및 유지자(有志者)가 선임되어 금후 이 업종 장려의 편달을 잡계[執]함으로 강화군의 직물업은 장래 착착 진보(進步)의 희망이 있다더라.

매일신보 / 1917.01.18.

강화직물조합 총회 (1917)

[강화] 직물조합(織物組合) 총회(總會)

강화직물조합에서는 지난[去] 3월 4일 오전 11시에 군내 공립보통학교 내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출석 인원은 118명이요, 유(兪) 군수(郡守)는 조합장(組合長)의 직분으로, 각 면장(面長)은 평의원(評議員)의 직분으로 출석하였고, 내빈으로는 오카마츠(岡松) 군(郡) 서무주임, 홍(洪) 군 서기, 이(李) 경부(警部), 이와스미(岩住) 공립보통학교 등의 열석(列席)이 유(有)하였는데, 유(兪) 조합장이 개회를 선함에 김(金) 조합부장의 조합 업무성적의 개화(概話 : 개략적인 이야기)가 유하고, 오카마츠(岡松) 주임의 강연(講演)과 조합 기수(技手) 황완수(黃完秀)의 강화(講話)가 있는 후 폐회(閉會)하고 다과(茶菓)의 예(禮)가 있었다 하더라.

매일신보 / 1917.03.10.

강화직물조합 기업관광단 서울방문 (1917)

기업관광단(機業觀光團) 입경(入京)

경기도 강화군 직물조합 주최 기업관광단은 지난[去] 12일 정오 남대문 착(着) 열차로 입경하여 도청에서 마츠모토(松本) 도(道) 장관(長官)의 일장(一場) 훈시(訓示)를 받은[受한]

후에 아키야마(秋山) 도(道) 기수(技手)의 안내로 각 기업장을 견학하고 이어서 어제, 오늘[昨今] 이틀[兩日]간 관광한 후 15일에 출발 귀군(歸郡)한다더라.

매일신보 / 1917.03.14.

강화직물조합의 직물검사 (1924)

[강화] 직물검사(織物檢査) 개최(開催)

작년[客年]도부터 강화직물조합 대표로 고성근(高成根), 김동식(金東植) 양씨(兩氏)가 직물조제 남조(濫造 : 마구 만들어 냄)의 폐해(弊害)를 방어키 위하여 도 당국에 직물검사의 의뢰를 신청 중이더니, 금번에 직물품을 검사기로 결정되어, 오는 7월부터 검사를 실시할 터인데 검사 표준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如左].

품명	폭(幅)	길이[丈]
욕지(褥地)	1척8촌	4척5촌
필루비(疋縷飛)	1척5촌	28척,56척
同	1척	同

위 표준 중 필루비는 표백품에 한함. ▲ 필루비 제조용 성(箄 : 바디)은 필히 25적(績)의 바디(箄)를 사용할 것[事] ▲ 표백분은 직물 100문(匁)에 대하여 7문 내지 10문을 사용할 것[事] ▲ 필루비의 표백을 완전케 할 것 ▲ 비중계를 1개씩 비치할 것 ▲ 염색을 완전히 할 것

시대일보 / 1924.04.29.

강화직물조합 염직강습회 (1925)

염직강습회

강화군직물조합(江華郡織物組合)에서는 강습원(講習員 : 교육생) 20인을 모집하고 지난 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강습(講習)을 개시하였는 바, 동(同) 조합으로부터 매인(每人 : 한 사람마다) 실비로 1일 30전을 급여(給與)하고, 교육의 종류는 개량마포(改良麻布) 직조(織造)와 염색법(染色法)이라 하며, 군기수(郡技手 : 강화군 기술직원) 정혜채(鄭惠采) 군을 담임으로, 강화군 직물원산지(織物元產地)인 하점면 김동식(金東植)의 공장에서 실습을 한다는 바, 교육생은 열심히 학습하여 매우 양호한 성적이라고. [강화(江華)]

동아일보 / 1925.04.05.

강화직물화연조합, 원료사 구입 알선 규칙 합의 (1929)

강화 면장(面長) 회의

강화군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면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타합(打合 : 합의)사항은 여좌하다더라.

1. 납세조합(納稅組合) 조직에 관한 건(조합준칙)
1. 강화직물화연조합(江華織物花筵組合) 원료사(原料絲) 구입 알선(斡旋) 규칙

매일신보 / 1929.06.27.

강화산업조합 설립 허가원 제출 (1931)

직물(織物) 화문석(花紋席)으로 강화산업조합

직물 32만원, 화문석 2만원도 산업과에 신청 중

경기도 내에는 아직까지 법령에 의한 산업조합(産業組合)이 한 개도 없었는데, 지난 31일부로 강화(江華)에 유력한 황우천(黃祐天)씨 외 19명의 연명으로 강화산업조합 허가원을 경기도 산업과에 제출하였는 바, 동과에서는 전례를 깨뜨리고 허가가 되도록 진력하여 총독부로 넘기리라 한다. 영업 과목으로는 일반 직물과 화문석 등의 원료 구매와 제품의 판매 등인데 강화 1군 내에 1년간 산출되는 직물이 32만원이고, 화문석이 2만여 원으로 1군을 단위로 하여서는 전조선(全鮮)에 으뜸[首位]이라 한다.

동 조합의 총 자본금은 1만이고, 1구(口)는 10원인데 창립당시로 총액의 반분(半分) 5천원을 불입기로 되었고, 동 조합의 창립 허가만 되면 전세계적으로 화연(花筵) 같은 것의 판로를 확장하리라 한다.

동아일보 / 1931.02.04.

강화 전기문제와 산업조합 (1931)

강도시화(江都時話)

강화 일기자(一記者)

▲ 전기문제(電氣問題)

“우리 강화도에서도 전기등(電氣燈)을 켜다지!” 이것은 요사이 강화읍내에서 유행되는 논제가 퇴보에 퇴보만 가하여 진전(進展)의 여망(餘望)이 없던 강화시(江華市)에도 전등을 켜다. 이 얼마나 찬하(讚賀) 할 일이나, 전기를 켜다고 사회발전으로는 볼 수 없으나 인구가 이만한 강화에 전기가 없는 것은 일종의 수치다. 물론 “램프”보다 전등이 사치적(奢侈的)이

오 불경제임은 사실이나,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하□□이 많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적 욕망과 경제적 배경의 불상반(不相伴)에 있음은 근대인의 변민상(煩悶相)이 어찌 강화뿐이라. 방금은 전등의 신청을 받는 중인 바, 8백 등(燈) 이상이면, 경성 인천의 정도로 전등료를 물게 된다 한다. 우리의 경제가 용서하는 범위면 되도록 전등을 달고 그 아래에서 밝은 생활을 하여보자.

▲ 산업조합(産業組合)

연산(年産) 4십만 원의 직물과 8십만매의 강화가마니(江華叢), 기만(幾萬) 관(貫)의 강화시(江華柿), 만여 매(枚)의 화문석 등의 원산지(原產地)에서 1개의 금융과 거래기관(取引機關)이 없음은 우리들[吾等]이 늘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던 바이다. 다만 군(郡) 당국의 조그마한 지도 아래 종업자 그들이 판로를 개척하여 온 것과 금융조합의 대금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보태어 온 것은 내[吾人]의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그런데 최근 황우천(黃祐天)씨 외(外) 수명(數氏)는 부내, 하점, 양사, 송해면 등지에서 인원(口數)을 모집한 결과, 기대[豫期] 이상의 좋은[好] 성적으로 인원(口數) 모집이 완료되어 지난번(去般) 경기도 당국에 강화산업조합(江華産業組合) 설립 허가원을 제출하였던 바 의외에 지방비보조까지 얻게 되었으므로, 인가만 되는 날에는 얼마 있지 않아 부내면에 산업조합의 기(旗)를 날리게 되리라 한다. 그[該] 조합의 영업 과목은 직물업자를 필두로 일반 산업자를 중심으로 하여 자금대출, 판로개척, 비료, 잠견(蠶繭) 등 공동판매를 주로 일반수용가의 이익을 위하여 상품 공동구입, 또는 상업가를 위하여는 상품 위탁 판매 등 제반시설을 하려한다 하니 강화생산품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산업조합령(産業組合令)에 의함을 조합원의 구수(口數)의 일인일구주의(一人一口主義)가 실시되지 않고 이사(理事)의 임명에 도지사의 인가를 요(要)하니 민주적 조합이라 할 수 없으나 경제상으로 생산자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동아일보 / 1931.03.10.

경기도 최초 강화산업조합 인가 (1931)

경기도의 최초 시험(試驗)인 강화산조(江華産組) 마침내[遂] 인가(認可)

직물화연(織物花筵)만 년 35만 원 생산

10월 10일부터 개업

[강화] 조선 전체로 보아 그 수를 손으로 꼽아 알만치나 적은 산업조합에 있어 전반적으로 이 운동이 초기임도 사실이고, 미성숙기에 있음도 사실인데, 더욱 경기도에 있어서 첫 시험으로 강화산업조합(江華産業組合)을 (1931년) 9월 5일부로 인가하였다. 강화에 있어 강화저포(苧布) 이외에 종래에 짜오는 필누비 요피 이외에 최근에 와서 인조견을 제외하고도 3년 생산고 5만원을 초과하는 금일에 있어 산업조합의 완전한 역할을 다하면 35만원 문제가

아니다. 전 강화적(江華的)으로 보아 화연(花筵) 이외 교동석(喬桐席)이라든가 초화(草靴)가 또한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강화 산업조합의 사업 범위는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이외에 많고, 따라 일반의 기대가 크다. 이제 허가된 내용과 창립된 내용을 본다면 조합주(組合株) 1천 구(口)로서 1회 불입액[拂込高]가 5천원이다. 말하자면 이 5천원을 기회(基會)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리라 하며 현재 모집된 조합원이 660명으로 오는[來] 10월 10일 경부터 개업을 예정으로 맹렬한 준비를 하는 한편 임시 사무소를 강화읍 관청사(官廳舍)에 두고 명년도에 사무소를 신축할 때까지 이곳에서 집무하리라 한다. 허가의 소식을 들은 당 조합장 황우천(皇祐天)씨는 희열에 넘쳐 사방으로 분주히 준비에 분망 중에 있다 한다.

당조(當組) 역원(役員) 씨명(氏名)

조합장(이사겸임) 황우천(黃祐天) / 감사역 이원찬(李源讚) 김현식(金賢植) 서봉준(徐鳳俊) / 평의원 장길환(張吉煥) 외 9인

매일신보 / 1931.09.23.

강화 산업조합의 성적 (1934)

강화산조(産組)의 성적, 직물만 60만원

창립 전에 비하여 산액 배가(倍加), 이제는 전 조선에 우수

강화산업조합에서는 오는 4월 15일에 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의 사업 보고와 기타 조합 발전책에 대하여 심의를 행할 예정이었는데, 동 조합은 소화 6년(1931) 9월에 창립한 이래 방적(紡績) 마포(麻布) 인견교직(人絹交織) 면포(綿布) 등 61만원의 산액(産額)을 득하여 그 성적은 조합 전보다 약 10만의 양호한 성과를 얻었다. 더욱이 직물에 있어서는 전 조선 산업 조합 중에서 저명하고, 작년 1년 간에 원료사(原料絲) 기타 물품을 조합원에게만 판매한 금액이 33만원에 달한다.

매일신보 / 1934.04.11.

강화직물 품질개량 계획 (1934)

강화직물 품질개량 계획

[강화] 강화직물이 외래품보다 품질이 훨씬 낫지만은 가공이 불충분하여 실제 상품화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당 업자가 경제력 없는 농가인 만큼 제반 시설이 불완전한 까닭이다. 강화산업조합 설치 이래로 당 조합 직원 여러분[諸氏]의 노력으로 직물계가 오늘날 같이 호황을 보이게 됨에 따라 업무가 가속도로 증진이 되고 경제력을 많이 얻게 됨을 기회로 다년 유감으로만 여겨오던 모든 계획을 점차 실시 지도하고자 본년도에는

더욱이 선전과 생산증가, 판로개척 등을 꾀하는 동시에 9백원 예산으로 『쟁치는 기계』(仕上機) 1대를 구입하여 일반 당업자에 사용(사용료 1단 3전)하게 하도록 하여 품질 좋고 색채 있는 『강화직물』의 성가(聲價)를 발휘토록 봉사적 사업을 계획한다는데 쟁치는 기계[仕上機]는 불원간(不遠間 : 머지않은 동안) 설치하게 될 터이므로 일반 당업자의 대환영은 물론 이요 장래를 두고 매우 크게 기대한다고 한다.

매일신보 / 1934.05.02.

강화산업조합, 직물 품질검사 (1936)

강화직물검사 27만단

강화도의 소화 11년도 (1936, 2월말 현재) 편물(編物) 검사 수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82,424단

제2기 20,451단

제3기 156,310단

제4기 9,627단

합계 270,632단

인 바, 산업조합에서는 직물의 품질개선과 판매 통제를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11년도부터 직물 검사를 더욱 철저히 행할 터이라 한다.

매일신보 / 1936.03.24.

강화산업조합, 특산 직물 품질검사 (1936)

강화특산직물, 품질검사 실시

강화산업조합에서 취급하는 인견(人絹) 마포(麻布)는 년액 28만단 동 가액(價額) 1백20만원의 다액에 달하고 있는 바, 이것은 장기에 걸친[巨]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산촌 부녀자들의 유일한 부업으로 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것의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못 심대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당지 농산촌에서 이 이상 적당한 부업이 없는 만큼 당국에서는 이것을 더욱 보급 장려하여 농가 경제를 일층 윤택케 하려하고 있는데, 동 생산품의 판매에 있어 왕왕 순박한 농민을 속이는 간상(奸商)이 있어 농가 이익을 농단(壟斷)하는 적지않음[不少]으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는 일방 생산품의 품질 향상도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철저적으로 실시하려고 목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다.

매일신보 / 1936.05.27.

강화 직물계를 좌우하는 강화직물도매조합[江華織物卸賣組合] (1944)

강화 직물계를 좌우하는 강화직물도매[卸賣]조합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하(下) 국가의 통제 방침에 순응하고 업자의 공동목적 달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 조선에 선구(先驅)하여 조직된 강화직물도매조합[江華織物卸賣組合]은 설립한 지 겨우 1년 나머지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는 82명에 공동판매를 실시하여 그 1년간의 취인고(取引高: 거래액)가 실로 47만원에 달하는 놀라운 업적을 보이고 있다. 동 조합장은 명문가로 이름이 높은 남궁철(南宮喆)씨요, 또 동(同) 조합이사 김자평묵(金子平默)씨는 금년 43세 강화출신으로 자성(資性)이 온공(溫恭) 총민(聰敏) 쾌활(快活)하고 식견이 탁월한 호신사(好紳士)로 풍부한 경험과 비범한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동 조합은 육일 승천의 기세[勢]로 번성하여 장래 강화직물계에 기여하는 바 클 것으로 믿어진다. (사진은 이사(理事) 김자평묵(金子平默)씨)

동아일보 / 1944.01.28.

3) 제품의 생산량과 종류

강화 직물 기업 현황 (1917)

연도(年次)	개량기(改良織)기대직(機臺織)	연산액(年産額)	제조호수(製造戶數)
대정4년(1915)	219대	101,960원	135호
대정5년(1916)	229대	102,315원	147호
대정6년(1917)	350대	140,000원	226호

매일신보 / 1917.12.30.

강화 직물 기업 현황 (1922)

지난번[過般]에 기업 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정(大正) 6년[1917]의 강화도[同島]의 기업자수는 7백98인, 개량기계수[改良機數] 2백94, 재래기계수[在來機數] 5백51, 생산가격 14만1천3백75원이던 바, 8년[1919]에는 기업자수 1천2백14인, 개량기 4백39, 재래기수 9백67, 생산가격 24만5천7백79원에 달하였고, 더욱이 대정(大正) 10년(1921)에는 기업자수 1천3백99인, 개량기수 3백99, 재래기수 1천1백73, 생산가격 8만9천8백53원으로 증가하였고, 개량기수 및 생산가격에 다소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대정 8년[1919]의 사계(射界)가 불황시대에 입(入)하였으므로 대국적으로 보면 기업은 연년이 진보한다 함이 옳은데 …… (이하생략)

동아일보 / 1922.07.31.

직물 제품 심사평, 옥지·필루비 등은 강화군의 특산 (1923)

제14과 면마(棉麻) 및 잠사(蠶絲)의 제품.

본과(本科)의 출품(出品)은 면사(綿絲), 마사(麻絲), 면포(綿布), 마저포(麻苧布), 견포(絹布), 화하(靴下), 마혜(麻鞋), 각종 포백(布帛) 제품, 어망(魚網) 등 1천7백27점, 이[此] 인원(人員) 1천3백37명이다.

▲ 백목면(白木棉). 조직(組織)이 성긴[疎] 회색(灰色)의 재래 열등품(劣等品)이 적고[少] 조직이 빽빽한[密] 순백(純白)의 개량목면(改良木棉)이 많아[多], 이[此] 방적면사(紡績綿絲)의 사용이 증가하고, 또 조선인의 기호에 따라[伴] 정련표백(精練漂白)에 뜻[意]을 사용[用]함에 이른[至]지라 수방면사(手紡綿絲)는 가격이 심히 싸지 않아[不廉] 직물원료로 공급[供]하기

가 불능함과 같다[如].

▲ 명주(縞) 및 염목면(染木棉). 염료의 사용이 익숙[習熟]해야 색택(色澤)이 일반으로 가량(佳良한지라, 욱지(褥地), 필루비(匹縷飛) 등의 문직면포(紋織綿布)도 제직(製織)에 득의(得宜)한 것이 많은[多] 바, 이것[此] 등은 경기도 강화군(江華郡)의 특산으로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일[事]이라.

▲ 직뉴(織紐). 주로 경성(京城)에서 생산되어 조직염색이 양호.

▲ 마포(麻布). 종래 심히 통일이 안 되던[不通一] 폭(幅) 및 조직(組織)이 점차 개량됨을 인정[認]함. 또 원료대마(原料大麻)의 개량과 개량바디(筴)의 사용 보급으로 인하여 가는 실[細絲]을 사용한 치밀한 조직의 물품이 증가한 것은 기뻐할 일이며, 신식(新式) 제품으로 마(麻) '시루깃도' 교직포(交織布) 및 마포(麻布) 양복지(洋服地)의 출품이 있어, 전자는 품질 양호한 것이 많으나, 후자는 제직(製織)에 아직 일단(一段)의 개량(改良)을 요구함.

▲ 저포(苧布). 주산지 충청남도(忠清南道)에 우량품이 많은데, 이것은 제품검사와 바디(筴) 및 표백법(漂白法)의 개량 등에 노력한 결과이라. 오직 일본용(日本用)으로는 폭이 협소하고 조직이 긴밀하지 못한 것이 많아 산출[移出]에 부적(不適)함을 유감이라 하노라.

▲ 대마사(大麻絲) 저마사(苧麻絲). 마저포(麻苧布) 제직(製織)의 진보에 따라 섬도균정(織度均整)한 세사(細絲)가 많음을 인정함.

▲ 견포(絹布). 좌조제사법(座繰製絲法)의 보급, 개량직기(改良織機)의 증가, 정련법(精練法)의 개량, 재래의 추타사상(槌打仕上)의 폐지 등에 의하여 품위(品位) 올라[昂上] 대체로 진보의 흔적이 현저하다. 그중 평남 함남 두 도(道)는 군부(郡部) 각지에 기업(機業) 조합(組合) 발흥(勃興)한 까닭[所以]으로 우량한 출품이 많고, 경상북도는 재래주(在來紬)에 특별히 기록할만한 가품(佳品)이 없으나 교직포(交織布)에 우량품이 있고, 평안북도 경기도 출품 중에도 우량품이 역시 적지 않다. (이하생략)

동아일보 / 1923.10.22.

강화 직물 연간 생산액 (1923)

[강화] 직물(織物) 연산총고(年産總高), 연액(年額) 10여만원

본군 내 직물생산에 대한 작년[1923] 말 현재 조사에 의하면 직물 종류는 대개 견직(絹織), 면직(綿織), 마직(麻織)의 3종이요 그 생산고를 면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如左].

면 명	금 액 (원)	제조호수
부내면	1,718	1戶
선원면	595	24

불은면	521	11
길상면	178	27
하도면	282	108
양도면	2,306	232
내가면	896	78
하점면	81,229	259
양사면	170	10
송해면	21,976	25
화개면	3,245	464
수정면	1,275	117
합 계	25,292	1,568

시대일보 / 1924.04.25.

내고장 명산 강화직물과 화문석 (1930)

내 고장 명산(名産) 연산(年産) 40만 원의 강화직물[江華織]과 화문석(花紋席)

강화도 유지영(劉智榮)

(일부 생략)

강화직물과 화문석의 최근 3년간 나타난 현상을 통계적으로 기재하여 둔다.

▲ 강화직(江華織)

연도(年度)	점수(點數)	가격(價格)
소화2년(1927)	90,505단	214,117원
소화3년(1928)	92,974단	271,766원
소화4년(1929)	76,335단	309,092원

▲ 화문석(花紋席)

연도(年度)	매수(枚數)	가격(價格)
소화2년(1927)	11,175매	20,630원
소화3년(1928)	15,840매	15,176원
소화4년(1929)	12,490매	17,090원

주의) 직물 점수(點數)는 면사포(綿絲布) 외 32종(種), 화문석의 가격은 원가(原價)로 되어 있음.(끝)

동아일보 / 1930.11.30.

강화도 직물의 생산량 (1934)

강화도의 직물

「강화직물」은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직기(織機) 2천7백여 대로 직출(織出)되는 바 작년도 제품의 상황을 보건대, 필루비(疋縷飛) 6만3천6백28단으로 가격 3만2천7백7원 욱지(褥地) 5천매로 가격 2천5백원, 인조교직물(人絹交織物) 20만7천8백95단으로 가격 45만7천8백95원, 각종 능직(綾織) 1만8천1백50단으로 가격 3만9천9백30원, 와사단(瓦斯緞) 1만7백34단으로 가격 2만3천6백14원, 반포(斑布) 1천4백95단으로 가격 1천1백96원, 저마포(苧麻布) 2만2백93단으로 가격 5만4백42원이다. 이상 수량 총계 27만7천1백95단으로 총가격 60만7천7백58원의 거액인 바, 이는 순전히 원료와 임금 지불 이식(利殖)을 더한 원가이나,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익은 원가의 약 3할 내지 4할로 매년 20만원을 내려가지 않는다(不下)는데, 산출된 직물은 당 조합에서 엄밀한 검사를 마친 후라야 시장에 매출하는 바, 소수의 위탁 판매를 제외하고는 남부여대(男負女戴)로 행상(行商)을 자행(自行)하므로 남에게 중간 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 (사진은 조합검사실에서 제품 검사 광경)

동아일보 / 1934.05.22.

강화직물 연간 생산액 (1934)

강화 1년간 직물생산액, 27만7천여 단

금액으로 60만7천여 원, 직조호수 2천7백 호

[강화] 강화 생명선상 중요한 산업인 직물계에 1933년도(소화 8) 전군(全郡) 생산 상황을 보면, 종류는 7종으로 27만7천1백95단이 직출(織出)됨을 따라 60만7천7백58원의 생산액[産額]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직기(織機) 놓은 2천7백30호에 비례를 하면 매호(每戶) 1백2단, 평균으로 2백21원62전2리의 경제력 순환을 볼 수 있다. 이제 종별 산액은

- | | | |
|---------------|---------------|--------------|
| 1. 필루비(疋縷飛) | 수량 1만3천6백28단 | 가액 3만2천7백7원 |
| 2. 욱지(褥地) | 수량 5천단 | 가액 2천5백□원 |
| 3. 인견교직(人絹交織) | 수량 20만7천8백9□단 | 가액 45만7천3백□원 |
| 4. 각종능직(各種綾織) | 수량 1만8천□단 | 가액 3만□원 |
| 5. 와사단(瓦斯緞) | 수량 1만7백3□단 | 가액 2만3천6백□원 |
| 6. 반포(斑布) | 수량 1천4백□5단 | 가액 1천□16원 |
| 7. 저마포(苧麻布) | 수량 □1백93단 | 가액 □4백42원 |

이상과 如□이지만은 직기의 대수는 □□□백53대

- 機 3백대
- 機 2천6백36기
- 踏機 5대
- 縮機 12대
- 器 70대
- 호수 2천7백30호

다전선가(多錢善價 : 밑천이 많으면 장사를 잘 할 수 있음)라는데, 돈 없는 농가의 여력의 소화부업(消化副業)인 만큼 자영(自營)이 적고 임직(賃織)이 많아 오던 것인바, 근래 내자(來自)가 늘게 됨은 그만큼 기꺼운 일이나 아직도 임직이 많음은 유감이다. 조사 상황에 의하면 자영이 1천□□33호요, 임직이 1천5백□7호라 한다.

매일신보 / 1934.05.27.

유명한 강화인견-작년생산 40만 단 (1940)

유명한 강화인견-작년생산 40만 단

[강화] 3월 17,8일 본 지상을 통하여 “조선의 신판(新版) 카라방[카라반 : 사막이나 초원을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교역하는 상인집단] “강화의 여인부대”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강화직물 행상의 유래와 내용을 소개한 바 있거니와, 작년도의 이곳에서 생산한 인조견은 과연 얼마나 되나.

강화산업조합의 발표에 의하건대 작년 4월로 금년 3월말까지 조합에서 합격 검사를 받아 상품으로만 나간 것이 35만 단이며 자가용(自家用)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5만 단을 내려가지 않으니[不下] 40만 단이라는 거액을 생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필이로 해본다면 한단이 40척이니 1천6백만척에 달하고 가격으로 1백50만원에 달하는 거대한 숫자이다. 이리하여 강화인견은 남경여직(男耕女織)으로 농촌의 부인들은 직물을 천직으로 삼아 주야로 겸행하여 종업하기 때문에 이곳의 유명한 산업으로의 하나인 직물은 연부년 [매년, 해마다] 발전리에 있어 “산업강화”의 기염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농촌부인들이 집단 공장에서 직조하는 광경)

동아일보 / 1940.05.05. [매일신보 / 1940.05.05. 기사 내용 같음]

강화직물 최고 판매가격[총독부 고시] (1942)

조선총독부 고시 제337호

가격 등 통제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 직물의 최고 판매가격을 다음[左]과 같이 통

지함. 1942년[소화 17년] 3월 14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남차랑(南次郎)

[강화직물의 최고판매가격]

규격 번호	품종	1단의 폭 길이		생산자 최고 판매가격 (圓)	강화산업조합 최고 판매가격 (圓)	도매[卸賣]업자 최고 판매가격 (圓)	소매업자 최고 판매가격 (圓)
		폭(幅)	길이(米)				
1	인면 포라 (人綿ポラー)	36	24	7.70	7.93	8.33	10.83
2	소창직 (小倉織)	36	24	8.80	9.06	9.51	12.36
3	욕지 (褥地)	70	1.4	0.60	0.62	0.65	0.85
4	반포 (斑布)	31	24	3.18	3.28	3.44	4.47
5	필루비 (疋縷飛)	36	24	7.49	7.71	8.10	10.53
6	인면평직 (人綿平織)	36	24	6.10	6.28	6.59	8.57
7	인면능직 (人綿綾織)	36	24	6.20	6.39	6.71	8.72
8	인면인자직 (人綿人字織)	36	24	6.40	6.59	6.92	9.00
9	인면온주 (人綿溫紬)	36	24	6.80	7.00	7.35	9.56
10	인견변직 (人絹變織)	36	24	6.65	6.85	7.19	9.35
11	인견 포라 (人絹ポラー)	36	24	8.10	8.34	8.76	11.39
12	견면평직 (絹綿平織)	36	24	12.14	12.50	13.13	17.07

비고(備考)

- 본표 규격은 별표(別表) 강화직물규격표에 정해진 것에 따르도록 함.
- 본표 가격은 규격 번호5 및 12를 제외한 다른 선염물(先染物)의 가격으로, 선염하지 않은 것의 가격은 본표 가격 보다 20전을 감한 금액으로 함.
- 본표 가격은 소화13년 경기도 직물검사규칙에 의한 1등급의 가격으로 2등급의 경우에는 그 5%, 3등급의 경우에는 그 10%, 4등급의 경우에는 그 20%, 불합격품의 경우에는 그 50%를 각각 본표가격에서 감한 금액으로 함.
- 생산자 최고 판매가격은 사는사람[買主]의 생산자작업지인도가격[庭先渡價格]으로 하고, 강화산업조합 최고판매가격 및 도매[卸賣]업자 최고판매가격은 파는사람[賣主]의 판매자작업지인도가격[庭先渡價格]으로 함.

[별표(別表) 강화직물 규격표]

규격 번호	품종	1단의 폭 길이		경사(經絲)			위사(緯絲)			조직 (組織)
		폭 (幅)	길이 [米]	품종	직도 (織度)	밀도 (密度)	품종	직도 (織度)	밀도 (密度)	
1	인면 포라 (人綿ポラー)	36	24	면사 (綿絲)	20	19	인견 (人絹)	120	15	평직 (平織)
							연사 (撚絲)	3본 (本)		
2	소창직 (小倉織)	36	24	면사 (綿絲)	20	19	면사 (綿絲)	20	15	평직 (平織)
				인견사 (人絹絲)	120		인견사 (人絹絲)	120		
3	욕지 (褥地)	70	1.4	면사 (綿絲)	20	35	면사 (綿絲)	20	16	문직 (紋織)
4	반포 (斑布)	31	24	면사 (綿絲)	20	15	면사 (綿絲)	20	14	평직 (平織)
5	필루비 (疋縷飛)	36	24	면사 (綿絲)	20	30	면사 (綿絲)	20	30	ベッドフオード (Bedford) 코드(cord) 직 (織)
6	인면평직 (人綿平織)	36	24	면사 (綿絲)	20	26	인견사 (人絹絲)	120	18	평직 (平織)
7	인면능직 (人綿綾織)	36	24	면사 (綿絲)	20	26	인견사 (人絹絲)	120	25	능직 (綾織)
8	인면인자직 (人綿人字織)	36	24	면사 (綿絲)	20	26	인견사 (人絹絲)	120	25	산도사문직 (山道斜文織)
9	인면온주 (人綿溫紬)	36	24	면사 (綿絲)	20	26	인견사 (人絹絲)	120	25	변화사문직 (變化斜文織)
10	인견변직 (人絹變織)	36	24	인견 (人絹)	120	21	인견사 (人絹絲)	120	28	변직 (變織)
				연사 (撚絲)	2본 (本)					
11	인견 포라 (人絹ポラー)	36	24	인견 (人絹)	120	19	인견 (人絹)	120	17	평직 (平織)
				연사 (撚絲)	2본 (本)		연사 (撚絲)	3본 (本)		
12	견면평직 (絹綿平織)	36	24	생사 (生絲)	25	54	면사 (綿絲)	20	24	평직 (平織)

비고(備考)

- 1단의 폭장(幅丈)은 최소한도를 나타내고 5% 이내의 증가를 인정함.
- 밀도는 1센티미터사이[糲間]의 최소 사수(絲數)를 표시함으로 함.
- 면사(綿絲) 20번을 사용해야 할 경우, 그것 대신에 면사 16번실을 사용할 수 있음.
- 인견사(人絹絲) 120 데니어(denier, 섬유의 굵기단위) 실을 사용해야할 경우, 그것 대신에 인견사 150데니어 실을 사용할 수 있음.

조선총독부 관보 제4537호(昭和) 1942.03.14.

4) 생산품의 판매 방법

내고장 명산 강화직물과 화문석 (1930)

내 고장 명산(名産) 연산(年産) 40만원의 강화직물[江華織]과 화문석(花紋席)

강화도 유지영(劉智榮)

(일부 생략)

▲ 판로(販路)

이러한 경로를 밟아 산출되는 직물과 화문석의 판로와 판매 방법은 어때[如何]한가?

직출(直出)하는 직물은 직물조합(織物組合)의 검사를 받아 외지에 수출하나니 경향(京鄕) : 서울과 지방 각지의 저명한 포목상과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대개 농한기를 이용하여 남부여대(男負女戴 :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로 외지에 직접 행상(行商)을 하나니 행상지는 조선 각도(各道)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여름철과 겨울철로 2회로 나누어 행상기(行商期)를 정하였으니 행상대(行商隊)는 약 2~3백명의 남녀로 강화를 떠날 때면 갑곶항(甲串港)에 수출되는 상품이 산적되는 만큼 10여 일간은 대혼잡을 나타내고[모] 있다. 이리하여 상품은 대개 외상으로 판매된다. 즉, 여름철에 팔리는 상품대금은 다음 겨울철에 수집하고, 겨울철에 팔리는 상품대금은 다음 여름철에 받기로 한다. 이리하여 판매성적이 양호한 것은 사실로 소매로 생산되는 이익이 원가에 약 1할 5분이나 되어 연2회 행상 시에서 생기는 돈이 매호(每戶 : 모든 집) 마다 2~3백원에 이르고 있다. 이리하여 행상기에는 가정에는 노약자만이 남아있게 됨으로 세계대전(世界大戰) 시의 독일(獨逸)을 연상하게 된다.

화문석은 품질과 모양에 따라 가격이 일정하지 않으나, 시장에 매출되는 것으로는 3원 내지 5원의 2~3 종류가 있을 뿐이나 주문자의 희망에 따라 1매에 수십원 혹은 수백원의 품질 차이가 있다 한다. 이리하여 동조합[江華花筵組合]에서는 판로를 확장하고 외지에 선전할 목적으로 조선과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 열리는 공진회(共進會)와 박람회(博覽會) 등에 빠짐 없이[無漏] 출품을 해온 만큼 해외 각지에서도 그 가치와 존재를 확인하게 되자 해외로부터 주문이 끊임없다[不絶]. 조선 내 유명한 상점인 삼월(三越 : 미즈코시)과 조선관(朝鮮館) 등을 필두로 일본 각지 대판(大阪) 조선물산출장소(朝鮮物産出張所)에 진열되어 있어 절대적인 호평을 넓히고[博] 있는 조선 유일의 명산품인 우리 강화도 화문석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 무리(無理)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동아일보 / 1930.11.30.

강화직물업계 - 판로상황 (1934)

연산(年産) 백만원 가진 강화의 직물계(織物界)

전조선[全鮮]에 패권도 머지않아[未久]에 장악

성가(聲價)는 날로 드러나

(부분 생략)

▲ 직물의 판로상황

곡절파란(曲折波瀾)이 많아 위미부진(萎靡不振)하다가 현재에 와서야 통제가 서게 된 만큼 완전한 상품화를 하지 못하여 남부여대(男負女戴)로 전선(全鮮)에 매출되는 동시에 판매 중요 역할이 남자 보다 여자가 낫다는 것이다. 물론 외래품을 대항할 만한 선전력(宣傳力)이 없는 만큼 이렇다 하려니와 품질이나 기술이나 별반 손색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혹 색태(色態)에 손색이 없을런지 모르나 실용적에 있어서는 도리어 환영을 받을 것이다. 또 상품화 하지 못한 지라 여자들의 손으로 가가호호(家家戶戶) 판매에 따라 가액(價額)이 일정치 못하나 내용에 있어서는 외래품보다 저렴한 것이다. 가액으로나 품질로나 외래품을 압도한 만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전의 부족함과 통제시일이 짧은 [淺] 까닭[所以]일 것이다. 그 외 필루비(疋縷飛) 반포(斑布) 마포(麻布)는 도시 중요 상점에 거래[取引]가 이만한 터이라 더욱이 장려와 개량에 주력하면 그 성가(聲價)는 날로 높아갈 것이다.

매일신보 / 1934.02.13.

강화 인조견을 만주국에 수출 (1934)

강화(江華) 인조견(人造絹)을 만주국(滿洲國)에 수출

[강화] 강화 인조견은 조선 전국적[全鮮的]으로 환영을 받아 오는데, 요즈음[近者] 일만(日滿) 친선(親善)으로 인하여 본(本) 지방[江華] 인조견이 만주국 수출이 왕성하게 됨을 따라 틀소리가 점점 더욱이 번잡하게 들리는 중인데, 직접 감독 지휘 책임을 가진 강화산업조합 김평묵(金平默)씨는 이와 같이 말하였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공급력이 부족한 것이 유감이지마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물건이 외국 수출이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일층 분발하여 □□와 아울러 생산물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색태(色態) 실□에 더욱이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매일신보 / 1934.03.01.

강화직물은 여자상인 손으로 (1934)

강화직물은 여자상인[女商]의 손으로

1월 이후 3천명

[강화] 강화직물은 근년(近年) 이래 미증유(未曾有 :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음)의 활황(活況)을 나타내어[로] 매일 검사되는 필수(疋數)는 1천여 필을 초과하여 검사원이 대 분망(奔忙) 중인 바, 1월부터 오늘날까지 전 조선 각지는 물론이요, 멀리 만주(滿洲) 방면으로 나가는 행상 중 여자 수만 3천여 명으로, 진두(津頭)에는 매일 남부여대(男負女戴 :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입) 무리[群]가 대홍수를 이루는 현상이다.

매일신보 / 1934.04.17.

강화 포목행상 전수복씨의 수재(水災) 현금 (1934)

포목행상(布木行商)의 피땀어린[血汗] 금(金) 오원(五圓)

[고령]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즉 9년 간을 하루같이 경상북도[慶北] 지방에서, 강화(江華)에서 생산된[所産], 인견직물(人絹織物)의 행상(行商)을 하고 있는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仁山里) 전수복씨는 금번 대수재(大水災)로 말미암아 경남 구포(龜浦)와 남지(南旨) 경북에 고령(高靈) 등지의 흑심함을 크게 느낀 바 있어 피땀[血汗]의 결정으로 푼푼양양이 모은 돈 5원을 지난 18일에 본보[東亞日報] 고령지국(高靈支局)으로 가지고 와서 9년 동안 나의 은혜의 땅[恩地] 영남(嶺南) 수재민에게 보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고 갔다.

동아일보 / 1934.08.25.

강화 인조견 행상 (1935)

강화 인조견(人造絹) 행상(行商)을 개최

[강화] 인조견(人造絹)이라면 강화(江華)를 연상케 될 만큼 농촌의 큰 부업품(副業品)인데, 금년도에는 행상(行商) 제1기가 되어 벌써부터 매일 수백의 남부여대(男負女戴) 무리[群]가 나루테[津頭]마다 홍수를 이루는 예(例)에 의한 기이한 현상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전 조선[全鮮] 각지에는 이제로조차 그 수 3천여 명에 달하는 행상인들의 인조견(人造絹)을 사라 는 호별(戶別) 방문이 개시된 것이다.

매일신보 / 1935.03.16.

강화 직물, 부인행상대(婦人行商隊) 조선 전국에 판매망 (1935)

강화산(産) 직물, 전 조선[全鮮]에 판매망

1년 매상고 1백만원 돌파

강화도 산업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면포(綿布), 인견(人絹), 교직물(交織物), 마포(麻布) 등의 판매에 대하여 부인행상대(婦人行商隊)를 전 조선에 파견하고 있는 바,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금년도 매상 총액은 10월말 현재로 이미 100만원을 돌파해서, 이 때문에 부락민은 대개가 부유하게 되어 모범적 자력갱생(自力更生) 부락이 되고 있는 터인데, 이 부인행상대(婦人行商隊)는 재래(在來)로 유명하여 물품을 외상으로 주고 일정 기간에 수금[集金]하는 상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전 조선적으로 판매망을 펴고 있는 관계로 상품을 외상으로 준 집이 타처로 이동하더라도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교묘한 조직이어서 상품을 횡령당할 염려가 없다고 한다. 경성에서는 봉래정(蓬萊町)에 본부를 두고 약 100명에 달하는 부인행상대(婦人行商隊)가 들어 있다고 한다.

매일신보 / 1935.12.06.

강화산 인견 저포 등 만주 등에 판로 확장 (1937)

강화산 인견(人絹)·저포(苧布) 등 년(年) 생산 1백50만원

만주(滿洲) 기타에 판로(販路) 확장

[강화] 경기도 강화군에서 우리 손으로 생산되는 인조견(人造絹), 마포(麻布), 저포(苧布)는 강화의 특산품으로, 전군(全郡)에서 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산지는 하점면이 수위(首位)인데, 1936년(소화 11) 4월 1일부터 금년 2월 15일 현재의 생산액이 1백50여만 원의 저액에 달하므로 내지인(內地人) 측의 대자본가 등이 침을 흘리는[垂涎] 것도 사실이나, 강화 직물인 인조견과 저포, 마포 등은 다년 전문적 기술로써 직조한 것일뿐더러 강화산업 조합에서 장려에 주력한 것으로서, 전(全) 강화 1만4천여 호의 3할인 4천2백여 호가 직조(織造)하여 가지고 전(全) 조선 각지는 물론 만주(滿洲)에까지 행상을 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 외에 화문석도 강화 명산으로 조선 내에는 물론 외국에까지 수출되어 년 3만 원의 산출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강화의 대 자본가 홍재묵(洪在默)씨가 강화 직물에 착안하여 1935년(소화 10) 7월 이래 공장을 건축하는 동시에 조양방직주식회사(朝陽紡織株式會社, 50만원)을 조직하고 역직기(力織機) 50대를 구입하여 지난[去] 1월부터 운전을 하고 있는 터인데 이를 가산한다면 년(年) 생산액 2백50만원은 내려가지 않으리라[不下] 한다.

매일신보 / 1937.02.21.

강화 직물 거래로 우편 배달지연 (1937)

강화 우편의 배달 지연으로 일반의 비난소리[非難聲] 높아지다[漸高]

[강화] 강화는 전 조선 각지에서 직물(織物) 취인(取引: 거래) 관계로 연일 증가되어 가는 우편물을 전편(轉便) 배달로 인하여, 실기(失期)되는 일도 있고, 전연 분실되는 일도 있어 우편 통신 상 증대한 지장을 일으키게 되고, 신문 배달도 좀 궁벽한 농촌에는 수일 분을 합쳐서 배달하거나 전편 배달로 여러 날 지난 뒤에 휴지로 되는 일도 있고 전연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신문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시켜 독자가 줄어드는 실례(實例)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며, 보통 우편물도 전편 배달로 함으로 일반의 불편과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며, 전화의 교환도 심할 때는 10분 내지 15분간 썸의 지체는 예사라 하여 일반의 비난이 적지 않다 한다.

매일신보 / 1937.06.15.

강화직물의 판매 (1939)

이렇게 짜내는 직물의 종류는 얼마나 되나. 반포(斑布), 필루비(疋縷飛), 저포(苧布), 강화인견(江華人絹) 등 11종이다. 이리하여 직출된 제품은 남자들의 손으로 검사장으로 운반되어 엄중한 검사를 받게 된다. 그 다음은 제품 판매이니 다시 농한기를 이용하여 남부여대(男負女戴)로 전 조선 방방곡곡의 판로를 찾아나가는 대상(隊商)의 장사진(長蛇陣)을 치는 것이니 근일은 만주(滿洲)는 물론 북중국(北支)에 까지 판로를 개척하였다는 것이다. 부부로 된 대상들은 판매할 부락을 정한 후 남자는 사랑(舍廊: 사랑방)으로 남자들에게 팔고 여자는 가내(家內)로 침투하여 '견물생심'의 욕구가 많은 주부들에게 팔게 되니 내외(內外)로 침입한 대상(隊商)들의 상법(商法)이 그럴 듯 하거나 한 자라도 팔지 못하고 돌아서는 곳이 없다하며 강화여인은 대개 말 잘하고 활발하여 예로부터 '뽀뽀한 강화여인'이란 속담도 직물행상에게서 생긴 것이라 한다. 출매기(出賣期: 행상시기)는 년 2회 춘추(春秋)로 정하여 있어 춘기외상은 가을에 받고 추기외상은 봄에 받아, 판매 구역은 언제나 그 사람의 전매지가 되어 있어 일절 판로경쟁은 없다고 한다. (사진은 제품검사를 받으러온 농부들) (강화직물편 끝)

동아일보 / 1939.09.09.

강화 화문석 직물, 미즈코시(三越) 백화점 즉매회(即賣會) (1939)

강화명산 4천점, 삼월(三越)에서 즉매회(即賣會)

화문석, 강화직물, 건시(乾柿) 등

[강화] 강화군농회에서는 경기도 산업과 응원을 받아가지고 오는 12월 1일부터 동 4일까

지 나흘 동안 경성 미즈코시(三越 Mitsukoshi 백화점) 4층 특설룸에서 강화 특산시장[特産市]을 개최기로 하였다. 강화도는 산업왕국으로 자타의 공인을 받아온 지 오래거니와 아직 이곳의 특산품을 가지고 특산 즉매회를 열어본 일이 없는 만큼 금번 즉매회에 있어서는 도시인기가 총집중된 것을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즉매회에 출품할 품명과 점수는 화문석 6백50점, 강화직물 2백여 점, 말린 감(乾柿) 수백 점 등인 바 연말 중심으로 개최하는 만큼 판매물품[賣品]의 부족이 있을지 모른다 하여 주최측은 매품 층당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즉매회에 실연(實演)될 화문석 제작 광경)

동아일보 / 1939.11.26.

강화 인조견 행상, 조선의 신판 '카라방' 강화도 여인부대 (1940)

1년 3차의 대진군, 남북 각지서 개가(凱歌), 강화 인조견 행상의 프로필

조선의 신판 '카라방' 강화도 여인부대

그러면 그들의 상술(商術)은 대체 어떻게 하나 하고 궁금할테니 그 이야기를 하리라.

이 장사를 하려는 자본주는 일단 산업조합에서 자기가 사용할만한 범위의 원료를 구입해다가 품삯으로 짜는 여인네들에게 백필이거나 2백필이거나 맡겨서 짜내는데, 살림하고 애기 기르는 틈이 일을 하여도 한 집에 직조하는 노임(勞賃)만이 매일 15원으로 20원은 않는다 하니 농촌 가정부의 부업으로 훌륭하다 하겠소.

현재 자본주란 그들 상인은 한 차례의 출매(出賣)에 요하는 자금이 많으면 1만 원 정도요, 처음으로 경험 없는 상인이라도 천 원 이상을 가져야 한다 하오.

행상의 자금으로 천 원 이상으로 만원 내외까지라면 꽤 많은 자본 같지만은 요즈음 나가는 장사치들은 대개가 음력 4월까지 돌아오려는 심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품에 요하는 자금도 자금이러니와 '도부꾼[여인행상(女人行商)]' 한 사람에 그동안 비용이 보수 외에 식대와 담배 값, 의복 값 한 벌 씩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1백20원 이상을 잡고, 적게 데리고 나가는 이면 5인 내외 그 다음으로 10인 내외의 '도부꾼'을 요한다 하니 이 '도부꾼'을 열 사람 쓰는 사람알도 1천2,3백 원의 비용을 써야 된다는구로.

2천 명이 넘는 이 여인부대는 집에서 직물로 나서면 품삯으로 돈들도 잘 벌지만은 낮 놓고 '기'자를 모르는 이라도 앉아서 조선 안의 지리 이야기를 하려면 '조선의 지리(地理)는 나에게 물으라.' 는 것처럼 짤짤 청산유수로 설명을 하지 않소.

지금에 나간 그들 장사치들은 대개가 음력 4월 달에 돌아와 밭과 논에 1년 농사를 시작해놓고 2달 후인 6월에 제2차는 다시 행상의 길을 떠나고 가을에 돌아와 추수를 끝내고 제3차의 장사 길은 가을과 겨울에 겹치어 하는데 겨울 장사처럼 중요한 때가 없으니 그때는 1년간 외상 나간 것을 회수하기 때문이라는 구로.

그러면 이들이 타곤 객지에서 어떻게 일일이 값비싼 밥을 사먹느냐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 어떠한 곳의 목적지인 곳에 찾아 간다면 그들 일행은 우선 세집[賈家] 한 채를 얻어서 임시로 살림을 차린 후에 번차례로 집을 지키는 당번을 만든 후 식사와 가사를 도맡아 보기도 하고 인조견 짐을 머리에 이고 말말춘춘이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며 출매 도중에 날이 저물어 남의 집 신세를 지게 되는 한이라도 결코 눈 싫은 밥을 먹지 않는다오.

나도 그 말을 처음 듣고 펍 의아해서 그 말하던 여인에게 물었더니 여자는 행주치마 하나면 밥을 구해 먹을 수 있다는 구료. 그 이유는 드세게 되는 집에는 의례히 끼니 때(저녁밥 할 때)쯤 가기가 십상팔구인데 하루 밤 쉬고 갈 것을 주인에게 허락 받기가 무섭게 붓짐 속에 준비해 가지고 간 행주치마를 내어 입고 부엌으로 들어가 주부의 손을 털어 준다면 모두가 부인 동지라서 좋아하면서 밥도 주고 잠도 잘 잘 수 있다는 별의별 수단이 다 많다오.

그러면 그 인조행상에 따라 나가는 여인네 ‘도부꾼’의 연령(年齡)은 어떠냐고. 그것은 늙은 아주머니 보다 젊은 아주머니가 많은 것은 늙은 아주머니야 어떻게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달씩 먼 길을 걸을 수가 있소. 그러니까 자연 ‘도부꾼’을 구하는 이도 될 수 있는 대로 젊은이들을 찾기 때문에 그야말로 꽃 같은 색시도 있다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가도 별의별 소문이 다 있지 않았소. 그러나 강화의 여인네들은 정조 관념이 강한 것이라거나 가정에 애착심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만나 고향으로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소. 오죽하면 강화 사람은 죽어도 머리를 강화 마니산(摩尼山) 편으로 두고 죽는다 하지 않소.

그런데 강화에서 직물을 하는 이중에 실패를 본 사람들도 꽤 많소 만은 경험 없는 일에 모험을 하다가 대개가 실패를 하였고 객지에서 주색에 빠져 실패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강화 사람들처럼 ‘참을성’이 강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늘 저만한 성공을 본 것이 아니겠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하게 되었다는 이도 소작하는 토지가 있고, 제각각 집이 있고 또 자전거(自轉車) 한 채와 직기(織機) 한 채는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살아갈 기틀이 있구료. 어떠한 이의 말을 들으면 귀찮은 농사는 폐농하고 직물만 전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합디다. 그리 그들은 작년 같은 흉년에도 눈 한번 깜짝이지 않았소. 정말 불경기(不景氣)를 모르고 사는 행복 된 사람들이라오. 얼마나 부럽소. 정말이지 이곳 사람들처럼 돈 잘 벌고 돈 잘 쓰는 이들은 없소. 그중에도 몇몇 졸부 된 이 중에 이야기꺼리가 있소. 그것은 그 부자가 장사할 당시 삼남 어느 곳에 가서 한자에 땃냥(십전) 싹에 패매(掛賣: 외상)로 팔고 왔던 것이 그 다음 수급 때 그곳 돈풀이로 하여 매척 땃냥 싹 주더라니 그 얼마나 수가 생겼소. 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 같지 않소. 하점면에는 지금 대학 정도의 재학생이 몇 식, 중학교 재학생은 수효도 모르리 만치 많소. 또 지금 사회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도 많지요. 지금 그 곳에 당당한 공설운동장도 있소. 소학교나마 6년제가 있는데 먼 민 등의 서의로 소학교 교원의 사택(舍宅)을 지어 준 데도 다른 곳에는 그런 예를 볼 수도

없소. 지금도 앞으로 별의별 시설을 다하려고 계획 중이랴오. 이것이 모두가 그 유명한 강화의 인조견과 ‘뽀뽀스런 강화년’의 큰 덕이구료. 그러니 ‘년’이라면 어떻소. 제(題)하여 조선의 신판(朝鮮新版) ‘카라방’ 강화 인조견행상대(人絲行商隊)의 진군보를 대강 적어 두고 이만 끝이요. 끝. (사진은 강화 비단을 검사하는 광경)

동아일보 / 1940.03.18.

강화도 견직(絹織) 해외 주문 쇄도 (1947)

견직(絹織) 주문 쇄도, 미·중국서 다량 요구

국제 무역이 시작된 요즈음 수입액이 수출액의 갑절이나 올라가는 절름발이 무역으로서 이를 조절함과 아울러 외화 획득을 위한 해외수출품의 생산이 시급한 이 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직물(織物)이 해외 시장의 요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강화도(江華島)는 과거부터 견직(絹織) 등 직물의 특산지인데 여기서 생산하는 누단 등 본건 2종류는 조선 내 타치는 물론 외국에서도 만들 수 없는 섬세 우아한 것이어서 약 3개월 전 중국에서 강화도 조양견직(朝陽絹織)주식회사에 견본을 보내라는 청탁이 있어 보냈던 바, 요즈음 다량의 주문이 있었으며, 다시 미군 ‘PX’에서도 주문이 있어 납입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데, 우선 5천 필 가량을 수출하리라 한다. 그러나 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다량의 생산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비단이 세계 시장에 등장하는 명량한 화제를 던지고 있다.

공업신문 / 1947.09.17.

5) 주요 인물과 공장의 경영

강화직물품평회 수상자 (1917)

직물(織物) 품평회(品評會) 경기도 강화군에서는 관내 강화 직물조합의 주최로 지난달 [客月] 20일에서 이달[本月] 4일까지 15일간 군내(郡內)에서 산출(產出)한 직물 품평회를 열었는데, 출품점수는 약 250점이고, 출품자는 약 150명이다. (일부 생략) 직물의 품평회는 이 [此]로서 효시(嚆矢)가 될지며 수상자 수는 (일부 생략) 다음과 같다[如左] 하더라.

[수상자(受賞者) 수]

1등 3인 신영철(申永喆), 고헌조(高學祖), 전승순(全昇淳)

2등 9인 김동식(金東植) 외 8명

3등 18인 전남식(全南植) 외 17명

4등 32인 구록서(具祿書) 외 31명

매일신보 / 1917.12.30.

기계직조업계의 선구자 김동식(1926)

강화 기계직조계[機織界]의 선구자인 김동식은 현재 50세로 그야말로 노년으로 일찍부터 사회를 위한 희생적 정신이 풍부하여 명치40년(1907)에 자기 출생지인 하점면 신봉리에 봉명학교(鳳鳴學校)를 창설(創設)하여 경영하다가 대정5년(1916)에 인근동네[隣洞]에 있는 사립 창화학교(昌華學校)까지 인수하여 합병 경영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 학교[右校]의 유지가 곤란하므로 하점면의 유지와 협력하여 공립보통학교로 변경하여 지금도 학무위원(學務委員)으로 생애 전반부는 교육계를 위하여 진력하였고, 이후 반생은 이를 실업계에 공헌하여 한편[一方]으로는 산업조합을 설립하여 농촌의 금융을 완화토록 하고, 한편[一方]으로는 기계직조[機織]를 장려하여 지금으로부터[距今] 30년 전에 하점직물조합장(河岾織物組合長)으로 면민(面民)의 부업(副業)을 위하여 대단한 활동을 하였다. 지금은 재일본제국(在日本帝國) 제마주식회사(製麻株式會社)의 마사방직(麻絲紡織)을 인수하여 공장 30여 개소에 직공 5백여 인을 보유한 대공장주가 되었다. 김동식씨는 이미 서술한 것과 같이 공익사업에 자기의 모든 과거를 희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도 이 사업에 공헌하려는 강화의 일대분투가(一大奮闘家 : 첫째가는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요, 오십의 노년이다. 작년도 강화직물 생산액 총계를 보자면 여러 가지 종류를 합하여 생산총계 169,501원이다.

동아일보 / 1926.08.20.

강화 직조 산업의 창시자 고성근과 김동식 (1932)

이(강화 직조) 사업의 창시자(創始者)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1910년대]의 고성근(高成根), 김동식(金東植)이니 두 분의 경영으로 그 후에 원근(遠近)에서 점차[稍稍] 모방하여 오늘날[今日] 직조(織組)의 총 생산액이 연간 수십만원(圓)이다.

고성근(高成根)은 제주인(濟州人)이니 사람됨[爲人]이 신중강건[沈重勇剛]하고 시무에 밝았다[明於時務]. 일찍이[常] 교육(教育)과 실업(實業)이 발전하지 못함[不展]을 근심[爲憂]하더니 시세(時勢)의 전환[一轉]에 미쳐 먼저[先] 뽕나무묘목[桑苗] 5천주(株)를 심어 양잠(養蠶)을 준비하고, 한편[一面]으로 직조기(織組機)를 수입(輸入)하여 직조업(織組)을 확장했으며, 또[又] 넓은 과수원(果園)을 관리하고, 유진식(俞鎭植)과 협력(協力)하여 시설(施設)한 인천(仁川) 연백(延白) 등지의 운항업(航行業)은 사무(事務)의 장애(碍滯)로 인(因)하여 그에게 양보(讓步)하나라.

김동식(金東植)은 청풍인(淸風人)이니 정우당(淨友堂) 김식(金湜, 1482~1520)의 후손이다. 사람됨[爲人]이 훌륭하며 고매하고[瑰偉爽邁] 변화에 대응하여 대책을 잘 세우[策機應變] 시무(時務)에 밝았다. 실업계(實業界)에 헌신한 이래 20년간에 옷감 짜는 북소리[梭聲]가 남북의 마을에 두루 미치게[遍南北閭里]하니 그 분투(奮闘)의 노력(努力)이 응당 그러하지 않았겠는가[當何如耶].

<속수증보 강도지> 1932.02.15.

조선인 손으로 처음 설립된 강화인조견공장 조양방직 (1935)

우리 손으로 처음 된 강화인조견공장

인견, 마사, 염색 등으로 장래 유망, 자본금 50만원으로

조선 사람의 손으로 처음 되는 인조견 회사가 설립되었다. 강화의 인조견은 견고하고 우수한 것으로 외국산을 압도하여 일반 가정에서 다수 사용하는 터인데, 아직은 통일된 회사가 없이 강화도 가정에서 수공업으로 생산됨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강화의 우수한 실업가 홍재묵(洪在默) 홍재룡(洪在龍) 양씨(兩氏)와 정주(定州) 이정근(李定根)씨 외 수인(數人)이 발기인이 되어 조양방직주식회사(朝陽紡織株式會社)를 설립하기로 되었다.

회사의 구성은 자본금이 50만원으로 모두 만 주라 하여, 벌써 2주간 이내로 제1회 불입을 마쳤다 하는 바, 기제는 「노가미」식으로 30대를 일본 내지(內地)에 주문하였다 하며, 상품은 인조견(人造絹), 마사(麻絲), 염색(染色) 등으로써 장래가 유망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35.08.16.

방직특산지 강화에 인조견 공장 조양방직 신설 (1935)

방직(紡績) 특산지 강화(江華)에 인조견(人造絹) 공장 신설
정주(定州) 강화(江華) 조선인 재벌(資閥)이 50만원 자본으로

조선에 있어서 방직물(紡績物)의 산지로 이름이 높은 강화(江華) 읍내에 금번 조선 내에서 처음 되는 대규모의 인조견 회사가 새로 창립된다는 바, 총 자본금 50만원의 주식회사로서 이미 건축한 공장(건평 1백50평)에 '노가미' 식 기계 30여 대를 놓고 당분간 원료(原料)만은 부득이 원산지에서 수입할 것이나, 염색 기타의 가공은 전부 동 회사에서 하리라는데 명칭은 조양방직주식회사(朝陽紡績株式會社)라 하여 강화의 우수한 부호 홍재묵(洪在默), 홍재룡(洪在龍) 양씨와 평북 정주(定州) 이정근(李貞根) 씨 등이 수 개 월(數月) 전부터 창립에 노력한 결과 머지않아[不遠] 창립식을 거행하고 본점은 경성에 두리라 하는 바, 금번 동 회사의 창립은 부진한 조선 산업계에 자못 주목을 끄는 바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일보 / 1935.08.16.

자금 50만원의 직물회사 조양방직 출현 (1935)

자금 50만원의 직물회사 출현, 산지 강화군내에

[강화] 강화군 부내면 신문리 홍재묵(洪在默)씨는 상당한 자산가로 항상 직물계에 촉망을 두고 오던 바, 금번 (홍)씨의 발기로 조양방직주식회사(朝陽紡績株式會社)를 총 자본 50만원으로 조직하고 건축지(建築地)를 신문리로 정한 후 즉시 설계 기공하여 지금[方今] 건축 중인데 머지않아[不遠間] 전력(電力)에 의한 직기(織機) 소리(聲)를 내게 될 모양인데, 현하(現下) 공업지대화(工業地帶化)하여 가는 조선에 있어 반가운 소식도 되려니와, 백만원 산출의 본(本) 지방 직물계에 금상첨화라. 장래를 두고 일반의 기대가 많다고 한다.

매일신보 / 1935.08.18.

강화 방직계 - 홍재묵 홍재룡 형제 직물회사 창설 (1935)

강화 방직(업)계

[강화] 직물 연산 백만원으로서 단연 조선 산업계에 두각을 내밀고 있는 강화도에 다시 50만원의 거자(巨資 : 거액의 자금)를 던져 방직회사 창립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부군(富郡)의 명칭을 듣고 있는 강화 부호급(富豪級)의 사업열(事業熱)이 없다는 평판이 가장 높은 요즈음 단연 그 '테이프'를 끊고 나선 이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부내면 신문리 홍재묵(洪在默)씨로서 여러 해 전부터 무엇이나 대중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찾기에 여러 가지로

연구하던 바로 올봄[今春] 동경(東京) 모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씨의 실제(實弟 : 친동생) 홍재룡(洪在龍)씨를 맞이하여 강화도로서 가장 유망하고 대표산업의 직물회사를 창설함으로써 산업 강화에 획기적 사업으로 영리와 봉사를 겸한 일석양조(一石兩鳥) 적(的)인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방금 부내면 신문리에 공장지대를 선택하여 공장의 일부를 건설공사에 착수를 보았다 하며, 일본 내지(內地) 모(某) 기계회사에 직조기를 주문 중이라 한다.

이리하여 공장 준공과 함께 개업이 되는 날에는 당당히 50만원의 큰 회사의 깃발을 날리게 됨을 따라 일반유민(一般遊民) 해소(解消)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장래 조선적(朝鮮的)으로 보아 손색이 없는 산업계의 이채(異彩)라 하여 일반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심축(心祝)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35.08.26.

대 직물회사(조양방직) 건설, 약진 강화 전도양양 (1935)

50만원을 투자하여 대직물(大織物) 회사 건설, 약진강화(躍進江華) 전도양양(前途洋洋)

[강화] 강화의 대자산가(大資産家) 홍재묵(洪在默), 홍재룡(洪在龍) 양씨의 기계직물계(機械織界) 진출은 놀라운(驚異) 일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양씨(兩氏) □상(□想)의 50만원의 조양방직주식회사(朝陽紡績株式會社) 창립 일체를 결정해서, 장소는 강화읍내 신문리 일각(一角) 수천 평을 부지(敷地)로 하고, 이미 일단 사무소 건물은 최신의 근대식 호장화려(豪華華麗)의 극에 달하는 2층[階]이다. 중앙 고탑(高塔)은 30척을 넘어, 훌륭한 직물계의 전당(殿堂)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멀지 않은 일이다.

조선신문 / 1935.11.12.

조양방직 신설, 강화 유력 자본으로 (1935)

강화도 조선인 유력자로서 설립 계획 중인 조양방직회사(朝陽紡績會社)는 자본금 50만원으로서 창립기로 결정하였는데, 공장은 강화도 읍내에 건설하고 동력(動力)은 경전(京電)에서 공급계 할 터이라 한다.

조선중앙일보 / 1935.11.14.

조양방직- 조선공업회사 프로필 (1936)

조양방직(朝陽紡績) 이 회사는 작년 11월 10일 창립, 공칭자본금(公稱資本金) 50만원, 불입자본금(拂込資本金) 12만5천원으로, 강화읍에 본점을 두고 홍재묵(洪在默) 씨의 주체

경영의 것인데, 순연히 인견(人絹)을 본업(本業)으로 하고 부대(附帶)를 마직염색(麻織染色)이며, 아직 조업(操業)은 시작하지 않았으나, 금년 3월부터 작업을 시작하리라 한다. 우리의 완전한 인견회사로서 금후 조업 시작 이후의 동 회사 발전이 기대된다.

동아일보 / 1936.01.01.

조양방직 준공, 근간 조업 개시 (1936)

[강화] 년 생산 1백20만원을 돌파하는 강화 직물계는 근년 이래 더욱이 진보가 되어 부업(副業)이 점차로 전업화(專業化)하여 짐을 따라 인력의 부족으로 기계력(機力)을 빌지 아니하면 불가능할 현상을 나타내게[로] 됨은 이 업계를 위하여 기쁜 일인데, 작년 중에 유지 홍재목씨가 인력(人力) 부족을 기계력(機力)으로 보충하여 더욱이 발전을 시켜 볼 목적으로 50만원의 자본금으로 조양방직주식회사(朝陽紡績株式會社)를 조직하고 추천을 받아 사장에 취임하는 동시에 이래 공장 건축에 착수하여 오던 바 몇 일 안 되어[不日] 준공을 본 모양으로 우선 30대의 기계로 시직(始織)을 하게 되고 제2차로 50대의 기계를 주문한 만큼 공장 증축에 착수하였다는데, 일□(一□)으로 장래 기대가 많은 중, 홍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 지방 산액(産額)에 비하여 너무나 소규모요, 둔한 재질(才質)이지만은 여러 분의 편달을 받아 신흥공업(新興工業) 조선(朝鮮)에 있어 우리 산업 상(上) 만(萬) 분의 일(一)이라도 가일층 성장을 시켜보려는 생각입니다. 운운.

매일신보 / 1936.04.22.

강화 부내면에 공장촌 형성, 조양방직회사 등 건설 (1936)

강화 부내면에 공장촌 형성

조양방직(朝陽紡績), 산조(産組), 강직공장(江織工場)

강화 산업계 활황(活況)

[강화] 연산 1백10만원을 돌파하고 있는 강화의 특유한 산업 '강화직물'은, 그 후 일본 내지(內地)의 대자벌회사(大資閔會社) 조선 진출의 반향(反響)인지 모르나 근일 강화도의 산업열은 더욱 고조하여 간다고 한다.

그리하여 강화 부호 홍재목(洪在默), 홍재룡(洪在龍) 양씨의 경영으로 방금 그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조양방직회사와 강화산업조합 경영의 염색 직조 공장, 성일석(成逸錫)씨 경영의 강화직물공장은 강화읍 서부예다 일대 공장촌을 건설하고 있어, 강화 산업계에 일대 활기를 보이고[로] 있어 농가 부업으로의 수직기(手織機)만 제출(製出)하던 강화직(江華織)도 건축 중의 공장 실현과 같이 동력을 이용하는 최신식 기계로의 제품의 개량 품질선택 등으로 외국

산 그것에 비하여 손색 없는 직물을 산출할 것으로 그 전도를 축복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 1936.07.01.

조양방직 준공 (1936)

50만원 자본의 조양방직 준공, 1일부터 영업개시

[강화] 강화의 직물은 4백 년 전부터 재래직기(在來織機) 거좌기(居坐機)로 반포(斑布)와 백목면(白木棉)의 특산으로 유명한 곳이요, 그 전통을 이어 마포(麻布) 인조견(人造絹) 기타 각종의 직물을 수직(手織)하는 중, 현재 전업으로 하는 호수는 3천4백56호, 개량직기(改良織機)가 3천7백5대의 수직기로 매년 인견 마포를 짜서 1백5십만 원 어치를 산출하여 이 산품은 옛날에 반포를 행상하듯이 행상인 남자 8백48인, 여자 2천1백33인이 전 조선에 헤어져서 가가호호에 드나들면서 행상을 하여 팔아 왔는데, 작년 여름에 강화의 루거의 재산가 홍재목(洪在默), 홍재룡(洪在龍) 두 명(兩氏) 외 여러 명(數氏)의 발기로 인견(人絹) 마저포(麻苧布)를 근대적 상품화 하여 공장 생산을 하고자, 50만원에 주식회사로 조양방직회사(朝陽紡績會社)를 조직하고, 인견공장 염색 기타의 원사(原絲)의 설비를 한 후 인견 기타를 생산하여, 각지의 판로를 널리 확장하여 직물 특산지로 유명한 강화로 하여금 방직조도시[紡織都市]라는 말이 나기를 기대한다 하며, 작 이래 사옥(社屋)과 공장 설비도 완성하여 9월 1일부터는 업무를 개시하리라 한다.

매일신보 / 1936.09.02.

조양방직 낙성식 예고 (1937)

50만원을 투자한 조양방직 낙성식, 오는[來] 10일에 성대 거행

[강화] 강화의 직물은 4백 년 전부터 재래직기(在來織機) 거좌기(居坐機)로 반포(斑布) 및 [及] 백목면(白木棉)이 특산으로 유명한 곳이요, 그 전통을 이어 마포(麻布) 인조견(人造絹) 기타 각종의 직물을 수직(手織)하는 중, 현재 전업으로 하는 호수는 3천7백여 호에, 개량직기(改良織機)가 3천7백50대의 수직기로 매년 인견 마포를 짜서[製織] 1백5십만원 어치를 산출하여 이 생산품[產品]은 옛날에 반포를 행상(行商)하듯이 행상인 남자 8백48명, 여자 2천1백33명을 합하면 2천9백81명이 전 조선은 물론 만주(滿洲) 등지까지 헤어져서 가가호호에 드나들면서 행상을 하여 팔아 왔는데 소화17년(1932) 7월에 강화 재산가 홍재목(洪在默), 홍재룡(洪在龍) 외 여러 명(數氏)의 발기로 인견 마포를 상품화하여 공장생산을 하고자 50만원을 투자하여 조양방직주식회사(朝陽紡績株式會社)를 조직하고 인견 공장 염색 공장 사옥 등의 일부는 완성되어 작년 10월부터 내부의 장치 기계 설비를 마치고 금년 1월 1일부

터 조업(操業)을 개시하여 오던 바, 10일을 점지[卜]하여 관계(關係) 관민(官民) 5백여 명을 초대하여 성대히 낙성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순전한 우리의 손으로 된 조양방직회사의 출현은 자타가 모두 그 전도(前途)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대(地帶)가 직물로써 알려진 강화에 있음으로 더욱 전도(前途)가 찬연(燦然)하다. (사진은 신축된 동(同) 회사)

매일신보 / 1937.04.07.

조양방직 낙성식 (1937)

조양방직(朝陽紡織) 낙성식(落成式), 경향(京鄕)서 300여 명 참집(參集)

[강화] 역사적(歷史的) 강도(江都)가 또 산업적(產業的) 강화(江華)로 비약하고 있는 강화도(江華島)는 최근 산업 방면에 괄목상대할 만한 것이 있는 중, 그 중에도 뚜렷한 발전을 하고 있는 직조업(織造業)의 장래는 여기에 기대하는 바 많거니와, 다시 강화의 직조업계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출현한 것은 조양방직주식회사(朝陽紡織株式會社)로서 동 회사는 이제야 본격적 활동을 개시하고자 지난 (4월) 10일로서 성대한 낙성식(落成式)을 동 회사에서 거행하게 되었다.

동 회사의 낙성식에 관하여는 이미 보도[기보]한 바도 있거니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관민 다수의 내빈이 참석[참집]하여 정각까지는 3백여 명의 참석자가 있었고, 동 회사 부사장인 홍재룡(洪在龍) 씨로부터 개회사에 뒤이어 식사(式辭)가 있었다. 그리고 건축보고(建築報告)에 뒤이어 내빈 축사에 들어가 박(朴) 강화군수를 비롯하여, 강화서장, 본사편집국장 류광렬(柳光烈)씨, 유지 10여 씨의 축사가 있는 후, 축전 축문의 낭독으로 동 5시에 식을 폐회하고 일동은 기념촬영을 하고 야외연회(野宴)로 옮겨 의미 있는 동 회사의 장래를 축복한 중에서 무사히 식을 마쳤다. (사진은 기념촬영의 일부)

매일신보 / 1937.04.15.

조양방직 확충계획 수립 (1937)

강화조양방직 확충계획수립, 기계증설 공장증축 등

[강화] 산업 강화의 취진사업가(就進事業家)로 명망 있는 홍재묵(洪在默) 홍재룡(洪在龍) 양씨 경영의 조양방직 주식회사는 소화 11년 9월에 자본금 50만 원으로 창립한 바 그동안 20만 원의 합자를 투하여 공장과 사무실 건축을 필하고 금춘(今春) 그 낙성을 보게 되어 신흥도상(新興途上)에 있는 강화읍의 명물이며 산업 강화도의 총아로 군림하고 있는바 그 후 1차 계획으로 기계 50대를 설치하고 인건을 수출하여 성(盛)히 각지로 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바 현재 제품부족을 보아 방금 일본내지로 직기를 주문 중으로 (순)히 공장의 증

축과 기계의 증설을 하여 부족되는 생산을 완화하리라 하는바 장차 생산50만원을 목표로 매진하리라 한다.

동아일보 / 1937.07.01.

김동식 선생 영세 기념비 (1938)

오정선생 청풍 김공동식씨 영세기념비 (梧庭先生 淸風 金公東植氏 永世紀念碑)
 직물계의 원조로 생전에 업적을 남기셨고 (織物元祖 生前遺蹟)
 교육계의 앞선 스승으로 돌아가신 후에 더욱더 생각나네. (教育先師 逝後益思)
 우리 면 흥왕시킨 일 비석에 새기니 (一片鐫頑 吾面興旺)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모범이 여기에 있네 (萬口同辭 模範在茲)
 소화13년(1938) 10월 일 (昭和 十三年 十月 日)
 하점면 일동이 세움 (河帖面 一同 建)
 비석(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청풍김씨 선산 소재) / 1938.10.

강화도 조양방직 전소(全燒), 손해40여 만원 (1939)

강화도 조양방직(朝陽紡績) 전소(全燒), 손해40여 만원

(1939년 3월) 8일 오후10시 40분경 강화읍(江華邑)에 있는 조양방직회사(朝陽紡績會社) 창고에 불이 일어나 삼시간에 불길은 충천하여 강화서원과 동 소방대는 진화에 필사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웃집 연소만을 겨우 면하고 동 공장은 전소하였다. 손해액은 40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 하며 원인은 목하 강화서에서 조사 중이라는 바, 동 회사는 사변 이래 지나 방면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최근 업적도 대단히 융성하고 있는 중 불의에 금번 이와 같은 참변을 당한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 / 1939.03.10.

반도에 유일한 조양방직주식회사 (1944)

반도(半島)에 유일한 조양방직주식회사

강화읍내에서 굉장한 대(大) 건물을 갖고 있는 조양방직주식회(朝陽紡織株式會社)는 50만원의 대회사로 대동아(大東亞) 신질서(新秩序) 건설에 성전(聖戰)이 발발(勃發)한 이래 급각도(角度)로 □□하는 시세(時勢)의 격류(激流)를 압절(押切)하면서, 직물 사업에 편안할 날 [寧日]이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사(同社) 사장(社長) 고송세현(高松世賢, 舊 李世賢)씨

전무(專務) 고송현일(高松賢一)씨의 중심으로서 직원, 인부(人夫), 여공(女工) 등이 □친화(□親和)의 가족주의로서 총력을 기울여[傾倒] 내려온 결과 동□(同□)의 □□은 오늘에 큰 융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장 고송세현(高松世賢)씨의 □□□□와 사업가적 수완은 근면한 성격과 함께 사업가로서 천(天稟)을 구비하고 있어 오늘의 대성(大成)을 보고 있는 씨(氏)는 사업 경영에 심혈을 경주하는 반면에 경성(京城)에서 다수의 공직(公職)을 겸하고[帶]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不惜] 있다. 씨의 아드님 되시는 고송현일(高松賢一)씨는 솔직□□하고 성근력행(誠勤力行)의 성격은 일반의 신망이 두텁고 이치에 바른 일이면 돌아보지 아니하고[不顧已事]하고 타인을 위하여 일비지력(一臂之力)을 아끼지 않는 의협심도 가지고 있어 민간 지도자로서의 풍부한 천질(天質)은 강화 민간(民間)의 빛나는 존재로 지대한 경모(敬慕)를 받고 있다.

매일신보 / 1944.01.19.

강화 실업계의 대표, 강화직물공장 성일석(成逸錫)씨 (1944)

강화의 산업진(產業陣) 其三

육일승천의 세(勢)로 발전하는 강화방직공장

근년 강화에서 재력으로나 사업의 범위로나 강화 실업계의 대표로 들라면 성산일석(成山逸錫, 舊 成逸錫)씨를 첫 손꼽지 아니할 수 없다. 씨는 파주(坡州) 출생으로 당년 37세의 청년 실업가로 일찍이 경성공업학교를 마치고 강화 산업조합에서 오랫동안 봉직하고 있다가, 웅대한 뜻을 드디어 강화 직물이 비약함에 이르러 현재의 강화직물공장을 개업하여 씨의 고매중후(高邁遠重厚)한 인격과 활달한 성격은 팔면육비(八面六臂)의 전광적(電光的) 활약을 하여 금일에 대성공을 본 것이다. 씨는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방면으로 일층 진출하여 경성에다가 동양사(東洋社), 동화피복공장(東華被服工場), 일진공작소(日進工作所) 등을 경영하고 명실(名實)과 같이 생산보국(生産報國)에 정신(挺身)하고 있는 사업가로 씨가 실업계에 나온 지 불과 10년에 금일과 같은 성공을 얻게 되었으니, 실로 입지전(立志傳) 중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강화의 실업가 중 그 실력으로 보아 가장 크게 기대되는 인물이다.

동아일보 / 1944.01.28.

조양방직 제품, 우량견직물 표창, 국산견직물 전람회서 (1947)

우량 견직물 표창, 국산견직물 전람회서

지난 12월 11일부터 남조선(南朝鮮) 견직물공업조합연합회(絹織物工業組合聯合會) 주최로 동화백화점(東和百貨店)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산견직물(國產絹織物) 전람회(展覽會)

는 지난 17일 절찬 중에 원만히 끝을 마쳤는데, 동(同)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은 해방 후 우리 견직물 공업이 건전한 발전을 하였었다는 것을 여실히 반영시키고 있어, 특히 경기도 내 강화군(江華郡)에 있는 조양방직(朝陽紡織)의 작품은 외래품을 압도할만한 우수한 작품이었음에 비추어, 지난 19일 오후 2시 구(具) 지사실(知事室)에서 각 국과장(局課長) 참석 하에 경기도 견직물공업조합(絹織物工業組合)에 대한 구 지사의 표창식(表彰式)이 거행되었으며, 또한 20일 정오부터는 상무부장실(商務部長室)에서 각 국장 임석 하에 금번 출품된 작품 중 특우등(特優等)을 받은 조선견직회사(朝鮮絹織會社, 부산), 조양방직(朝陽紡織, 강화), 선일견직(鮮一絹織, 수원), 선경직물(鮮京織物, 수원)에 대하여 상무부장(商務部長)의 표창식이 거행되었다 한다.

공업신문 / 1947.12.21.

강화직물공장에 원사(原糸)를 우선 배급토록 건의 (1949)

한발(旱魃) 심한 강화도, 군(郡)에서 구제책 건의

가뭄이 심한 강화군에서 구제책 건의

금년도의 혹심한 한발(旱魃)은 전국적으로 농장물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거니와 강화도에서는 7월을 전후하여 모를 심은 것이 불과 1할5부라는 비참한 상태였으므로 12만 군민은 앞으로 닥쳐 올 기아(飢餓)에 대비하여 수차에 걸쳐 관계당국에 이 사실을 호소한 바 정부에서는 기환치와 농림부 관계직원을 파견하여 실정을 조사하게 하였다 하는데, 이번 강화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제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그의 시책을 기다리고 있다 한다.

1.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畚] 면적 2만5천단(反)을 경작하여 맥류(麥類)로 1만2천 석(石)을 증산할 수 있도록 소요종자(所要種子) 1천5백석과 비료(肥料) 12만5천 관(寬)을 특별히 배부할 것.
- 2.本年度 부족 식량 6만1천6백51석을 보급하여 줄 것.
3. 강화직물공장(江華織物工場)에 원사(原糸)를 우선 배급하여 4천 호의 농민을 이에 종사하게 할 것.
4. 8천호의 농가로 하여금 '가마니'를 짤 수 있도록 원료를 군외(郡外)에서 알선(斡旋)하여 줄 것.

동아일보 / 1949.09.20.

제 2 장 1950년대 ~ 2000년대 직물산업

1) 직물산업의 변화

강화의 직물공장, 결인 하나 볼 수 없는 강화도 (1957)

근면·진취로 자립, 결인 하나 볼 수 없는 강화도

필자는 본도(本道 : 경기도) 일대를 답사한 중에서도 도서(島嶼)로 된 강화군(江華郡)에서 느낀 바를 특히 강조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화군민들의 근면성과 자립심 그리고 진취성이라 함은 본 경기도 뿐 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가 없는 것이며 전 국민이 강화군민 정도로만 모든 면에 있어 진취성을 갖는다면 우리나라 제1등 국으로 비약할 날이 멀지 않으리라고 믿어지고 있는 동시에, 또는 그러한 의미에서 강화군이야말로 ‘한국의 서서(瑞西 : 스위스)’라고까지 호칭하고 싶다. 누구나 강화도에 발을 들여 놓는다면 첫째로 결인 하나를 구경할 수 없는 것이고 이처럼 불경기가 계속되어도 군민들의 표정은 극히 활기를 띄우고 있다.

필자는 동군(同郡 : 강화군) 일대를 답사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각처의 농촌을 역방(歷訪)하는 도중에 15,6세 되는 수십 명의 소녀들이 삼삼오오로 귀가 중인 것을 보았다. 이는 도 내에 산재하고 있는 직물공장에서 야간작업을 교대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도(同島 : 강화도) 내에는 농업 이외에도 각종의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군민은 약 1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미곡 생산은 연간 평균 19만석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직물 생산량은 일일 평균 7백단을 초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양견직(朝陽絹織)과 심도직물회사(沁都織物會社)가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완초 공예품의 연간 생산액은 3천5백만환을 계상하고 있는 이 외(外)에 동도(同島)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마니」수는 연간 약 3백만 매에 달하고 있어, 경기도 전(全) 생산량에 비등한다는 점으로 보아도, 강화군민들이 얼마나 근면한가를 엿볼[窺知]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안재준(安在準) 기(記)

동아일보 / 1957.07.12.

조양견직 종업원, 보험가입으로 혜택 (1958)

보험가입으로 혜택 ‘조양견직’ 종업원

[강화] 조양견직공장(朝陽絹織工場) 종업원 전원은 한달 전에 경영주 부담으로 생명보험[高麗生命共濟保險]에 가입하였는데, 동 공장 직원 이범수(李範洙=34)씨는 동 보험에 가입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최근 병사하였으나 보험금(40만환) 전액을 즉시 지불받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어 화재거리가 되고 있다. 탐문한 바 전기 방직회사 이사 이상표(李常□=43)씨는 회사 직원들의 대우 개선의 뜻으로 작년 12월1일 종업원 전원을 고려생명공제보험에 가입시켰던 것이다. 동 가입에 있어 근속연한에 따라 5년은 50만원구(口), 1년은 10만원구(口) 등으로 나누었으며 불입금은 전부 회사 측에서 부담하여 온 것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 1958.01.09.

심도직물 등, 직물패션쇼 참가 (1966)

직물패션쇼 27일 시민회관서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본 화학섬유협회와 한일섬유산업 친선 및 가공기술향상을 기하기 위해 오는 6월 27일 시민회관에서 각종 직물의 패션쇼를 개최한다. 동 패션쇼에 출품될 직물은 국내에서 14점, 일본에서 48점 등 도합 62점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업자로는 심도직물(沁都織物), 조선견직(朝鮮絹織), 한국모방(韓國毛紡) 등이 참가할 것이다.

매일경제 / 1966.06.15.

완벽추구 ‘반세기 직물공장’ 마영환씨, 대를 잇는 중흥 (1969)

대를 잇는 중흥, 완벽추구 ‘반세기 직물공장’ 마영환 씨

이젠 하루 5필씩 생산, 난초, 봉황무늬 양단 의지로 짜, 아버지가 못 이룬 꿈 신행기계로 ‘올해엔 꼭 직물공업계에서 알찬 인물이 되어보겠다고’ 마영환(馬榮煥) 씨는 새해의 벽찬 꿈에 날개를 편다. 그는 경기도 강화읍 신문리 107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6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평화(平和)직물공장을 경영하는 33살의 패기에 찬 청년사장.

8백 평짜리 공장안에서 최신식 직조기 30대가 우렁찬 소리를 내고 돌며 난초랑 봉황이 곱게 무늬 진 각색 양단을 실 새 없이 짜가고 있는 곳에 마씨는 “직물공업은 100프로 완벽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완벽을 기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다보면 술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면서 그는 “완벽을 쫓다보니 우리 집안은 아

버지 때부터 47년간을 이일에 종사하게 된 모양”이라고 그럴싸한 해석을 달았다.

그의 아버지 마진수(馬鎭洙)씨가 직물공업과 연을 맺은 것은 고향인 경북 선산을 떠나 일본의 후쿠이(일본 최고의 섬유생산지역) 공업학교에 입학하던 47년 전[1922년]의 일.

이 학교를 졸업한 뒤 7년을 두고 일본각지의 직물 공장에서 기술을 닦은 마씨는 27세 때 귀국, 평양의 직물공업시험소 기사를 거쳐 강화의 조양(朝陽)견직 회사 기사로 취임하여 강화에 자리를 잡았다.

‘직물박사’란 별호를 얻으며 조양견직에서 거의 반생을 보내 공장장까지 지낸 마진수씨는 1956년 초 여기저기서 자금을 빌어 평화직물공장을 차리고 독립했다.

“구식직조기 30대를 갖추고 문을 연 공장은 ‘직물공업계의 제 1인자가 되겠다’는 아버지의 열의에 비해 어린 내 눈에도 너무나 초라했다”고 마씨는 그때를 회상한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정말 어려웠다. 구식기계라 24시간 동안 가동한대야 생산량은 얼마 안 되는데 직공 수는 엄청나게 많아 항상 자금난에 허덕였다. “따라서 공장의 대규모화는커녕 신형직조기조차 갖추 수 없어 아버지의 큰 뜻은 노상 허공을 헤매었다”고 지금의 사장은 전대 사장인 아버지의 쓰린 가슴 속을 헤아렸다.

그러나 자유당 말기에서 (1961년) 5.16혁명 직후까지 직물업계에 불어온 호경기를 타고 평화직물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때 동국대 경제과를 졸업한 마씨는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도와 일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1964년부터 마씨 부자는 그렇게도 버르던 시설 대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대산업체로의 탈바꿈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1965년 여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닥친 아버지의 죽음은 공장에 위기를 몰아왔다. 그러나 사장직을 이어받은 마씨의 굳센 의지는 굽힐 줄 몰랐다. 자금난으로 한꺼번에 시설대체를 할 수 없었던 그는 자금을 마련코자 식구들이 끼니를 거르게까지 하였다. 남이 알세라 굶은 체 하지 않고 밤낮 없이 외국서적을 통해 새 지식을 얻는 등 일과 공부에 온 정력을 쏟았다. 이러다보니 이웃과 사귀지 못해 따돌림까지 당했다. 그러나 이렇게 버티어온 그의 의지는 1966년 말 신형염색기를 구입함으로써 열매를 맺었다.

대체된 신형직조기 30대는 아버지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하루 평균 5필의 양단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1천2백필의 양단과 양장지를 생산, 약 1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그는 자신의 업적이 대견하기만한 듯 긴 한숨을 몰아쉰다. 마씨는 한때 생산량을 줄이면서까지 철따라 신용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왔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동안 철저한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1969년 사업을 2배로 확장, 쓰지 않던 신형직조기 10대마저 돌려 더욱 넓게 아버지의 뜻을 펴 보이겠다.”고 자신이 만만하다. 8식구의 가장이기도 한 그는 “우리 집이 잘되면 결국 나라도 잘 되는 게 아니냐.”면서 “100%의 완벽을 요구하

는 직물공업에 내 삶의 100%를 알차게 바치겠다.”고 기유년의 새 달력 앞에 스스로 다짐했다. [강화 - 황병렬 기자]

경향신문 / 1969.01.04.

강화의 섬유공업 (1976)

섬유공업

강화 직물의 연혁을 보면 이미 4백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에는 거좌기(居座機)로 반포(斑布) 및 백목면(白木棉)을 짜내었으나 약 60년 전[1910년대] 직물에 착안한 선각자 김동식(金東植)이 직기를 개량하는 동시에 대대적으로 생산을 보급 장려하는 한편 선전에 주력하여 강화 비단의 질을 높이고 공장을 건설하여 많은 직물을 생산했다.

그러나 당국도 이 방면에 유의하게 되어 1916년 정혜채(鄭惠采)의 노력으로 강화직물조합이 설치되고 품질 개량에 주력하는 한편 국고 보조를 얻어 공동 작업장을 건설하고 화문석(花紋席) 업자까지도 이 기회에 사업을 조장시켰다.

그 후 1921년 강화직물화연조합으로 개편했다가 1923년에 폐지되고, 1931년에 당시 도 평의원 황우천(黃祐天)이 강화산업조합을 창설하여 더욱 활발했었다. 이때의 제품은 인견 교직포가 수위이고, 다음이 마저포였다.

해방과 더불어 동 조합의 활동이 부진하게 되어 1962년에 해산되었다. 조합이 해산한 뒤로는 각자 공장을 경영하여 현재와 같은 직물 산지로 유명해졌다.

현재 가동 중인 각 업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심도(沁都)견직공업주식회사

전 국회의원인 김재소(金在紹)가 출자 경영하는 업체로 현재 역직기 210대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1천2백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견직물은 국내는 물론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 이화(二和)견직공업사

1953년에 남궁형(南宮鑿)이 설립하였으며 강화읍 관청리에 있다. 공장부지 2천7백평, 건물 16동에 공장 건평 950평, 역직기 56대, 종업원 3백여 명의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 조양(朝陽)방직주식회사

1937년에 홍재묵(洪在默)이 설립하였으며, 강화읍 신문리에 있다. 그 후 1942년 이세현이 인수한 뒤 공장을 증축하는 동시에 기구를 일신하여 한 때 견직업계의 거성으로 군림했었으나, 6.25 동란 이후 부진하더니 1958년에 문을 닫았다.

▲ 경도(京都)직물

강화에서는 역사가 깊은 기업으로 직기 70대를 가진 중소기업이지만 연중무휴로 조업하는 전설한 업체이다. 동 공장의 대표자인 박창국(朴昌國)은 어려서부터 각고 장려한 사람이며 지금은 장남 박영묵(朴暎默)이 활약하고 있다.

▲ 남화(南華)견직

황순신(黃順申) 여사 자매가 10여 년 전[1950년대]부터 경영하는 견직공장으로 날로 확장하여 역직기 30대에 1백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공장도 2층으로 증축하여 경향의 직물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인 황여사는 50세의 패기만만한 여사장으로 이채를 띠고 있다.

▲ 평화(平和)견직

1953년에 견직물 기술의 권위자인 전 조양방직회사 공장장이던 마진수(馬鎭洙)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방직기 30대에 종업원 1백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마사장이 사망한 뒤 그 유업을 장남인 마영환이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 동광(東光)직물

수년전에 선원면 창리에서 면직으로 출발하여 1963년에 강화읍 신문리 윤만식의 공장을 매입하여 확장 증축하는 한편, 역직기도 증설하여 80대를 보유하고 종업원 2백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동 공장의 대표자인 석상원(石相元)은 청년 실업가로 장래가 촉망되고 있다.

▲ 경화(京華)방직

전 조양(朝陽)방직주식회사 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1956년에 경화방직이 창설되었다. 직기 150대로 특수면직을 생산하며 4백여 명이 종업하고 있다.

강화군내 섬유공업(纖維工業) 현황(1975년 현재)

공장명	가동 기술자	종업원수				기계 대수	생산 품목	생산량	대표자
		기 사	남	여	계				
심도(沁都)직물공업주식회사	2	30	48	291	371	132	견직물	30,000m	김재기
유신(維新)산업주식회사		7	18	112	137	181	면직물	75,000m	한설희
동진(東珍)직물공업주식회사	2	10	22	145	177	64	견직물	32,000m	김명선
동광(東光)직물공업사		3	12	56	81	80	면직물	35,000m	양옥순 주간작업
경도(京都)직물공업사		2	10	44	56	80	면직물	34,000m	박영묵 주간작업
남화(南華)직물공업사		5	20	110	135	41	견직물	17,500m	황순신
동아(東亞)직물공업사		3	7	27	37	44	면직물	30,000m	김진국 주간작업

임성(林成)직물공업사		4	13	57	74	50	면직물	29,500m	최영옥
한일(韓一)직물공업사		5	6	49	60	50	견직물	34,700m	윤정남
삼화(三和)직물공업사		2	5	33	40	42	면직물	27,000m	권태석 주간작업
성일(成日)직물공업사		4	9	27	40	12	견직물	5,150m	안병문
유현(維炫)산업주식회사		4	1	21	26	20	견직물	23,000m	김준희
세방직물공업사		2	1	10	13	12	면직물 (덥프)	100,000m	
신성(新盛)화학섬유공업사		2	7	32	41	28	PP 천막지	180,000m	박명국 주간작업
평화(平和)직물공장	1	3	5	25	34	28	견직물	10,700m	마영호 주간작업
계		5	96	184	1,033	1,308		864	669km

군소 공장 일람

소재지	공장	대표자
송해	송광직물공장	김현기
	대원직물공장	이대수
하점	동명직물공장	고원진
	형제직물공장	심상일
	현대직물공장	조윤진
	광동직물공장	이순찬
양사	동양직물공장	서창희
불은	한양직물공장	한재근
송해	송해직물공장	전의준

<강화사>568-569쪽 1976.02.26.

집념(執念)의 「쌍과부」 직물공장, 남화견직 (1978)

신팔도기(新八道紀) 강화(江華)①

(부분 생략)

“이곳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가내부업이 발달한 것은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요. 농사가 시원찮아 먹고살기 힘들니까 남자는 멀리 개성까지 인삼밭 품팔이 나갔고 부녀자들은 비단 짜기, 아이들은 화문석 만들기로 살림을 도왔지요.” 이곳 재벌 쌍과부의 설명이다.

6.25때 남편을 잃은 뒤 인조견행상으로 근근이 모은 돈으로 쪽딱직조기 8대를 사 인조견 공장으로 시작, 지금은 쌍과부 직물공장으로 불리는 남화(南華)견직을 세워 억대의 여성재

별이 된 황순흥(黃順興) 황순신(黃順申) 두 부인은 멀리 북간도까지 비단 화문석행상을 벌였던 강화(江華)여인들의 후예로서 손색이 없다. 「넉살좋은 강화년」이란 말은 이처럼 생활력이 강한 강화 여인들은 시기해서 나온 말인 듯 싶다.

대소(大小) 직물공장 24개.

남화(南華)견직 말고도 강화엔 김재소(金在紹)씨가 경영하는 심도견직, 홍재묵(洪在默)씨가 세운 조양방직, 박영묵(朴暎默)씨의 경도직물, 마진수(馬鎭洙)씨의 평화직물, 동광직물, 경화방직 등 24개의 크고 작은 직물 공장들이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견직물은 연간 1천km, 종업원 수만도 2천여 명. (이하 생략) <장봉진기자>

동아일보 / 1978.05.19.

명물 화문석은 집념의 상징 (1978)

신팔도기(新八道紀) 강화(江華)⑤

명물 화문석은 집념의 상징

“구슬을 꿰는 듯 오색왕골 엮는구나. 눈마다 저렇듯이 손이 닿고 공드는 줄, 호사로 마구 까는 이 알려주고 싶어라”(육당 최남선의 「강화기행 양오 화문석」에서).

연간 1억여 원의 생산고를 올리는 이곳 특산물 화문석의 본고장은 하점면과 양사면.

화문석 짜기 80년. 화문석이 이 고장에서 발상된 것은 80년(?) 전의 일. 당시 이조 왕실에서 백색 돛자리를 개량, 화문석을 만들도록 명했으나 아무도 이를 만들지 못했다. 그때 하점면 양오리에 살던 불과 열여덟 살의 한충교(韓忠敎)란 소년이 처음으로 화문석을 짜는데 성공, 왕실에 진상한 것이 시초. “화문석은 집념과 인내와 부지런함을 보탠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이 화문석이 개발된 것은 이곳 사람들의 끈질김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화문석은 그야말로 강화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을 졸업, 지금 고려대학 의대교수로 있는 이곳 토박이 황우익(黃祐翊, 43)씨의 말. (부분 생략)

일제 때 처음으로 강화직물화연(花筵)조합을 창설, 화문석을 일본 등지에 수출한 정혜채(鄭惠采)씨는 이 곳 정씨 문중의 뿌리. 정혜채씨가 대일수출. (부분 생략)

“예전엔 이 마을이 몹시 가난했다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화문석 아니면 죽담기로 비단을 짜서 먹고 살았답니다. 나중에는 동네사람들이 독을 막아 농토를 만들어 끼니걱정을 면했다고 하더군요.” 매립사업을 맡고 있는 이 곳 토건회사대표 이상권씨의 말. ... 이 고장 옛날 집들의 안방이 대부분 「ㄴ」형으로 돼있는 것이 특색, 튀어나온 골방은 겨울에도 화문석을 깔 수 있는 작업실로 만들어진 것. 주민가운데 60%가 요즘도 부업으로 화문석을 짜고 있다.

(이하 생략) <장봉진 기자>

동아일보 / 1978.05.25.

화문석 장인과 직물회사 대표, 내 고장 사람들-강화군 (1990)

내고장 사람들-강화군

(부분 생략)

화문석이 고려시대 이후 강화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토산물의 전통을 이어 온데다 몇몇 뛰어난 장인들에 의해 품질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한정순(韓貞順, 49)씨를 비롯, 정화숙(鄭花淑, 45) 한상무(韓相武, 42) 박화영(朴華榮, 33) 김해련(金海蓮, 32) 박찬례(朴贊禮, 26) 박순옥(朴順玉, 25)씨등 7명을 화문석기능인으로 지정했다. 최연장자인 한정순씨(하점면 이강리)는 화문석을 최초로 제작됐던 송해면 양오리 출신으로 아버지를 이어 2대째 강화 전통을 잇고 있다.

19세에 완초(莞草)를 만지기 시작, 월 7×10자짜리 화문석 1장씩을 짠다는 그녀는 ‘부수입 수준이지만 그보다는 고장의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에 손끝은 가볍다.’ 라고 말한다. 현재 화문석 제조 참여 농가는 4천6백93가구, 종사원은 6천9백71명(남1천5백93명·여5천3백81명)으로 연간 생산량은 화문석 4만5천여 점을 포함, 화방석 꽃삼합 소품 등 12만6천여 점. 완초공예조합 김상복(金相馥, 51) 조합장은 『한양대 남상교 교수의 자문을 얻어 대나무 난초 복주머니 학 등을 도안하고 현대적인 염색기술을 도입 강화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자랑.

(부분 생략)

심도직물대표 김의신(金義信, 45 강화읍 관청리 394)씨는 낙후된 산업 환경에서 강화사람만을 채용, 대를 이어 한때 이곳의 특산물이었던 직물생산을 고집하는 사람. 김씨는 부친 김재소(金在紹, 8대 국회의원)씨에 의해 창업돼 한때 1천5백 명의 종업원을 거느렸던 회사가 나일론의 등장으로 연간 외형 60억 원의 소규모업체로 전락했으나 현 직원 1백50여명의 90%를 차지하는 강화 사람 보호와 강화 기업이 될 것을 결심, 고장을 지키는 기업의 길을 걷고 있다. ‘어려울 때 고장을 떠나는 것은 쉽다’고 말하는 김씨는 처녀시절의 기능공을 주부기능공으로 다시 받아들일 정도다. (이하 생략) <강화=주길치(朱吉治)기자>

경향신문 / 1990.01.01.

강화도 직물산업 (2015)

강화도 직물산업

빛 발한 옛 공장엔 빛 바랜 옛 굴뚝만, 아쉬운 ‘과거의 영광’

日강점기부터 발전... 전국 각지서 물건 판매, ‘대구와 맛먹는 위상’ 1200명 교대근무 복직 석유파동 등 악재 1970년 중반부터 내리막, 열악한 근로환경에 천주교 노동운동 오점

강화도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직물(織物) 생산지로 유명세를 떨쳤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메카였던 대구와 어깨를 견줄 만큼 그 위상도 대단했다.

현재 강화도에는 과거 직물공장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한 때 이곳에는 30여개 직물공장이 몰려 있었고 수천 명의 공장 노동자가 거주했다. 지난 12일 강화도 강화읍 관청리 용흥궁 공원 인근의 심도직물 공장 터를 찾았다.

심도직물은 매일 1천200여 명의 노동자가 기계에 매달려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를 해야 했던 강화의 대표적인 직물공장이다.

지금 이곳에는 30m가 넘었다는 심도직물 공장 굴뚝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 굴뚝은 심도직물 공장 부지에 ‘강화도령’ 철종이 살았다는 용흥궁 공원이 조성되자, 심도직물을 기억하는 강화읍 주민들이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과 함께 지난 2008년 세워둔 것이다.

‘강화직물산업 역사의 현장 심도직물을 기념하며…’라고 적혀 있는 강화군의 안내판에는 1970년대 심도직물 거리의 전경 사진과 함께 공장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다.

‘심도직물은 1947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됐던 국내 굴지의 섬유회사로 1960~70년 직원이 1천200명 정도였고…(중략)…인천의 대우자동차(현재 한국지엠) 같은 존재로 강화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심도직물을 중심으로 동광직물·이화직물 등 크고 작은 직물업체가 모여 있었다.’

▲ 강화도 직물산업의 성장과 쇠퇴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강화읍 거리는 하루 2번 찾아오는 직물공장 교대시간에 맞춰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앳된 얼굴의 여공들로 넘쳐났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여성들은 시집가기 전까지 강화 직물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이북 개성에서 내려와 18살 때부터 직물공장에서 일했다는 윤준혁(84)씨 “가진 것 하나 없이 강화에 내려와 직물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자녀 셋을 모두 시집·장가 보냈다”며 “퐁족 하진 않았지만 강화읍내 주변 사람들은 거의 직물공장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화에는 일본 강점기부터 거의 모든 가정에 ‘족답기’라는 수동식 베틀이 있었다. 이 베틀은 농한기 강화의 주요 소득원이 됐는데 주로 여성들이 직물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생산된 인조견 등의 직물을 판매하는 것도 여성들의 몫이었다. 강화의 여성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이 직물을 팔러 다녔다고 한다.

1976년 강화문화원이 펴낸 <강화사(江華史)>에는 산업으로서 강화의 직물제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있다. <강화사>는 ‘강화직물의 연혁을 보면 4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중략) 60년 전 직물에 착안한 선각자 김동식(金東植·1877~1938)이 직기를 개량하는 동시에 대대적으로 생산을 보급 장려하는 한편 선전

에 주력해 강화비단의 질을 높이고 공장을 건설해 많은 직물을 생산했다’고 설명한다.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3 부근 청풍 김씨 선산에는 1938년 숨을 거둔 김동식의 묘와 이 마을 사람들이 세운 ‘영세기념비’가 있다.

비석에는 ‘직물원조(織物元祖)/생전유적(生前遺積)/교육선사(教育先師)/서후익사(逝後益思)/일편전완(一片鏘頑)/오면흥왕(吾面興旺)/만구동사(萬口同辭)/모범재자(模範在茲)’라고 새겨져 있다.

김동식 선생이 직물산업의 원조이고 교육에 있어서도 선구적 스승이었으며, 생전의 업적은 돌아가신 후 더욱 생각나게 하고 하점면을 흥하게 했음을 만인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공업 형태이던 강화의 직물산업은 강화지역 실업가인 홍재묵·홍재용 형제가 1933년 조양방직 주식회사를 세우며 근대적 기틀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듬해에는 강화에 처음 전기도 들어오게 됐다. 조양방직은 1942년 삼정물산 출신 이세현에게 인수된다. 이후 강화에는 심도직물·십자당·이화직물 등의 업체들이 차례로 들어선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강화직물업체는 심도직물 김재소 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1963년 강화직물협회를 구성하며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린다. 강화직물 산업은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정부의 합리화 정책 등으로 점차 침체를 맞는다.

초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던 박영목(77) 전 경도직물 대표는 강화도의 섬유산업이 대구에 비교해 뒤지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고 기억했다.

그는 “정부가 직물이 과잉 생산 된다면서 방직기를 폐기하면 대가로 현금을 보상해 주고 그랬다”며 “방직·방직·가공·의류제조 등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생산체계를 갖춰 경쟁력을 갖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도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 강화 직물산업의 그늘

강화도의 직물산업이 지역 사회에 효자 노릇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용흥궁 공원에 남아 있는 ‘심도직물 굴뚝’ 바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심도직물을 기억하는 다른 조형물을 찾아 볼 수 있다.

1965~1968년에 강화도에서 일어난 ‘심도직물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세운 비석이다. 심도직물 사건이란 한국 천주교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첫 사건으로 가톨릭 노동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91년 간행된 천주교 인천교구사에는 이 사건이 ‘강화군 천주교신자 고용 거부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돼 있다. 1965년 9월 강화성당에 전미카엘(미카엘 브랜스필드, 1929~1989) 신부가 부임했다.

이미 미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노동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 신부는 강화지역

의 노동 현실을 지켜보며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현실적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전 신부의 눈에는 강화의 직물공장 여공들은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외톨이나 다름없었다.

어린 소녀들은 밤샘 작업에 시달리며 코피를 쏟는 일이 잦았고, 끊임없이 기침을 해댔고, 몸은 바싹 말라있었지만 교회는 그동안 이런 현실에 무관심했다.

그의 취임 2개월 후인 1965년 11월 강화성당에는 심도직물 여공들을 참여시키는 가톨릭 노동청년회(가노청)가 만들어졌고 1967년 5월 14일에는 심도직물에 처음으로 300명이 참여하는 노조가 만들어졌다. 회사는 지속적인 노조 와해 작업을 펴고 조합원을 탄압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이듬해인 1968년 1월 4일 심도직물 사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당시 노조 박분양 분회장을 해고했다. 박 분회장은 사측이 내세운 인물이었지만 분회장 당선 이후 오히려 조합원들 편에 섰다. 심도직물을 비롯한 강화도에 있는 21개 직물회사는 ‘가노청 회원을 절대 고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했고 주교단은 1968년 2월 9일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놓으며 노동자를 지지했다.

결국 심도직물이 속한 강화 직물업자협회는 가노청 회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을 약속하며 마무리됐다.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장은 “심도직물 사건은 196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노동자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을 때 교회가 처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글=김성호기자·사진=조재현기자

경인일보 / 2015.06.18.

황해도 벽란도 출신 이춘화 할머니가 일했던 심도직물 (2017)

‘포화 속으로’ 네번의 피란길... 강인한 女工 밑천이 되다

1950년 겨울, 일곱식구 인천 화수동 거쳐 안산행

10대 때 ‘인천노동사 큰 의미’ 심도직물 공장 취직

[사진 : 최근 경인일보 취재진과 함께 강화도 용흥궁 공원에 있는 심도직물 터를 찾은 이춘화 할머니가 심도직물 굴뚝을 배경으로 이곳에서 일했던 10대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으로 유명한 황해도 연백군 해월면 ‘벽란도’ 출신 이춘화(83)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무려 4번이나 피란살이를 했다. 그 뒤 10대 여공생활을 거친 할머니는 인천 동구 일명 ‘양키시장’에서 50년이 넘도록 옷 장사를 하고 있다. 4번의 피란과 10대 중반

에 시작한 직물공장 여공생활, ‘양키시장’에서의 좌판 장사까지, 이춘화 할머니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원더우먼’의 삶 그 자체다.

이춘화 할머니가 처음 피란을 나온 것은 1950년 겨울이었다. 벽란도 옆 ‘고미포’에서 돛 단배를 타고 인천 화수동으로 왔다. 부모와 오빠 둘, 여동생 둘, 일곱 식구가 쌀이며 짐을 배에다 싣고 나왔다. 인천에서 오빠들은 학도병으로 지원 입대했다. 인천에서 머문 시간은 며칠 되지 않는다.

중공군이 인천까지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경기도 안산까지 두 번째 피란을 떠났다. 국가기록원의 ‘6·25전쟁 제 3단계’를 보면 유엔군은 1951년 1·4후퇴로 평택-삼척 선까지 철수했다. 할머니는 안산 ‘무찌리’라는 동네에 있는 민가 뒤 방공호에 숨어 있었는데, 피란지가 전쟁의 중심부였다고 기억했다.

방공호에 있으면 온종일 미군 비행기 썩썩이가 오가고 포탄이 떨어졌다. “피란을 간다고 한 건데 거꾸로 전쟁 속으로 들어간 거야, 아침에 (방공호에서) 나오면 포탄이 말이야 마당으로 한가득이야.” 이때 할머니의 어머니가 그만 포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말았다.

할머니는 당시 안산에서 중공군이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도 목격했다. “중공군은 겨울이라 위장을 하려고 그런지 하얀색 이불을 뒤집어쓰고 왔어. 사람 수가 많아 보이려고 했는지 팽과리를 치고 난리인데 어찌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림 : 이춘화 할머니 피란길 이동경로]

할머니가 피신한 마을에는 인민군들도 내려왔는데, 주민들에게 큰 해코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마을 주민과 한 인민군 장교가 잘 지냈다. 마을 주민들은 인민군에 밥을 해주고 사이 좋게 지냈다고 한다. 고마움을 느껴서인지 이 인민군 장교가 할머니 가족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다.

안산에서 전투가 계속되니 차라리 다시 인천으로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였다. 자신들은 수색(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일원)을 거쳐 서울로 갈 것이라며 자신과 방향을 달리해 인천으로 가면 무사할 것이라고 했다.

“교회를 다니는 인민군이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인천으로 가는데 산 쪽으로 가지 말고 밭이나 논두렁 가운데로만 가라고 했어. 길 양 끝에는 폭탄을 묻었다는 거야. 근데 진짜로 3일인가 있었는데 산에다 엄청나게 퍼붓더라고. 그 인민군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피란했지.”

할머니 가족은 인천에 있다가 먹고살 길이 막막해 도로 고향에 들어갔다. 이북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했다. 화수동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 초지로 갔다가, 벽란도와 가까운 산이포까지 걸어간 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벽란도 고향으로 갔다. 세 번째 피란이었다.

할머니는 “이북에 가니까 다 말짱했다”고 했다. 고향에 간 할머니 가족은 예전처럼 농사를 지었다. 농사는 1951년 1~2월부터 6월까지 계속됐다. 그러다 인민군들이 너무 괴롭혀 어쩔 수 없이 네 번째로 다시 강화도로 피란을 나왔다는 것이 할머니의 얘기다.

인민군은 할머니 가족이 '이남 사람'이라며 분산 배치했다. 할머니는 동생과 함께 해주 근방까지 걸어가야 했다. 인민군은 벽란리 근처 '방개월'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돌씩 나눠 갈 곳을 말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소총 개머리판으로 찍어 내리고는 했다. 할머니는 여동생 한 명과 한 조를 이뤘다. "왜정 때보다 더 많이 뺏어갔어. 거기다 계속해 강제로 교육을 받게 하고, 가족까지 나눠서 가라고 해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할머니가 강화도로 다시 피란을 나올 때는 강화도에 있던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 밀선을 탔는데 강화도에서 안전한지를 신호로 알려줬다. "강화도에서 햇불을 두 번 들면 '적군이 있다'는 얘기였고, 세 번을 들면 '아무도 없다'는 식이었지. 강화도 신호랑 물때랑 맞춰서 그렇게 강화도로 다시 갔어. 전쟁 속을 들어갔다가 전쟁 속으로 다시 나왔어. 전쟁 마당 마당 다 돌아댕겼네."

4번째 피란 이후 이춘화 할머니는 강화도의 심도직물 공장에 다녔다. 할머니 나이 16~17살 때였다. 지난 7월 21일, 할머니와 함께 강화도 용흥궁 공원에 있는 심도직물 터를 찾았다. 할머니가 심도직물 터에 발을 디딘 것은 66~67년 만의 일이다. 할머니는 '첫 직장' 심도직물 터 곳곳을 둘러보면서 잊고 지냈던 기억을 더듬었다. "심도직물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나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공원으로 바뀌었네, 그려."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선원면에 살았는데, 매일 왕복 20리(약 8km) 길을 걸어 다녔다. 지금은 심도직물 터에 굴뚝만 남아 있는데, 그 옆의 비석에는 '이곳은 1947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굴지의 직물회사로 명성이 높았던 심도직물(주)이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 있다.

할머니는 일할 당시(1953년 추정) 심도직물의 공장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기억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할머니가 일했을 때보다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1959년에 나온 '경기사전(京畿事典)'을 보면 심도직물공업사의 소재지는 강화면 관청리 394이고, 종업원수는 230명으로 돼 있다.

강화군청이 심도직물 터에 설치한 표지판에는 60~70년대에 직원이 1천200명 정도였고 거쳐 간 사람들 수만 해도 1만명이 넘었다고 한다'고 돼 있다. 강화문화원에서 1976년 발행한 <강화사>는 심도직물, '심도(沁都) 견직 공업 주식회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전 국회의원인 김재소가 출자 경영하는 업체로 현재 역직기 210대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1천2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견직물은 국내는 물론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심도직물은 인천 노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에서 펴낸 '인천민주화운동사 연표'를 보면 1967년 5월 14일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조합(전국섬유노동조합 직할분회)이 결성된 이후 천주교 인천교구와 함께 해고 노동자의 복지투쟁 등이 전개됐다. 천주교 인천교구 한상욱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은 "심도직물 사건은 한국 천주

교가 사회참여를 시작한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로마교황청과 연계해 한국의 노동 문제를 국제 문제로 확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도직물 공장은 설립 초기였는데도 최신 기술이 도입돼 기계로 '뉴퐁(비단의 일종)'을 짰다고 할머니는 기억했다. '우리 옷감이야기 103(교문사)'이라는 책을 보면 1950~60년대 인조 뉴퐁 생산이 이뤄지면서 의복용으로 많이 사용됐다. '현대패션 110년'이란 책 역시 "1950년대 옷감은 한복감으로 고급에 속했던 실크, 즉 뉴퐁이 인기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할머니는 당시 뉴퐁을 짜는 기계의 실이 끊어지거나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일을 했다. "공장에는 이복출신이 많았고, 강화 본토박이도 있었어. 직원은 한 20명 정도 됐어. 당시 대부분 손으로 옷감을 짰는데, 기계가 짜는 것은 처음 봐서 신기했어. 뉴퐁을 짜면 돌돌 말아서 서울 종로 4가에 가져다줬다고 해. 거기서 한복하고 이불껍데기하고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

[사진 : 인천 연중기획 실향민 이춘화 할머니 강화 심도직물터. 인천 강화도 용흥궁 공원에 있는 심도직물 굴뚝. 강화군은 지난 2005~2008년 심도직물 터에 공원을 조성했고, 30미터에 달했던 굴뚝의 끝부분을 따로 남겨 심도직물을 기념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심도직물 터를 찾은 할머니는 완전히 10대의 추억에 젖어들었다. 할머니는 심도직물 외에도 여러 직물 공장이 강화도에 있었다고 기억했다. 당시 강화도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다.

1916년 이미 강화도에는 강화직물조합이 설치되고 공동작업장까지 건설됐다. 강화도에는 심도직물 외에도 큰 섬유회사가 많았는데, 1975년 기준으로 회사는 15곳이었고, 전체 종업원수는 1천308명, 기계는 864대에 달했다고 '강화사'는 기록하고 있다.

강화도는 섬유산업 중심지 자리를 놓고 대구 등과 경쟁을 해야 했다. 할머니도 심도직물에서 1년 정도 일하다 다른 여공들과 함께 대구로 내려갔다. 대구 침산동에 있는 '경방방직'이라는 업체였다. 이곳도 기계로 뉴퐁을 짰는데 강화도 심도직물에 비해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대구에서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제일모직을 설립했다.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인 '호암자전'을 보면 1954년 9월 대구에 제일모직이 설립됐고, 1956년에는 염색 가공공장이 준공했다. 할머니는 대구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서울 청량리에 있는 한국 최초 나일론 공장 '태창방직'에서 2~3년 일했다.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한 축을 형성했던 섬유산업의 중심에 이춘화 할머니가 있었다. /글 홍현기기자, 사진 임순석기자

경인일보 / 2017.08.03.

2) 노동운동

심도직물, 가톨릭 신도 집단해고의 진상 (1968)

탄압받는 종교의 자유, 심도직물 가톨릭 신도 집단해고의 진상

발단 노조 결성 방해, 천주교 건물 빌어 모이자 신부사상(神父思想) 불온하다고

강화도 심도직물회사(대표=金在紀, 56)가 천주교 신자 8명을 부당 해고한 사건은 가톨릭 신자가 말하듯 음성적인 종교박해란 인상을 짙게 해 사회문제로 번졌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천주교 주교단은 7일 하오 이례적인 회합을 갖고 부당 해고된 신자를 즉각 보직시킬 것과 이 사건에 관련, 성직자를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한 강화경찰서 간부의 공개 사과 등 3개 항을 결의했다.

한국가톨릭의 최고의결기관인 주교회의가 노사문제에 관련, 비상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박(朴)모양(21) 등 8명의 천주교 신자가 노조결성을 했다고 회사 측에서 해고한 것은 지난 1월 4일, 1천2백명의 고용인을 수용하고 있는 심도(沁都)직물에 노조가 결성된 후 회사 측은 노조와의 단차 협약을 이유 없이 거부해 오다가 지난 1월 4일 노조분회장인 박(朴)양의 해고 이유를 캐기 위해 천주교회 부속건물인 근로자 센터를 빌어 집회를 한 것이 천주교 신자 무더기 해고의 실마리였다. 경찰의 집회 허가를 얻어 소집한 이날 회의는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 강제 해산을 명하고 천주교 신자 5명을 가려내자 호지부지됐다. 강화 경찰은 그 후 일주일 간 노조원 중 천주교 신자만을 골라(연인원 30명) 매일 소환 심문했던 것.

○ 7일 상오 10시 경 심도(沁都) 회사 측의 실권자이며 공화당 국회의원 김재소(金在紹) 씨와 회사 대표 김재기(金在紀) 씨, 강화경찰서장 및 동서 정보계장 등 4명이 성당에 들어와 주일미사를 집전하던 전(田) 미카엘 신부를 불러내 노조원의 집회에 장소를 제공했다고 항의, “노동자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했다”, “반공법으로 당신을 입건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한편 심도(沁都) 측은 다음날 현지 직물업자회의를 소집, 강화도 소재 21개 직물회사는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을 일체 고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결의, 현재까지 상호직물의 최(崔)항준 씨 등 6명을 해고한데 뒤이어 이화직물도 천주교 신자 2명을 해고하는 등 사태가 잇따라 나고 있다.

○ 사건 이후 천주교 인천(仁川) 교구에서는 조사단을 구성, 회사 측에 천주교 신자의 복직과 고용을 교섭해 왔으나, 회사 측의 거부로 복직이 막히고 있는 실정.

천주교 주교단은 이 사건이 헌법에 보장된 결사 및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고 결의,

회사 측이 복직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정 투쟁도 서두르고 있다고 서울교구 윤공희(尹恭熙) 주교가 밝혔다.

경향신문 / 1968.02.10.

강화직물계의 노사분규 (1968)

아쉬운 기업의 아량, 강화직물업계 노사분규.

복직(復職) 합의 일단 수습, 신부(神父) 비난에도 사과

노조(勞組)에 대한 견해차는 아직도

강화도 내 인조견 직물공장 기업주들과 천주교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졌던 심도(沁都) 직물 등 강화도 내 3개 직물 공장 고용원 해고 사건은 지난 19일 21개 직물공장 대표들이 지상을 통해 “전(田) 미카엘 신부가 노조 결성을 선동하고 노동자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불어 넣었다 운운한 것은 전 미카엘 신부를 오해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사과함으로써 일단 무마되었다.

문제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처리. 심도직물에서 지난달 4일 해고된 박부양(朴富陽, 31)씨의 경우 회사 측에서는 박씨가 지난해 11월 준비부장에 취임, 중역 대우를 받았었는데 무단결근 등 회사에 해를 입혀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박씨는 회사 측의 양해 아래 분회장과 준비부장을 겸직, 노조활동에 계속 열성을 보이므로 준비부장 직을 교묘히 이용, 해고한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경향신문 / 1968.02.21.

강화도 S직물은 일당(日當) 30원에 혹사 (1968)

시급한 최저임금제, 쟁의(爭議) 총45건 발생

강화도 S직물은 일당 30원에 혹사

최근 낮은 임금으로 인한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있음에 비추어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요청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발생한 노동쟁의만도 18일 현재 45건에 5만6천여 명의 노동자가 쟁의에 참가하고 있는데, 쟁의의 대부분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쟁의가 계류 중인 강화도의 S직물은 섬유노조에 의하면 일당 30원의 낮은 임금을 받는 여공이 있고, 역시 쟁의의 걸려 있는 전남 소재 H직물의 경우에도 일당 45원의 낮은 임금을 받는 여공이 있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낮은 임금에서 근로자들을 구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청은 현행법상으로도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시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현재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동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경우에서와 같이 최저임금제도 대기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현재와 같이 물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제도의 실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은행이 67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산업별 임금(월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석탄광업=1만1천7백원 ▲ 금속광업=1만6백원 ▲ 토사(土砂)채굴업=8천4백원 ▲ 염업·비금속광업=6천9백원 ▲ 식료품제조업=8만원 ▲ 섬유제조업=7만원 ▲ 식료품제조업=7천2백원 ▲ 의류·장신품=6천5백원 ▲ 가구및장치품=6천8백원 ▲ 화학제품=1만1천2백원 ▲ 제1차금속=1만1천2백원 ▲ 석유·석탄제품=9만원 ▲ 피혁제품=6천3백원 ▲ 기타제조업=6천1백원 ▲ 전기업=1만8천4백원 ▲ 광업평균=1만2백원 ▲ 제조업평균=1만2백원 ▲ 광공업평균=8천3백원

매일경제 / 1968.06.19.

악화 일로의 강화 노조사태 (1968)

악화일로의 강화 노조사태

기업주 ……새로 무더기 해고 처분

노조측 ……혈서, 취업거부로 맞서

(기보) 강화섬유 노조 분규는 심도(직물) 분회장 박부양 씨와 상호직물 분회장 한재후 씨가 중앙 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단락을 지우고 원만한 노사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양 회사는 노동위원회 판결을 무시하고 양인의 복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불복항소 하는 한편 상호(직물)에서는 8월 27일 30여명의 근로자들을 회사 운영난을 이유로 무더기 해고 조치함으로써 사건은 악화일로로 달리고 있다.

8월 9일 경기도 노동위원회로 한재후 씨의 복직명령이 내렸으나 복직은 커녕 한 씨를 중심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음성적인 압력만 더해 질 뿐이었다. 노동조합법 46조는 「구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국가의 법률을 사실상 휴지화 하여 국가의 권위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조합원들은 복직 명령이 내렸는데도 한 씨가 복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동료 간에 말이 오고 간다. 8월 16일 한청자(루시아 직수 12년간 근속한 숙련

공) 양은 동료의 질문에 노조법 46조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공장장 임동성은 「네까짓 게 뭘 안다고 지껄이고 다니느냐?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 한 양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말았다. 그러나 한양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낼 것을 겁낸 공장장은 직포부주임 고대용을 시켜 한양의 결근계를 위조하여 제출케 함으로서 한양이 마치 스스로 결근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합법화 시켜 버렸다. 이에 분격한 한양은 그날 밤 2시 손끝을 잘라 혈서로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가 마르면 또 자르고, 다음 손가락까지 끝내 열손가락을 모두 잘라 모조지 전지 두 장을 혈서로 채웠다.

「저는 근 10년이라는 세월을 상호직물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숙하게 자라온 내 집 같은 상호직물을 망치려고 노동조합 운동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여성이지만 쓰러져 가는 회사와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우리 노동자와 손과 손을 마주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단합하여 회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뜻대로 안되고, 파괴주의자, 공산당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소리들이 저의 귀에 들릴 때 … 아무리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노동자들이지만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찾으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노예같이 다루지 말고 그 들을 인간으로서」 대우해 달라는 호소문은 천자를 넘어서고 있다.

8월 18일 「그리스도왕 사랑의 집」에서는 52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전국섬유노조 쟁의부장 임회하에 장기화한 노조분회 수습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재후 씨가 정식 분회장으로 선출되고, 새로운 조직정비를 위한 움직임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혈서는 낭독되었다. 그 다음날 회사는 한양을 사무실에 불러 몇 시간에 걸친 훈계와 꾸지람이 계속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근무 시간 이외에도 노조원 모임을 방해, 감시, 회유, 구타 등으로 압박해 왔다. 즉 18일 대회 이후 김도현(직포부 기사, 노조분회 쟁의부장), 최인섭(시설부) 양씨를 회사 측근자들로 하여금 집단 구타하는 한편 해고시켜 버렸다. 이에 분격한 노조원 50여명은 8월 24일 정오부터 25일까지 24시간 동안 작업을 거부했다. 이 사태를 수습키 위해 전국 섬유노조 총무 부장이 현지에 달려가 상호직물 대표자와 협의 후 일단 취업은 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번 작업 거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열성적인 조합원만 골라 36명을 무더기로 해고시켜 버린 것이다. 즉 회사가 하는 일은 불법도 합법이고, 조합원측에서 하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집단 해고로 노동조합원들은 서울로 집단 상경 진정과정의 데모를 벌일 움직임이 있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혈서를 쓴 한 루시아 양)

노동청년 / 1968.09.

하나마나 노동위 판결 (1968)

하나마나 “노동위 판결(判決)”

구속력 없어 업주들 무시하기 일쑤

기업주의 횡포를 막고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치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각종 판결이 구속력이 없어 법의 보장이 요청되고 있다.

22일 노동청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 강화군 상호직물[사장 김정남(金正男)]은 지난 2월 14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한재우씨 등 39명을 무더기 해고한 바 있는데 경기도 지방 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15일까지 전원을 구제, 복직시키고 그간의 봉급 및 제반 수당지급 등을 명령했으나 2개월이 넘는 22일 현재까지 13명만 복직되고 나머지 26명은 복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심도(沁都)직물회사(사장 김재기(金在紀))도 노조를 결성한 박부양(朴富陽)씨 등 20명의 종업원을 지난 2월 14일 무더기 해고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어 부당하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만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내고 있다.

경향신문 / 1968.10.22.

가냘픈 산업 남자군, 35만 여공(女工)의 어두운 현실 (1970)

가냘픈 산업 남자군 35만 女工(여공)의 어두운 현실,

8시간 노동은 51%뿐, 절반이 월급 만 원 이하

윤락 위험 속에 향학(向學)의 몸부림도, 낮은 생활비... 영양실조 많아

17개 공장의 현장 답사기

수출은 산업 전사들의 노력의 결정이다. 우리가 먹고 쓰는 일상용품에서부터 해외에 보내는 질이 좋은 가발, 슈터, 직물 그리고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여공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 여공은 크고 작은 수많은 공장에서 한국의 부(富)를 생산하고 있다. 이 여공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노동청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기자는 지난 여름 도시의 17개 공장을 찾아 현장의 여공들로부터 직접 그들의 일손을 눈여겨 보았다. 그들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장에서 최저의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도 그들 나름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성민선(成旻宣)기자>

노동청은 최근 제조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적 보호개발행정」의 실행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전국 1백여 공장의 여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여공 숫자는 35만 명.

지금까지 밝혀진 서울의 7백 명 여공에 대한 표본조사결과에 의하면 87.2%의 여공이 25세 미만자고, 71.6%가 지방출신자로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반에 지나지 않는 51.2%였다. 10시간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34.4%나 되지만 크게 잡아 1만 원 이하를 받는 이가 꼭 절반이다. 또한 대부분의 여공들은 한결같이 오락실, 상담자, 교양강좌를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

공장의 현장을 실제로 돌아보면 이런 사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 공장엔 아마 전국의 어느 군(郡) 하나에서라도 빠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4천9백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여공을 거느린 서울P방직 노무부장의 짐작이다.

도시로 또는 공업지역으로 출지어 나오는 여공들. 특정한 기술 없이도 품앗이 할 수 있는 값싼 일자리가 준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여공의 출발은 거의가 무리한 자기 희생정신에 기인한다.

이제는 35세의 올드미스가 되어 방직공 살이를 그만둔 부산의 박호선 양은 두 살 아래인 남동생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의 학비를 벌기 위해, 16세에 야간 중학만 마친 채 직공의 길로 뛰어 들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얼마 전 그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일자리를 뜨고 최근 영화화까지 된 「누나 와 시집 안 가노」란 수기를 써 냈으며 계속 창작 생활에 몰두하고 있다.

P방직의 모범여공 김갑진 양(28)은 가난에 시달려 20년간이나 눈이다 떨어진 어머니를 수술시켜 드릴 일념으로 공장문을 두드렸다.

일손이 모자라는 요즘은 여공이 대환영이다. 18세 이상에다가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거의 다 채용된다. X레이까지 찍어 선발하는 곳은 최고(?) 수준급 기업체에나 있고,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우리 아들 딸 왔다’ 하면서 신입여공을 거의 무조건 환영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신입자 3명을 데려와 2개월간 있을 보장을 하면 1천원의 보너스를 준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 식모 노릇하다가도 수틀리면 가버리는 곳이 바로 공장일 만큼 여공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그렇지만 일을 해내는 만큼의 대접이 없는 곳이 여공의 세계이기도 하다. 원공(原工)인 숙련공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 양성공(養成工) 혹은 견습공 노릇을 해야 한다. 일당은 괜찮다는 곳이 150원, 형편없기론 90원까지 있다.

기숙사가 있지만 잘된 곳은 문이 좁고, 또 들어가 봤자 다다미 썩는 냄새나 나는 외양간 같은 곳도 있다. 그나마 외박 외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니 보통은 4명 정도 그룹을 지어 공장근처에 10만원 정도의 전세방을 얻어 공동자취에 들어간다.

간장과 소금이 평상의 반찬인 최저의 식생활이다. 김치는 담는 절차가 복잡해 솥에 안 먹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도 먹을 여유가 없다. 생활비는 고작 2천원 정도 나머지는 있는 대로

계에 털어 쏟는다. 그래서 여공들은 대부분 빈혈과 영양실조 소화불량까지 겹치게 마련이다.

일단 작업장에 들어가면 거대한 기계의 벽이 턱 버티고 서있다. 온 몸은 낡은 기계의 열기와 덜컹거리는 소음에 절고 땀을 뒤집어쓴다. 다리는 텅텅 부어오르고 허리 어깨가 옥신거린다. 온종일 온수에 손을 넣어 실을 뽑아내야하는 생산 공장에서는 손이 물에 붙어 허영게 해지고 진물이 나며 알루미늄 공장에선 납독이 들어 얼굴이 퍼레지고 포르말린을 접착제로 쓰는 합판공장과 고무공장에서는 주르르 눈물을 흘리게 마련이다. 전자 부문의 여공은 단박에 눈을 버리고 만다. 어쨌든 방직공 3년에 얼굴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는가. 3교대(8시간씩 3번 교대로 24시간 기계는 돌아간다) 중 밤일(밤10시부터 새벽6시)에 걸리면 엄습하는 졸림과 씨름해야한다.

사나운 반장 혹은 조장 언니가 귀밑에서 불어대는 호루라기 소리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잠과 싸우는 여공들을 몰아붙인다. 그 통에 화가 치밀고 악이 받치는 것은 여공들 자신. 일부러 화를 돋우어야하는 것이 수준이 낮은 여공들을 휘어잡기 위해 고참 조장들이 터득한 최선의 감독 방법.

작업장 가운데서는 인간관계가 없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의 이름이 나이가 고향이 어딘지 1년이 가도 모르기 일쑤이며 아예 알리고 드는 이도 없다. 신참내기와 선임자 사이에는 무조건 ‘언니’ ‘애’로 통한다.

기혼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존경할 필요가 없다.

퇴근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퇴근하는 재미에 일하러 다니지만 바로 문턱에서 기분을 잡칠 일이 생기고 만다. 검신(檢身)이 그것. 혹 회사 제품을 하나라도 지니고 나가나 싶어 몸을 수색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식료품 업체에서는 특히 심하다. 2,3년전 H제과에서는 적발된 자를 즉각 해고한 것은 물론 작업장 내 방송으로 그 이름을 대고 회사 물건을 훔쳐간 도둑으로 못 박아 이는 인권유린이라고 다른 여공들의 분노를 샀다.

여공에 대한 압력은 노동조합의 결성 방해 간섭으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강화도의 어느 직물공장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노조가 없어 여공들만 착취 될 뿐 이었다.

나이 어린 사람을 푼돈에 마구 썼기 때문에 그들의 발육은 거의 정지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곳에 파견된 미국인 가톨릭신부가 신자 여공 수 명을 상대로 노조의 필요성을 교육했다. 그 결과 노조결성 무드가 짙어졌고 몇몇 희생적인 여공들의 앞장선 노력 끝에 개별적으로 동료들의 서명을 받아 드디어 노조가 탄생했다. 그러자 공장은 즉각 문을 닫고 기업주는 경찰을 동원, 그 외국인 신부에게 반공법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

안양의 어느 공장에서는 여공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여 노조를 한담시고 날뛰는 자들이 얼마나 회사에 불성실했던가를 역설하고 노조 탈퇴서를 받아냈다.

불응자 치고 파면이 안 된 이가 없었다. 입만 병긋해도 상부에 다 알려지는 치밀한 조직도

있어 노조는커녕 어떤 불만도 터뜨릴 수가 없다. 불만이 있으면 ‘나가면 그만일 것 아니냐’는 것. 그 소리에 대항할만한 여공은 하나도 없다. 노조가 있다 해도 그 분회장 혹은 지부장이 경영주의 측근이거나 외국인이 경영자일 경우 언어의 장벽을 이용하여 노조책임자가 자신의 영달만을 꿈꾸고 경영자 편에 아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나이찬 여공들은 또한 정에는 어이없이 약하다.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이번엔 자기 앞에 나타난 이성(異性)에게 아주 잠깐 사이 돈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것까지 아낌없이 주고자 한다. 뻔뻔한 대학생, 군인, 실업자들이 그러한 여공을 노리고 손을 뻗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리채(7푼~1할 이자)라도 얻어 옷, 구두, 화장품을 사야하고 택시도 타고 극장에도 가야한다.

어떤 여성단체지도자는 서슴지 않고 모든 여공은 전부 윤락했거나 윤락 직전에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여공이 타는 월급이 기껏 4,5천원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것.

비록 춤바람이 여공에까지 미쳤고 그들이 입는 옷은 여대생의 것 못지않게 화려하지만 그들을 교양이 있고 세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 자신도 ‘결코 우리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학적인 말을 토하지만 그러나 여공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부 윤락했거나 그 직전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결코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배움의 열망이 있어 고된 일을 끝내고 혹은 야간고등학교로 혹은 학원에 나가 영어, 한문, 주산, 국어를 익히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신용조합이 나타나 낭비를 막아주고 인천, 서울(영등포), 대전 그리고 각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들의 인격에도 꽃이 필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근로여성주간의 설치, 직장교실, 상담원 위탁 여성근로감독관의 확보(현재 서울에 단 1명 있음), 그리고 기숙사, 오락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법제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예산의 확보가 난관. 내년도에 얼마나 얻어내고 계획을 여러 각도에서 추진하느냐가 문제다. 계획 자체도 벽과 벽에 막혀 중도에 의욕까지 상실되어 버리기 안성맞춤. 노선익(盧善翼) 담당관의 말처럼 부녀행정면 특히 여성의 전반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직접 상부에 건의 할 수 있는 단일기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동아일보 / 1970.10.23.

강화 심도직물 노동조합사건 (2012)

‘성장에 가려진 노동의 역사’ 강화 심도직물 노동조합사건

(부분 생략)

▲ 한국 노동의 역사 보여주는 심도직물

강화는 한때 대구(섬유), 수원(나일론) 과 함께 3대 직물도시였다. 대구와 수원의 도시 규

모를 생각해보면 강화의 직물산업 발전은 특이한 현상이었다. 1960년대 강화 직물공업을 이끌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심도직물이었다. 심도직물은 전성기에 1,200여명의 노동자가 일했고 파산되기까지 총 15,000여명이 종사하였다. 현재 강화도의 인구가 약 6만임을 가정하면 심도직물의 경제적 효과가 강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성장의 혜택이 공평하였을까? 지금 할머니가 되어버린 여공들의 기억 속에는 일주일에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의 격무와 노동자 60%가 앓고 있는 위장병, 결핵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

당시 심도직물 여성노동자는 이러한 노동 현실을 떨쳐내고자 여성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저항했다.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이 해방 이후에도 반공법으로 이어져 노동조합운동이 쉽지 않았던 때에, 심도직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끼꺼이 땀 흘릴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때 연대의 손길이 닿았다. 자신들이 믿었던 신앙과 그 안에 흐르는 정의에 대한 의지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강화도 직물노동자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다. 그러나 회사 측은 조합원 2명을 해고하고 공장을 폐업시켰다. 강화도 소재 21개 직물회사는 150여명의 노동자를 동원한 심도직물노조 반대 시위,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에 대한 고용거부, 천주교 인천교구장을 통한 강화읍 성당 성직자 교체요구 등 심도직물 노동쟁의를 다각도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천주교 인천교구는 담화문을 통해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는 천주교가 그동안의 간혀있던 정교분리의 원칙을 넘어 사회 참여, 특히 노동현실에 대한 참여를 선언한 전환점이 되었다. 여기에 얼마 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이 중심이 되어 심도직물 사태에 대한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주교단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마침내 정부로 하여금 사태수습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해고자 전원복직'과 강화직물협회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해명서' 발표로 강화도 섬유노동조합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 변화를 위한 씨앗 - '참여와 연대'

강화의 직물여공들의 투쟁과 종교인의 참여는 분명 '씨앗'이었다. 이 씨앗은 '스스로의 자각'과 '이웃과의 연대'가 서로 만나면서 이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YH무역사건 등으로 꽃 피웠다.

이 사건은 경제 성장의 뒷면에 감춰진 노동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여성 노동자들의 저항과 인간 선언의 역사적 출발점이 된 것이다. 지금은 심도직물 굴뚝의 일부를 잘라 강화 용흥공 공원 내에 강화도 근대화의 상징으로 <심도직물 상징탑>이 남아 있다.(사진)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그 곳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화읍 천주교 성당의 예수상을 바라보며 심도직물 굴뚝에 피어올랐던,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버린 어린 여공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끼꺼이 흘릴 수 있는 땀'을 만들어준 사제들의 '연대의 마음'을 떠올린다.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디선가 또 다른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린다. '참여'와 '연대'로 달구어진 따뜻한 품이 그들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강화뉴스 / 2012.06.19.

강화도 심도직물 노조사건, 천주교 인천교구 심포지움 (2015)

강화도 심도직물 노조사건...천주교 인천교구 심포지움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절 주일에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에 대한 심포지움과 기념 조형물 축복식을 개최한다. 3일 답동 가톨릭회관 5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노동절 주일을 맞아 강화 심도직물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새기는 자리다.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은 1960년대 '공장 걸레'로 불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던 강화도 방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전원 해고됐던 일로, 한국 천주교회와 인천교구의 강화성당, 그리고 인천교구 가톨릭 노동청년회(JOC)는 해고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당시 성명서를 발표한 후 정부는 사태수습에 나서 1968년 7월까지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 됐다.

인천교구 노동사목위 관계자는 "심도직물 노조 사건은 가톨릭교회가 사회정의와 노동자 인권문제에 참여한 최초의 사회사목(노동사목)의 역사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뜻깊은 날을 기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설아 기자

경인일보 / 2015.05.01.

산업화 어두운 그늘 ... 20대 여공들 노동 문제도 돌아봐야 (2017)

심도직물은 강화 경제를 이끈 견인차였다. 하지만 노동 착취라는 어두운 단면도 드러났다.

1947년 심도직물이 문을 연 뒤 이곳에서 일한 사람은 대부분 20대 전후의 어린 여성이었다. 여공들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된 공장에서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했다. 끼니를 자주 거르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여공도 많았다. 월급도 적었다. 이같은 현상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 당시 강화에 있던 21개 직물회사 종사자 5,000여명도 비슷한 처지였다. 이른바 심도직물 사건은 직물공장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문제로 불거졌다.

인천에서 촉발한 이 사건은 한국 천주교가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2015년 4월 발행한 노동사목 소식지를 보면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1967년 가톨릭노동청년회(가노청·JOC)가 주축이 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자 심도직물 사주 김재소는 노조 분회장과 조합원을 해고했다. 해고자 대부분은 천주교 신자였다. 이어 강화지역 21개 직물회사도 JOC 회원을 절대 고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강화성당에서 전국 JOC 지도 신부 연구회의가 열렸다.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와 성공회에서도 모여들었다. 이들은 1968년 2월 주교단 명의로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결국 심도직물 등 강화지역 직물회사는 가노청 회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다. 천주교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산업화라는 빛에 가린 여성 근로자들의 어두운 삶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인천일보 / 2017.05.16.

3) 고급 넥타이, 커튼지의 생산

심도직물 등, 고급 넥타이 직물 미국 시장 수출 (1973)

고급 넥타이직 인기, 야드 당 2불 20센트

최근에 고가품 넥타이 직물이 미국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21일 이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에 야드 당 1달러 90센트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2달러 20센트까지의 고가로 미국 시장에 수출되어 바이어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동 직물은 심도직물 등 8개사가 참가하여 5월 현재 50여만 달러어치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매일경제 / 1973.05.21.

심도직물서 국산 웹블리 타이 시판 (1973)

국산 웹블리 타이, 심도직물서 시판

심도직물은 미국의 웹블리 회사와 기술제휴로 국산 웹블리 타이를 생산 판매한다. 심도직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메이커인 웹블리사와 기술제휴로 타이를 생산하고 일부는 수출하고 내수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심도직물대표 김의신씨(45 강화읍 관창리 394)는 낙후된 산업 환경에서 강화사람만을 채용, 대를 이어 한때 이곳의 특산물이었던 직물생산을 고집하는 사람. 김씨는 부친 김재소 씨

8대 국회의원에 의해 창업돼 한때 1천5백명의 종업원을 거느렸던 회사가 나일론의 등장으로 연간외형 60억원의 소규모 업체로 전락했으나 현 직원 1백50명의 90%를 차지하는 강화사람 보호와 강화 기업이 될 것을 결심, 고장을 지키는 기업의 길을 걷고 있다. ‘어려울 때 고장을 떠나는 것은 쉽다’고 말하는 김씨는 처녀시절의 기능공을 주부기능공으로 다시 받아들일 정도다.

강화군은 우리나라 5대섬의 하나인데다 수도권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경기도내 36개시·군 중 웅진군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따라서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곳이다.

그러나 최근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리려는 청·장년층의 자구노력이 돋보인다. 인삼판매상, 금은방주인, 축산업자 등 장년층 회원 39명으로 구성된 강화로터리클럽(회장 나성식·43)은 강원영, 김석순(이상 부회장), 조경호(총무), 이경식, 주용남, 김유영, 우두식(이상 분과위원장) 씨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발벗고 나서 대학생과 소년·소녀 가장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매결연으로 의욕을 북돋우는가 하면 고교졸업생의 취업알선에도 애쓰고 있다.

매일경제 / 1973.08.08.

심도직물 등, 넥타이 산업 전문 메이커로 육성 (1974)

지반(地盤) 다질 넥타이산업 7개 업체를 전문 메이커로 육성

차관(借款) 도입 기술제휴 지원, 80년도 2천만 불 수출 이루게

여행자 휴대품 속에 의례 끼어 있게 마련인 외국산 넥타이는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될 모양이다.

상공부가 넥타이 수출증대방안의 한로 마련한 외국 차관 도입 및 기술제휴는 국산 넥타이를 질적으로 높여 외국산에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해 내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상공부가 내세우고 있는 넥타이 수출증진방안은 심도직물(沁都織物) 등 7개 메이커를 전문생산업체로 지정하여 자본과 기술면에서 외국과 대비하여 뒤지지 않도록 하고 오는 80년도에 2천 달러의 수출고를 올린다는 것이다.

넥타이가 외국을 다녀오는 여행자 휴대품이 된 것은 국산 품질이 외산만 같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산 질이 뒤지는 이유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원단 생산 기술이 외국만 못 했고, 둘째 염색가공처리가 선진국의 그것을 따르지 못했으며 셋째 디자인, 색상 등 유행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품은 저가품으로 호칭되거나 바겐세일 등 잔품처리 틈에 끼어 팔리는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에 상공부는 올해 안에 삼광직물(三光織物)에 차관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 유명 메이커와 기술 제휴를 맺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은 섬유류 등 대중품목(大宗品目)이 해외시장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고가 품 수출이 이들 저항을 최소한에 그치게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수출까지는 기술 개발 시설 도입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전제 사항 등이 있지만, 80년대에 가서는 세계지상에 내놓을 만한 국내 넥타이 메이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넥타이 산업도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매일경제 / 1974.08.08.

심도직물, 넥타이 업계 웹블리 등과 합작추진 (1974)

제품 고급화로 수출증대, 넥타이업계 웹블리 등과 합작추진

넥타이 업계는 제품고급화 및 수출시장 심화에 의한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외국 우수 기업과의 합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일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의하면 국내 넥타이 수출업계는 제품 고급화에 의한 수출 증대 수단의 하나로 미국의 웹블리, 이탈리아의 퍼스널리티사(社) 등 세계 우수 메이커와 자본, 디자인 및 기술합작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삼광직물이 미국의 후레즈네크웨어사(社)와 합작 계약을 체결, 연간 2백40만달러 상당의 넥타이를 생산, 합작선의 책임 아래 전량 수출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심도직물(沁都織物)은 웹블리사(社)와 상표 및 계약 기술을 체결, 웹블리 마크로 일본 등 동남아 지역에 수출키로 했으며 고려(高麗)실크도 이탈리아의 메레디.디.프로초닉퍼스널리티사(社)와, 조선견직(朝鮮絹織)은 이탈리아의 페코사(社)와 각각 자본 합작 및 기술 제휴를 계획 중이다.

그런데 업계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등 관계 기관의 지원 아래 넥타이의 고급화와 수출 확대 계획을 추진 중인데 올해에는 원단을 포함, 약 6백40만달러의 실적 지양이 기대된다.

한편 한국디자인포장센터와 무공(貿公)은 넥타이의 품질 향상을 유도키 위해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무공전시실에서 넥타이쇼를 개최하고 있다.

매일경제 / 1974.12.16.

심도직물, 코오롱상사와 공동으로 커튼지 개발 (1975)

1백50여 종 생산 착수, PE섬유 소재로 커튼지 개발

코오롱상사(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폴리에스터를 소재로 한 커튼지(地)를 개발했으며 방염가공에도 성공, 오는 9월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2일 코오롱그룹에 따르면 산하 코오롱상사는 커튼지 전문메이커인 심도직물과 공동으로 폴리에스텔 수퍼브라이트사를 원료로 한 새로운 커튼지를 개발, 9월부터의 시판을 목적으로

로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했다. 또한 코오롱상사 기술진은 신제품의 방염가공에 성공했는데 이제품은 주문생산에 의해 공급 할 방침이다.

한국포리에스텔이 개발한 원사(原絲) 폴리에스텔 수퍼브라이트사로 만든 커튼지는 종래의 비스코스나 아세테이트사를 사용한 제품의 결점인 금속성 광택을 보안, 색상 면에서 우아하고 선명하며 일광견로도, 세탁견로도, 촉감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세탁 후 수축률이 적고 대량생산에 의한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1백50여 종의 제품을 시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코오롱상사는 양장지, 하복지등 복지이외에 천막지, 코니탑을 비롯 산업용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매일경제 / 1975.08.02.

우리나라에 인정된 해외유명상표는 심도직물의 웹블리 넥타이 등 (1980)

가짜 외제상표에 속지 않으려면, 외국산 좋아하는 경향은 사정돼야

메이커 중간상들 철저한 단속 필요

소비자들의 외제 선호 풍조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버젓한 국산품이 외국유명 상표를 달았다 해서 3~4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음이 최근 특허청 상표 단속 결과 드러난 것이다. (부분 생략) 현재 우리나라에 인정된 해외유명상표는 심도직물(沁都織物)의 웹블리 넥타이, 한일합섬(韓一合纖)의 카시미론 모포류, 원미(元美)섬유의 「맨하탄」(Y셔츠), 삼성물산(三星物産)의 「소사이어트 브랜드」(신사복)이며, 신세계(新世界)백화점의 복합상표 「신세계-피에르가르맹」(넥타이·Y셔츠·스카프·블라우스)뿐이다. 이 밖의 품목과 업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가짜 아니면 밀수품이다. 상표에 집착치 않고 품질 좋은 제품이면 구입하는 태도도 가짜에 속지 않는 좋은 자구책이다.

매일경제 / 1980.03.21.

제 3 장 2000년대 이후 직물산업의 재탄생

1) 심도직물의 폐업

법원, 심도직물 화의 정리 절차 폐지 결정 (2001)

인천지역 화의 절차 폐지결정 기업 잇달아

인천 지역 내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등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화의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내리고 있다. 인천 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李胤承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강화군 관청리)에 대해 화의정리 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장기간에 걸친 섬유경기의 침체와 생산 장비 노후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폐지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11일 지난 1월12일 화의개시결정을 내린 대우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인 덕창기업(남동구남촌동)에 대해서도 파산선고를 했다. 법원은 화의개시결정 이후 이 회사에 대한 경제성 조사결과, 화의조건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 지난달 20일 화의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밟아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 2001.05.19.

강화 ‘심도직물’은 어떤 회사였나 (2005)

강화 ‘심도직물’은 어떤 회사였나

강화에서 심도직물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인천시민 가운데 심도직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도직물 공장부지가 포함된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은 내달 13일에 착공, 내년 4월 준공예정이다. 심도직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심도직물 기념관을 비롯 주차장·공원·기념품매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또 강화 출신인 수필가 조경희(87·여) 선생의 문학관이 건립된다.

▲ 심도직물을 아시나요? = 지난 1981년에 심도직물에 입사해 23년간 사무직으로 일한 K(54)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심도직물은 양단(고급비단), 커튼, 카펫, 치마, ‘웹브리네타이’ 등으로 유명했다. 이 회사 공장건물은 모두 32개동. 대지 3천500여 평

에 사무실·공장·식당·창고·기숙사(10실)·기계설비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지난 1961년에 지은 이 건물은 당시 지역 최초의 현대식 공장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심도직물에서 일했던 사람 수는 모두 1천200여명에 달했다. 서류상에 남은 직원번호를 보면 심도직물을 거쳐 간 사람이 1만 명을 넘는다. 임금대장을 보면 당시 월급이 공무원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중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원서조차 내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심도직물을 방문했으며, 표창장이 본동 1층에서 2층 복도까지 걸쳐 있었다고 한다. 주민 송영순(49·여)씨는 “언니가 초등학교만 졸업해 심도직물에 입사하지 못하던 기억이 있다”며 “심도직물을 다니는 아가씨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말했다.

심도직물은 경영난으로 부도(1991년 11월8일)가 난 이듬해 3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심도직물 살리기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인일보(1991년 11월30일자)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조와 간부진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를 했으며, 채무자들까지 관측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심도직물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스스로 법정관리를 포기하게 된다.

강화경찰서와 하점면 망월3리 마을회관 앞에는 심도직물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매년 연간 200여 가마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고, 주민들을 위해 독과 교량을 세우는 일에도 앞장섰다.

▲ ‘심도직물사건’ = 가톨릭이 노동운동과 관련해 처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강화 심도직물사건(1968년)’은 노동자 인권신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

사측은 노동조합에 적극 가담한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천주교인은 고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낸다. 그러자 임시주교회의에서 14명의 주교가 서명한 ‘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주교단 공동성명서’가 발표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전원 복직된다.

김녕(정치학) 서강대 교수는 ‘명동성당 축성 100주년 기념 특별연구 발표회’ 자료에서 “심도직물사건 등은 교회 전체는 물론 교회의 방관과 침묵을 늘 당연시했던 정치지도자들과 사회대중을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강화 김종호·목동훈 기자

경인일보 2005.06.27.

2)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강화 '심도직물' 되살아난다. (2005)

강화 '심도직물' 되살아난다.

국내 직물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다 부도로 기억에서 사라진 (주)심도직물이 되살아난다. 강화군은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의 하나로 심도직물 기념관을 짓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심도직물 공장에 위치한 굴뚝(높이 30여m·사진)을 그대로 보전하거나 굴뚝의 윗부분을 잘라 일부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이 이처럼 심도직물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심도직물이 지닌 상징성 때문이다.

심도직물은 전성기 시절 총자산이 87억원, 연간 매출이 61억5천만원에 달했다. 인천의 대우자동차(현 GM대우) 같은 존재로 강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심도직물을 중심으로 동광직물·이화직물 등 크고 작은 20여개 직물업체가 모여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심도직물은 당시 강화의 직물산업을 이끌어 가는 업체였다”며 “코오롱도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었다”고 말했다.

공장 굴뚝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일부 공무원들과 지역유지들이다. 심도직물이 추억과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것.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바람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군에 등록된 공장 수는 모두 118개소. 이중 18곳이 폐업했거나 휴업 중이며,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가 35곳에 불과하다. 자동차시트를 만드는 A업체는 안산으로 공장을 옮길 예정이며, 타일 제조업체인 B사는 중국업체와의 ‘단가경쟁’에서 밀려 사실상 휴업 상태다. 염색업체인 C사는 직원을 3분의2 정도 줄였으나 매달 1천만~2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강화직물이 번창했던 당시 강화군의 인구수는 지금(6만6천명)의 두 배에 가까운 12만5천여 명. 하나 지금은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생산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심도직물 정문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노인은 “심도직물에 입사하기 위해 공무원을 그만둘 정도였다”며 “이 일대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로 늘 붐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강화 김중호·목동훈 기자

경인일보 / 2005.06.27.

강화직물조합 100년 전통 복원, 문양 입힌 손수건, 행주 상품화 (2016)

강화직물조합 100년 전통 복원, 문양 입힌 손수건, 행주 상품화

실용성·아름다움 모두 우수

인천 강화군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강화 여인과 소창 이야기를 담아 국내 최초로 소창 직물에 문양을 입힌 손수건과 행주를 관광 상품으로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관광 상품은 소창에 염색을 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소창 직물 위에 천연 디자인을 가미한 문양을 넣어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강화 직물조합’ 창설 100주년을 맞아 강화 소창의 전통을 살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소창을 소재로 한 손수건과 행주는 물 흡수율이 탁월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소창은 옛날 기저귀로 많이 쓰였던 면으로 1920년대 초부터 강화군의 주요 산업 중 하나다. 인조 직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매우 번성했었다. 현재 11개소의 소창 공장이 가내 수공업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약 100년의 전통을 가졌음에도 산업화로 외면당했던 소창 직물을 외부에 알리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준비와 함께 소창직물관련 상품 개발을 위해 관내 소창 공장 현황조사를 마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소창 직물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관광 상품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만큼 실용성에 무게를 두고 제작되어 강화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소창 손수건에는 고려 시대 도읍지였던 점을 참작 고려 황실문양을 입혀 고급스러움과 강화 특산품인 포도 문양을 넣어 다산의 의미를 부여,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가격은 손수건과 행주가 각각 8천9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해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제작된 관광 상품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상품과 문양을 넣어 제작, 강화군의 화문석과 함께 대외 홍보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2018 올해의 관광도시와 함께 강화군의 관광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호기자

경인일보 / 2016.03.01.

강화도 소창과 기저귀 (2016)

[이광표의 근대를 걷는다] 강화도 소창과 기저귀

마당이나 옷장 빨랫줄에 기저귀들이 줄지어 펴려있던 시절이 있었다. 펴려있는 기저귀들을 보면서 뽀얀 생명력을 느끼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도 적게 낳고 그나마 기저귀도 대부분

일회용을 쓰기 때문에 이런 풍경을 만나기는 어려웠겠다.

천 기저귀는 소창 면직물로 만든다. 소창은 기저귀뿐만 아니라 행주, 이불솜, 싸개 등으로 사용되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했던 옷감이었지만 지금은 소창자체가 잊혀져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 강화군에 가면 지금도 소창을 생산한다. 비록 가내공업이지만 10여 곳에서 직조기가 돌아간다. 현재 소비되는 소창의 대부분이 강화산이다

동아일보 / 2016.08.25.

한옥 직물공장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2017)

한옥 직물공장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연계, 강화군 교육체험전시관 조성

지역 특화 전통문화유산 홍보, 전문 인력·콘텐츠 개발 '올인'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매입한 강화읍 신문리 소재 한옥과 소창공장을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1930년대에 건축된 한옥과 공장 건물은 1960~70년대 강화군의 지역경제를 견인했던 평화직물 공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 및 중국산 면 소창의 대량 유입으로 운영난을 겪게 되면서 오랫동안 도심의 흉물로 방치됐다.

평화직물은 1956년에 마진수가 설립한 회사로 직조기 30대와 60여 명의 종업원이 난초랑 봉황이 곱게 무늬진 각색 양단을 실 새 없이 짜던 곳이다.

한옥 안채에는 강화도에서만 볼 수 있는 넓은 다락이 있으며, 일본식 풍으로 지어진 별채 내부에는 화장실이 설치된 한옥과 일본식 가옥이 함께 지어진 것이 이채롭다.

직물공장으로 사용되던 건축물은 왕 대공 트러스를 사용하여 전통 목구조와 서구식 목구조가 동시에 사용됐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당시 강화도의 생산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전통 주거건축이 대응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화군은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를 대비, 강화 직물조합이 설립된 지 약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직물산업을 재조명하고, 이곳을 교육 및 체험전시관으로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강화군만의 전통 문화유산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앞으로 소창직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강화읍 관청리의 관광플랫폼과 연계해 신문리의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소규모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 취향에 만족하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발굴, 골목 관광이 지역상권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호기자

경인일보 / 2017.02.17.

강화군, 소창 체험관 조성 공모사업 추진 (2017)

인천 강화군은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10개 군,구 공모전에서 '강화 소창직물 육성사업'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강화직물' 산업이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어 따라 이를 국내 유일의 소장(면직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앞으로 소창산업을 육성해 잊혀가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살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화군에는 1916년 강화 직물조합이 설립, 1960~70년대에는 지금의 제일모직이나 선경보다 규모가 컸던 직물공장이 있을 만큼 직물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있었다. 군은 소창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평화직물 한옥과 공장건물을 매입했다.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스토리워크"와 연계해 오는 8월까지 소창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창체험관 조성사업이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직물산업을 새롭게 제조명, 소창산업 육성과 관광상품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 2017.03.16.

강화직물 100년 '옛 명성 찾자' (2017)

강화직물 100년 '옛 명성 찾자'

인천 강화군이 직물 도시의 옛 명성을 되살린다.

군은 올해 100년을 맞은 강화직물조합 설립에 맞춰 강화 소창(이불 안감이나 기저귀감 따위로 쓰는 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기로 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옛 평화직물 소창공장 한옥 사택(안채) 복원 공사에 들어갔다.

1930년대 지은 한옥과 소창공장 건물을 복원해 직물 산업의 옛 명성을 부활하려는 취지에서다. 한옥 복원 공사는 8월쯤 끝난다. 이후엔 맞은편 소창공장 터를 새롭게 꾸며 교육·체험 전시관으로 만든다. 전통문화 유산의 맥을 이을 소창 직물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평화직물은 1956년 설립 이래 종업원 60명이 직조기 30대로 각종 양단을 실 새 없이 짜던 곳이다. 1960~70년대 강화지역의 경제를 이끌던 대표 회사다. 그러나 1990년대 무역자유화와 중국산 면소창이 대량 수입되면서 문을 닫았다. 최근까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다 지난해 12월 군이 매입했다.

군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강화 직물 산업의 역사 가치를 되살리고자 지난 3월 인천 가치

재창조 선도 사업 공모전에 ‘강화 소창 직물 육성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시는 이를 가치재창조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군은 현재 강화의 직물 역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왕수봉·황신섭 기자

인천일보 / 2017.05.16.

소창으로 먹고 살던 ‘흥했던 시절’ 다시 느낄 수 있게 (2017)

소창으로 먹고살던 ‘흥했던 시절’ 다시 느낄 수 있게

그날 아침, 대문을 열었을 때 ‘꼭꼭’ 하는 소리가 맨 먼저 들렸다. 옆집 할머니가 꼬임실을 살피며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건너 집 아주머니는 베틀 앞에 앉아 오른발을 쪽 잡아당겼다. 날실이 바짝 걸려 올라오면서 구멍이 생겼다. 아주머니는 오른손에 잡은 북을 날실 사이 구멍에 밀어 넣고 왼손으로 받아 씨실을 팽팽하게 만들었다. 이 동작을 번갈아 하자 베가 짜졌다. 마당 빨랫줄에는 기저귀가 펴려뒀다. 옥상에는 행주와 이불솜 싸개 등 하얀 천이 물결을 이뤘다. 골목 어귀는 여공 1200명으로 미어터졌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직조기 소리가 매일같이 마을의 아침을 열었다.

김용장(72) 옹이 기억하는 1961년 강화 신문리의 봄은 이런 풍경이었다. 그는 “당시엔 평화직물 공장에 출근하는 여직원들로 골목에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다”며 “소창으로 모두 먹고 살던 시절이었다”라고 말했다.

평화직물은 이 시기 강화 경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1956년 마진수가 세운 회사로 직조기 30대와 종업원 60명이 난초, 봉황 무늬를 곱게 새긴 각종 양단을 짜 만들었다. 공장 건너편 한옥 안채에는 강화에서만 볼 수 있는 넓은 다락이 있었다. 직물 공장은 왕대공 트러스트를 사용해 전통·서구식 목구조를 동시에 갖고 있다. 당시 강화도의 생산·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전통 주거 건축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다. 강화군은 현재 이곳을 복원하고 있다.

심도직물은 평화직물보다 앞선 회사다. 1947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 최대 섬유회사란 타이틀을 거머쥘다. 거쳐간 직원만 1만명이 넘었다. 전성기 때엔 총 자산이 87억원, 연간 매출액이 61억5000만원에 이를 정도였다.

심도직물을 중심으로 삼호·동광·이화직물 등이 모여 있었다. 이 무렵 강화에 직물조합이 생겼고, 소창(이불의 안감이나 기저귀감 따위로 쓰이는 피륙)과 비단 생산이 본격화했다. 1960년대 강화 가정집엔 손발로 천을 짜는 수직기가 5,000~6,000대, 직물공장에도 역직기가 900여대가 있었다. 강화읍에만 공장 직원이 4,000명 넘게 살았다. 강화 소창은 짜기만 하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하지만 대구 중심으로 현대식 섬유공장이 들어서고, 인조직물(나일론)이 등장하면서 강화 직물산업은 쇠락하기 시작했다. 직물을 짜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났다. 소창 소비도 줄었

다. “그 땐 우리 회사(심도직물) 말고도 삼호·이화직물 등 20여 곳이 더 있었어. 강화 경제는 다 여기에서 나온 거여.” 심도직물 옛터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보식(86) 옹은 추억에 잠겼다. 그는 1952년 무렵부터 25년간 심도직물에서 기획부 디자이너로 일했다고 한다. 강화 소창 산업에 젊음을 바쳤다. 김 옹은 “아직도 직조기 소리가 귓전에 가득하다. 심도직물을 다니며 오남매를 키웠다”면서 “역사와 애환이 담긴 이곳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심도직물이 있던 자리엔 용흥궁 공원이 들어섰다. 30m짜리 굴뚝 끝부분이 옛 명성을 보여준다. 2008년에는 심도직물을 기억하는 강화읍 주민들이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직물조합 설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 유산인 강화 소창 직물을 재조명하기로 했다”며 “평화직물 소창공장을 체험전시관으로 만들어 강화만의 전통문화 유산을 알릴 계획이다. 골목관광을 지역상권으로 직접 잇는 관광사업으로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황신섭·황은우 기자

[사진] ▲ 심도직물이 있던 강화군 강화읍 마을 어귀. 1960~70년대 이곳은 소창 물결로 가득했다.

[사진] ▲ 인천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옛 평화직물 소창공장 한옥 사택(안채) 모습. 강화군은 15일 복원 공사에 들어갔다. 1930년대 지은 한옥과 소창공장 건물을 복원해 직물 산업의 옛 명성을 부활하려는 취지에서다.

[사진] ▲ 우리나라 최대 섬유회사로 불리던 심도직물이 있던 터. 현재는 굴뚝만 남은 상태다.

[사진] ▲ 심도직물이 전성기를 누리던 1970년대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전경. 저 멀리 굴뚝에 심도직물이란 회사명이 보인다. /사진제공=강화군

/황신섭 기자

인천일보 / 2017.05.16.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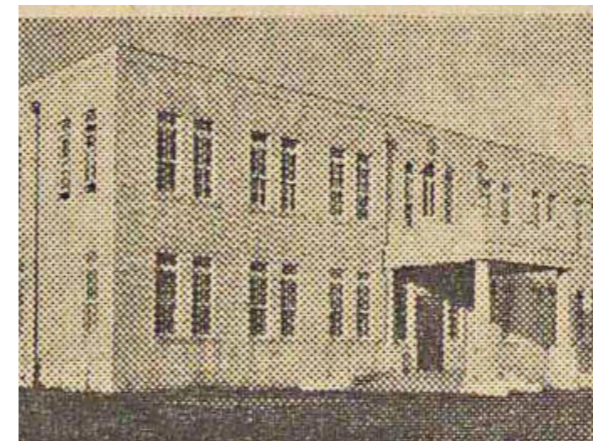
사진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1	강화 기계직조계의 선구자 김동식(金東植) / 1926.08.20(동아일보)
2	조합검사실에서 제품을 검사하는 광경 / 1934.05.22(동아일보) / 1939.09.09/1940.03.18 동일
3	신축된 조양방직 회사(화재 전) / 1937.04.07(매일신보)
4	조양방직 낙성식 / 1937.04.15(매일신보)
5	수직기로 직물을 짜는 농촌부녀 / 1939.09.08(동아일보)
6	김동식(金東植) 영세기념비 / 1938.10.(강화하점)
7	농촌부인들이 직물공장에서 직조하는 광경 / 1940.05.05(매일신보)
8	직물조합 김자평목(金子平默) 이사 / 1944.01.28(동아일보)
9~29	강화도 직물공장(21장) / 1957(국가기록원)
30	혈서를 쓴 한청자(루시아)양 / 1968.09(노동청년)
31	마영환씨의 의지로 일으킨 직조공장에서 생산되는 양단 / 1969.01.04(경향신문)
32	심도직물과 합작 추진하는 웹블리 넥타이 / 1974.12.16(매일경제)



1. 강화 기계직조계의 선구자 김동식(金東植) / 1926.08.20(동아일보)



2. 조합검사실에서 제품을 검사하는 광경 / 1934.05.22(동아일보) / 1939.09.09 / 1940.03.18 동일



3. 신축된 조양방직 회사(화재 전) / 1937.04.07(매일신보)



4. 조양방직 낙성식 / 1937.04.15(매일신보)



5. 수직기로 직물을 짜는 농촌부녀 / 1939.09.08(동아일보)



6. 김동식(金東植) 영세기념비 / 1938.10.(강화하점)



7. 농촌부인들이 직물공장에서 직조하는 광경 / 1940.05.05(매일신보)



8. 직물조합 김자평목(金子平默) 이사 / 1944.01.28(동아일보)



9.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10.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11.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12.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13.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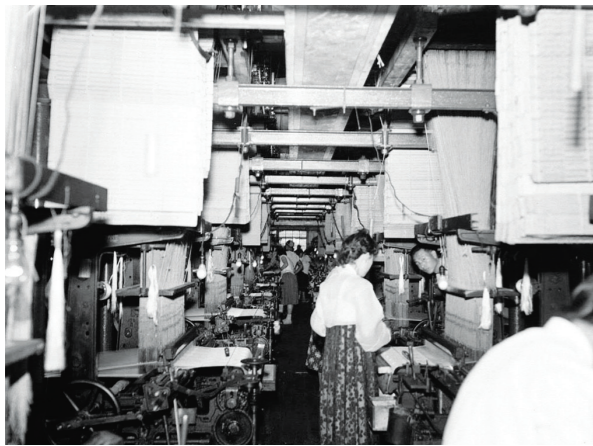
14.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15.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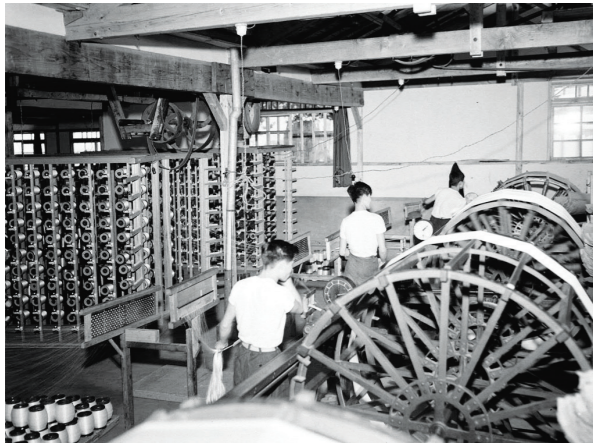
16. 강화도 직물공장(조양방직전경) / 1957(국가기록원)



17.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18. 강화도 직물공장(건조대) / 1957(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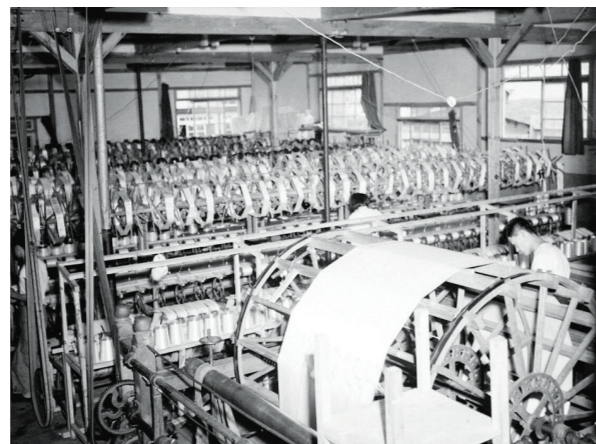
19.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20. 강화도 직물공장(물레) / 1957(국가기록원)



21.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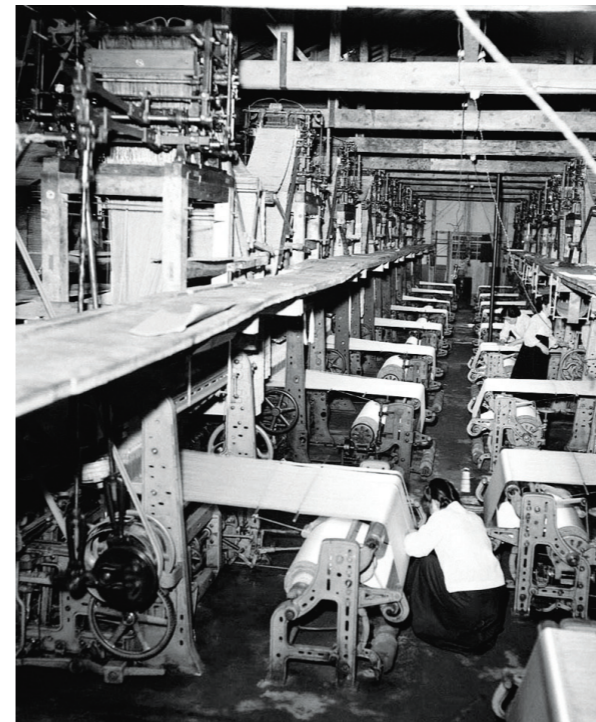
22.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23.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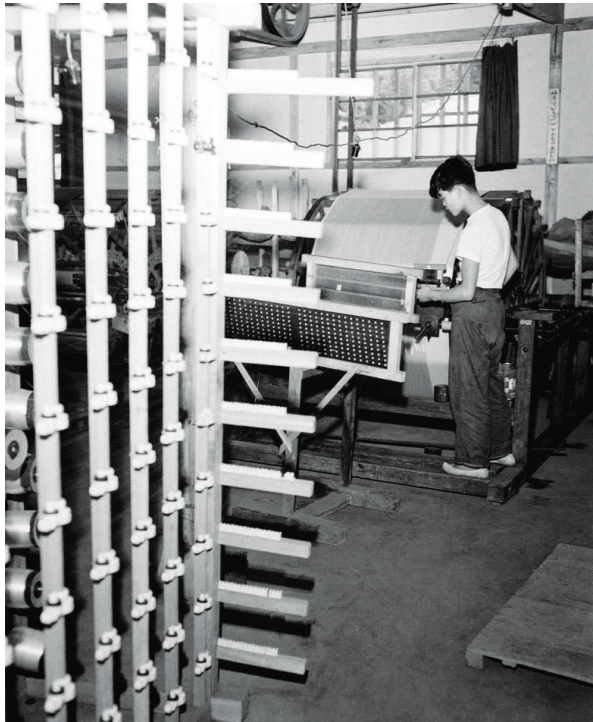
24.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25.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26.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27.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28. 강화도 직물공장(내부) / 1957(국가기록원)



31. 마영환씨의 의지로 일으킨 직조공장에서 생산되는 양단 / 1969.01.04(경향신문)



29. 강화도 직물공장(생산품) / 1957(국가기록원)



30. 혈서를 쓴 한청자(루시아)양 / 1968.09(노동청년)



32. 심도직물과 합작 추진하는 웹볼리 넥타이 / 1974.12.16(매일경제)